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9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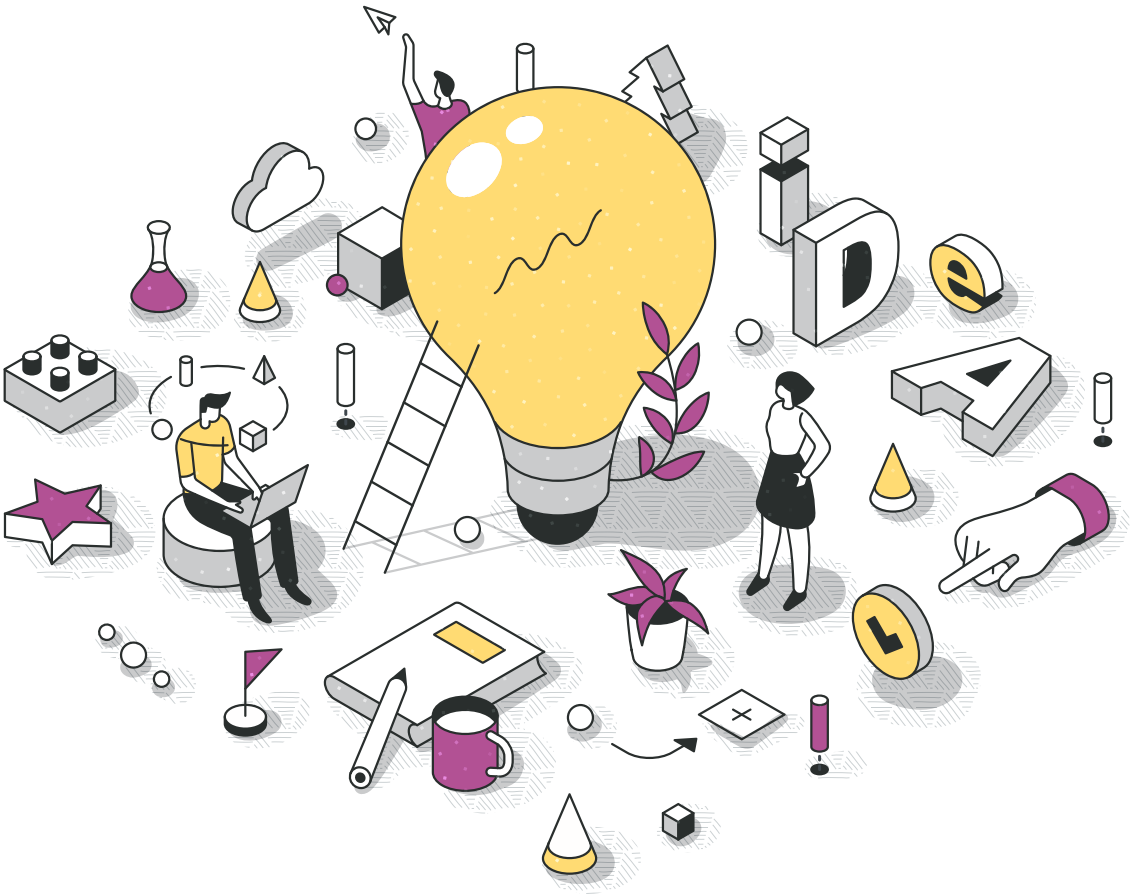
2021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2021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CONTENTS

현장사례 06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슬기로운 사서교사 생활
필(必)환경생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임가희 만덕중학교

현장사례 32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MZ세대를 위한 대학도서관 메타버스 서비스 사례

김성자·권용구·조용훈·이영원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현장사례 58

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QR code를 포함한 청구기호 라벨 개발과 장서 관리 업무 혁신 사례
5mm의 혁신

김상원·송미연 한림성심대학교 한빛도서관

현장사례 84

장려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언택트 시대에 도서관 살아남기
군포시도서관 주제특화와 온라인 서비스

이은진·정세선·박세헌 군포시 특화사업과

현장사례 106

장려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연구지원서비스 혁신 사례
중앙대학교 RSS를 중심으로(Research Support Service)

유춘섭·박원석·현명섭·최연주·유승우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현장사례 128

장려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코로나 시대, 집콕하는 가족의 독서와 화합을 꿈꾸다
비대면 '책 읽는 가족 시리즈'

서다정 파주 한울도서관

현장사례 156

장려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시민소통창구, 효양도서관의 이유 있는 선택
"럭키초이스"(Lucky Choice)

허승연·박경미 이천시 도서관과

아이디어 180

장려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청소년의 진로 자료 제공을 위한
웹 디렉토리 서비스 모형 개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적용을 중심으로

장효정·박미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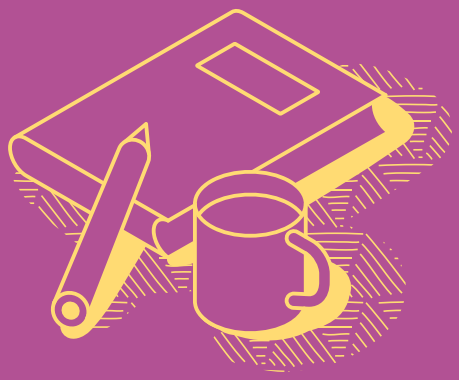
현장사례
최우수상

슬기로운 사서교사 생활

필(必)환경생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임가희
만덕중학교

Ⅰ. 학교의 심장에서 일합니다 9
Ⅱ. 코로나19가 필(必)환경생활을 외칩니다 10
Ⅲ. 아이들의 변화가 말합니다 23
Ⅳ. 향후 계획 및 제언 30



요약문

학교도서관의 독특한 특징을 사서교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 연구이다. 다른 도서관종과 달리 학교도서관은 학교가 모기관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용자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학교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으로 불려왔다. 학교는 교육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 차원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교과에서 수업 내용을 구성하며 수업 외의 학교 활동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어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기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사서교사는 단독 수업 및 협력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며, 학교도서관 운영 철학에도 이를 녹여낸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본교 1학년 교육과정의 핵심 주제는 '생태-슬기로운 필(必)환경생활'이다. 평소 독서 동아리를 함께하는 과학교사와 뜻이 맞아 생태 협력 수업을 하게 되었다. 여러 번의 회의를 하며 개괄적인 수업 방향을 잡고 평가도 일부 함께하는 밀접 협력 형태의 수업을 하기로 했다.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라는 책을 기본서로 선정하고 8가지 소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확장 도서, 모두 함께 읽을 그림책, 실천 방법이 강조된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책 등 14종으로 목록을 구성하였다. 과학과 독서 수업 각각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책-대화를 나누었다. 과학시간에는 과학적 지식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환경생태사전'을 만들었고, 독서시간에는 실천하기 위한 생태 챌린지 '실천 쫌 할 지도-만덕 생태 마블'의 내용을 구상하였다.

동시에 학교도서관에서는 생태·환경 관련 책인 『잘 버리면 살아나요』의 손영혜 저자를 초청하여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하였다. 아무래도 생태 수업을 하는 1학년 아이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반응도 뜨거웠다. 작가와 만남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굿즈도 마련하고, 싱어송라이터 학생은 자작곡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독서 수업에서 만든 '실천 쫌 할 지도-만덕 생태 마블'은 전교생의 여름방학 과제로 제시되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심장'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보활용교육과 리터러시가 강조되면서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 중이며 정보전문가인 사서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으로 풀어내는 사례를 통해서나마 각기 학교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사서교사가 공감하고 힘을 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I 학교의 심장에서 일합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도 두근거렸다. 학교의 심장이라니. 그 무게가 막중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심장에서 일한다는 것만큼 멋진 일도 없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배움을 위한 공간이자 독서 문화 놀이터이며 아이들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장소이기도 하다. 교과서를 넘어선 모든 정보자료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는 수업의 변화를, 학생은 능동적인 학습자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정보의 홍수와도 같은 학교도서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려면 사서교사의 안내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학교도서관과 다른 도서관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기관이 학교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주 이용자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학교의 목표를 이루는데 학교도서관이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이 학교도서관 운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타 관종에 비해 교육적 역할이 강조된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교육적 기능에 더해 학교 교육과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역할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서교사는 정보 전문가이지만 교육과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사서교사는 사서로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지만, 점점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언제든 동료 교사와 협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고심한다. 사서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과정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수업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서교사는 도서관 이용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과교사와 협력 수업도 활발하다. 독서교육이 강조된 지는 아주 오래되었고 요즘은 이에 더해 정보 활용 교육,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면서 사서교사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단순히 대출/반납의 양이나 독서교육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단독 수업을 통해 독서, 리터러시, 책쓰기 등을 가르치며 협력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서관 운영을 극대화한다. 물론 매달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단순히 책과 연결되거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한다.

이 글에서는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실제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실현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필환경생활 프로젝트 사례를 중점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Ⅱ 코로나19가 필(必)환경생활을 외칩니다

1. 주제 선정

우리 학교는 2월 신학기 준비 기간에 학년별 비전을 정하고 그에 맞는 핵심 가치를 선정하여 학년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나는 1학년 수업을 맡아서 1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소속되어 학년교육과정 설계에 함께 참여했다.

올해 우리 학교 1학년이 정한 핵심 가치는 '생태-슬기로운 필(必)환경생활'이다. 코로나19 팬데믹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생태 문제의 연장선이다. 그에 더해 각국의 이상 기온 소식을 듣고 겪으면서 생태 문제의 심각성을 강제로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 생활을 넘어서 필환경의 삶을 살아야 한다. 1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소속된 교사 모두 이에 깊이 공감하여 이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이 다루기에 생태가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교사들부터 공부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수업, 학년 프로그램 등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때 생태를 꾸준히 다룰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역시 진로독서와 독서탐구 단독 수업을 맡아서 수업 시간에 생태 주제를 다루고 싶었다. 1학년 전반 주 2회 수업이어서 기존에 수업하던 주제에 더해 생태를 추가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여건도 보태주었다. 신학기 준비 기간에 내 의지를 1학년 선생님들께 표현했더니 아주 반가워하셨다. 그중에서 평소 책을 활용한 수업에 관심이 많고 함께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과학교사와 협력 수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와 같이 사서교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교과교사와 하는 협력 수업이다. 단순하게 주제에 맞는 책 목록, 책 바구니를 제공하는 것부터 교육과정에 깊숙이 들어가는 밀접 협력까지 단계가 다양하다. 우리는 수업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함께하는 밀접 협력단계를 선택했다. 1학년 과학 교과 내용 중 '생물다양성'을 다루는 단원이 있다. 그 단원을 다룰 시기인 5월에 생태·환경 협력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과 수업 시간에 사서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동일한 시기에 각자 수업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책을 살펴보기로 하고 개괄적인 의논을 마무리 지었다.

2. 교육과정의 실현-수업

가. 생태-슬기로운 필환경생활 수업

독서 수업[1] 첫 시간에 1학기 수업 개요를 안내한다. 독서 수업은 교과서가 없어서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아이들이 대부분 사서교사를 처음 만나는지라 독서 수업을 자유 독서를 하는 시간으로 아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는 5월에 있을 과학과 협력 수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리 생태 도서를 살펴보았다. 5월에 수업을 바로 하려면 적어도 4월에는 책을 선정하여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태·환경을 다룬 청소년 책은 시중에 많지 않았다.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가 고전처럼 내려오는 청소년 환경 도서인데, 이미 출간된 지 오래되어서 새로운 책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발견한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최원형, 2019, 풀빛)는 청소년을 위한 생태·환경 입문서로 제격이었다. 과학교사도 동의하여 과학시간에 그 책을 읽기로 했다. 단, 교과서 진도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목차 중에서 몇 가지 주제 소단원을 골라서 읽기로 했다. 소설이 아니어서 발췌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총 8가지 주제 중에서 모둠별로 관심이 가는 1~2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읽기로 했다.

독서시간에 읽는 책은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의 8가지 소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을 찾아내어 선정하기로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생태·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제로 등 실천 위주의 책도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서 정보전문가로서 사서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책을 미리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동료 사서교사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 실물 장서 및 온라인 서점을 활용하고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한다. 독서 수업의 8할은 책 선정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유명한 책도 좋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존에 우리 학교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던 생태 관련 책은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처럼 입문서로 개괄적으로 다루는 책이거나 출간된 지 10년이 넘는 책이 많아 지금 수업에 활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이를 위해 책을 대부분 새로 구매하기로 했다. 다행히 과학과에서 북부교육지원청의 '생태·환경 도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구입비 지원' 공모를 신청하여 도서구입비 예산과 과학과 예산을 활용해 충분히 책을 구매할 수 있었다.[2] 과학시간에 공통으로 읽을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와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된 『잘 버리면 살아나요』(손영혜, 2020, 목수책방)는 25권씩 구매하고 나머지 책은 5권씩 구매했다.

1) 진로독서, 독서탐구 시간을 독서 수업으로 통칭함.

2)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모둠별로 같은 책을 함께 읽기 때문에 복본도서로 구매해야 한다. 복본도서를 많이 구매하면 정기 신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어서 추천하지 않는다.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에 더해 소주제를 확장한 책 8종과 다 함께 볼 그림책 1종, 실천 위주의 책 3종, 환경감수성에 대한 책 1종으로 총 14종을 선정했다. 아이들은 독서 수업 시간에 12종 중 한 권을 읽는다. 모둠별로 같은 책을 읽어서 서로 이해를 돕고 오개념을 바로잡으며 모둠원 간 책-대화 시간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표 1. 생태-필환경생활 주제 도서 목록

순번	제목	저자	주제(챕터)
1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최원형	생태·환경 전반
2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최원형	먹거리 정의(1장)
3	우리가 사랑하는 멸종위기 동물들	최종욱	동물. 생물다양성(2장)
4	나의 비거니즘 만화	보선	비거니즘. 로컬 푸드(3장)
5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신지혜	로컬푸드. 탄소발자국(3장)
6	잘 버리면 살아나요	손영혜	쓰레기. 재활용(4장)
7	전기 없이 우아하게	사이토 겐이치로	전자 쓰레기(5장)
8	나는 왜 패스트패션에 열광했는가	엘리자베스 L. 클라인	탄소발자국, 패스트패션(6장)
9	살리는 일	박소영	동물권(8장)
10	우린 일회용이 아니니까	고금숙	제로웨이스트. 실천
11	쓰레기 제로 라이프	실비 드롤랑	제로웨이스트. 실천
12	오늘을 조금 바꿉니다	정다운 외	제로웨이스트. 실천
13	뜨거운 지구 열차를 멈추기 위해	장미정	환경감수성
14	아기 거북이 클로버	조아름	해양쓰레기

표 2. 생태-필환경생활 협력 수업 일정 계획

차시	독서	차시	과학
1	– 생태×필환경생활 오리엔테이션 – 필환경 관련 읽을 책 선정	1	– 생물다양성 단원 수업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독서 및 일지 작성
2	– 모둠별 독서 및 일지 작성(1) – 핵심 주제 파악하기	2	
3	– 모둠별 독서 및 일지 작성(2) – 내 생활 점검하기	3	
4	– 모둠별 독서 및 일지 작성(3) – 신토피컬 독서	4	
5/5	– 실천 과제 및 캠페인 주제 정하기 – 자료 조사하기		
6/6	– 실천 캠페인 포스터/영상 제작하기 – 실천 캠페인 발표하기		
비고	*5월 28일 15:00-16:30『잘 버리면 살아나요』 손영혜 작가 만남 *6월 1~7일 실천 캠페인 포스터 전시 및 점검(2학기 첫 주)		

5월이 다가오면서 좀 더 구체적인 협력 수업 논의가 진행되었다. 과학시간에 읽기로 한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는 청소년을 위한 입문서이지만 중학교 1학년 수준에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많았다. 특히 7단원이 그러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모둠별로 단원을 선정하여 단어 사전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에는 실천 캠페인 포스터나 영상을 제작하자고 했으나, 수업을 할수록 캠페인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캠페인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졌다. 실천을 위한 수업 내용은 독서시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준비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독서 수업은 총 7차시로 진행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생태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내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매우 고차원적이면서도 단순한, 즉 '사람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니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반복했다. 실천과 동떨어진 막연한 이야기에 이대로 수업하면 안 되겠다는 위기를 느꼈다. 아이들은 환경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느낄 뿐이지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최근 제로웨이스트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중학생 세대에서 유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를 보여주며 퀴즈를 냈다. 예를 들어 샴푸바를 보여주고 이게 무엇을 대신해서 쓰는 것이고, 어떻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맞히는 것이다. 샴푸바, 천연 수세미, 대나무 휴지 등 아이들은 영 처음 본다는 반응이었다. 다행히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맞히고자 노력했다.

수업은 그림책을 제외한 13종을 소개하는 북토크로 이어졌다. 먼저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일감을 지시하지 말라. 그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을 인용해서 책의 스펙트럼을 분류했다. 어떤 책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는 책이고, 어떤 책은 '배를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제목만 보고는 감이 안 오는 책이 많으므로 포인트를 짚어주는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2차시에는 앞선 북토크를 떠올리며 책 선정작업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서 수업의 8할은 책 선정에 있다. 이것은 사서교사가 선정한 주제 목록부터 그중에서 아이들이 책을 최종 선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책이 있어서 책으로 모둠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모둠원이 각자 원하는 책을 한 권씩 다양하게 가져가서 후보 도서를 골고루 검토해본다. 청소년기에 자신이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자신의 정보 욕구에 따라 적시성·적합성에 맞는 책을 선정할 줄 아는 것은 앞으로 평생 독자로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제가 바뀌고 책을 선정할 때마다 중요하게 다룬다. 당연히 모둠별로 선호하는 책이 겹친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적어서 모둠별로 설득과 양보 과정을 거쳐서 최종 책을 선정한다. 처음에는 과학시간에 선정한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의 주제와 독서시간에 선정한 주제의 책을 연결하려고 했으나, 막상 독서시간에 읽을 책들이 핵심 주제는 각기 다르지만 생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선정했다.

그림 1. 과학시간에 만든 단어 사전

선정한 책은 5~6차시에 걸쳐서 읽었다. 책 읽기, 독서 일지 작성 후 책-대화를 포함하여 내용의 이해와 응용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자신의 실천 현황을 파악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아기 거북이 클로버』 그림책과 유명인의 생태·환경을 위한 실천 사례를 검토하기도 했다. 생태 실천 체크리스트는 선정 도서에도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라 온라인 검색을 많이 했다. 하지만 주방용품, 청소용품 등의 체크리스트만 일부 나와 청소년이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사서 교생 선생님 2명이 왔던 시기라 함께 해외자료도 조사하였으나 가공된 자료가 없어 결국 선정 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개발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과학시간에 단어 사전도 슬슬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물로 생태 실천 챌린지를 제작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작년 여름방학 선택 과제로 13579 Book Quest를 진행하였는데 네이버 밴드 앱을 활용하여 인증하는 방식이었다. 책 1권~9권 읽기부터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 보기, 온라인 서점 구경하기, 책 읽고 눈물 흘리기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겸했더니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이번에도 생태 행동을 위한 챌린지를 준비하다가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가야 땅따먹기'와 올해 부산 북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주관의 '책공간 탐방 스탬프 투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부루마블 형태로 결정했다.

협력 수업 마지막 차시에서 부루마블에 들어갈 활동을 브레인스토밍하여 아이디어를 마구 던져냈다. 실천이 쉬운-어려운 단계, 관심이 가는-가지 않는 단계로도 구분하고, 인증하는 방법과 상품도 고민해보았다. 아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학교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부루마블 형태로 디자인할 학생을 지원받았다. 생태 실천 챌린지는 전교생을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였다.

나. 그 외 수업에서 실현하는 학교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도입되었다. 중등의 경우, 국어과 수행평가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용은 필수적이며 다른 교과도 독서 활동 평가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교과 독서 수업이 많아졌다. 1학년 과학시간에는『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가 '한 학기 한 권 읽기' 대상 도서였다. 이와 같이 책을 수업에 활용하는 수업이 많아져서 교과교사와 협력 수업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사서교사의 단독 수업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진행하는 독서 수업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넘어서 '한 주제 한 권 읽기'와 '한 주제 신토피컬 책 읽기'를 목표로 한다. 동료 사서교사들의 사례를 보면 초등 사서교사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전담으로 맡기도 하고, 독서 수업을 넘어서 책쓰기, 리터러시교육, 정보활용교육 및 패스파인더 개발 등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주제로 수업하여 좀 더 폭넓게 교육과정에서 실현하고 있다.

발령 이후 매년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맡았다. 모든 수업의 시작은 도서관 이용지도로 한다. 도서관 이용 방법부터 책에 대한 거리감을 낮추는 것까지 첫 단추를 잘 끼우려는 것이다. 책놀이를 이용하여 도서관 이용 규칙, KDC, 청구기호 읽는 법, 책을 읽으면 좋은 진짜 이유를 다루면서 도서관을 친근한 공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수업한다.

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진로, 직업관, 가치 이야기를 다룬다. 진로와 직업 수업도 별도로 있고, 1학년이 직업이나 학과를 결정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한 가치관에 가까운 수업을 하는 것이다. 이 시기 아이들의 독서 단계에 부합하는 인물전을 읽고 수업한다. 어떤 인물에 대해 읽든 그 인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찾아보고,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탐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음으로 청소년 소설을 읽어 모든 아이가 책의 재미와 매력을 느끼게 한다. 또래가 주인공인 소설로 쉽게 공감하고 간접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올해는 특수교사와 협력하여 차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소설을 읽고 주인공의 특별한 차이와 공통점을 깊이 있게 다뤘다. 사람마다 지닌 차이 중 장애를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체험한 후 우리 학교에 필요한 '장벽 없는 학교 만들기-유니버설 디자인'을 모둠별로 구상했다. 2학기에는 진로교사와 협력하여 창직을 테마로 청소년 소설을 읽을 예정이다. SF소설을 통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추론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 직무를 구상해보는 것이다.

표 3.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2021학년도 1학기 독서 수업 일정

주	과제–주제도서	주요 활동
1	1. 도서관이용지도–그림책	진로독서의 의미, 수업 목표 정하기
2		도서관이란? 청구기호 이해하기
3	2. 가치관–인물전	가치관의 의미. 가치의 종류 알기
4		나와 너의 가치 탐구
5	3. 차이–청소년 소설	차이의 의미. 기준 알기
6		소설 속의 차이 탐구
7		유니버설 디자인 탐구
8		우리 학교의 유니버설 디자인 탐구
9	4. 必환경–생태 자료	필환경 시대를 사는 우리
10		나의 플라스틱 1주일 이야기
11		프로젝트 실천 탐구
12	5. 자립–성장 자료	자립의 의미, 종류, 기준 알기
13		자기관리 역량 이해하기
14		생활 목표와 시간관리, 환경 조성
15	6. 여름방학 부산탐방–부산 자료	부산탐방 오리엔테이션
16		부산탐방 자료 조사하기
17		부산탐방 계획 세우기

물론 비문학 도서도 읽는다. 1학기에는 자립을 주제로 자기주도학습, 건강, 생활습관, 경제 등에 관한 책을 읽었다. 부산에 관한 책과 정보자료 검색법을 배우고 부산 책방탐방 준비도 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경험하는 책과 가까운 장소를 학교도서관에서 바깥으로 더 확장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여름방학 과제로 실천하지 못해 아쉽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방학 과제로 제시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책방에 다녀오는 기회를 마련했다. 2학기에는 정보자료 검색과 직업에 관한 책을 소화하고 꿈책 만들기, 가상 스케줄러 작성, 가상 일기 쓰기 등을 할 예정이다. 매년 이 수업을 하고 나면 가상 일기의 디테일에 놀라게 된다.

이처럼 매번 수업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독서 수업을 한다. 교과서가 없는 대신 모든 정보자료, 특히 책이 교과서가 된다. 주제별로 10종 내외의 책을 선정하는데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 차이를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북토크를 거쳐 책을 선정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룬다. 보통 한 주제에 4~8차시 정도 책을 읽는데 수업 중 15~20분 정도 읽고 독서 일지를 작성한다. 그리고 관련 활동을 하며 내용의 이해를 높여 최종 수업목표와 교육과정을 실현한다.

3. 교육과정의 실현-독서교육 프로그램

가. 『잘 버리면 살아나요』 손영혜 작가와의 만남

올해 부산 시민도서관에서 '학교로 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평소 학교와 연계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고민하던 시민도서관에서 부산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자 만든 것이다. 그중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강연 신청'도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 선착순으로 금방 끝나버려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시민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에게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강연 신청'에 취소 자리가 났으니 우리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 6월에 이미 다른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서 고민했으나 책 제목을 보자마자 운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잘 버리면 살아나요』는 '지구를 구하는 분리배출 생활을 위한 50가지 질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슬기로운 필환경생활' 수업에 맞는 전문가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컸다. 날짜를 조정하여 과학과 협력 수업의 막바지에 작가님을 초청하기로 했다.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물론이고 대부분 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여기에도 단순한 교양 강좌 개념보다는 학교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선정한 책의 작가를 모시는 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조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6월에 2학년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주제 도서 중 한 권의 작가를 모시기도 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관련 없는 작가를 만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읽은 책의 작가를 모셨을 때 관심이 높아지고 의미 있게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하게 된다.

작가를 만나는 일은 성인도 자주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작가와의 만남에 생각만큼 관심이 많지는 않다. 작가를 만나는 것은 신기하고 좋지만 작가에게서 강연을 듣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수업을 하나 더 듣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와의 만남을 매년 진행하면서 점점 작가와의 강연이 아닌 아이들과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특히 청소년 문화 연대 킥킥에서 운영하는 '문학 성큼성큼 콘서트'와 교사 독서교육연구회 꿈끼독기에서 개발·실천한 '보이는 라디오 독서캠프'를 경험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작가와의 만남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은 프로듀서이다. 진행과 음악감독, 미술감독 등 스태프 역할은 도서부가 맡는다. 게스트는 작가도 있고, 작가와의 대담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다. 특별 공연도 모집한다. 작가 섭외는 교사가 하지만 그 외 활동은 모두 학생의 몫이다.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특별 공연, 작가와 함께하는 독자 참여 코너 등 아이들 이야기가 나머지 절반이다. 도서부를 2학년 때 모집하는데, 1학년 아이들은 작가와의 만남에서 도서부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맡은 역할의 대본도 직접 쓴다. 책 내용 이해는 기본이고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사전 조사도 해야

한다. 재미있으면서 작가와 책에 관련된 퀴즈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음악감독을 맡은 친구는 적재적소에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켜고, 미술감독을 맡은 학생은 전체 진행에 필요한 배경을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제작한다.

아이들이 만든 대본과 찾아온 배경음악,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일일이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사서교사의 몫이다. 전체 내용을 큐시트로 가공해주면 아이들은 작가와의 만남을 시작하는 당일 아침까지 연습한다. '보이는 라디오'는 수업으로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대본까지는 기가 막히게 작성하면서 막상 소리 내서 읽을 때 부끄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성우 학원에서 배운 친구의 도움을 얻어 발성 연습, 끊어 읽기 등을 아이들에게 대략적으로나마 소개했다. 일종의 연극 수업과 비슷하다. 작가와의 만남으로 주제에 맞게 대본을 창작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우는 교육인 것이다. 전체 기획부터 최종 리허설까지 아침저녁으로 아이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또한 교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

보통 작가와의 만남은 강연과 질의/응답이 대부분이다 보니 북콘서트 형식의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나면 작가들도 아주 놀란다. 아이들의 준비에서 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회자의 오프닝 멘트에도 주제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고, 미리 작가와의 만남 신청서에 받은 책 감상 및 작가와의 만남을 신청한 이유도 소개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아이들의 분리수거 현황과 쓰레기 분해 시기에 대해 추가했다. 이어지는 독자 참여 코너를 마치고 나서야 작가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된다. 첫 번째 작가 강연을 마친 뒤 혹시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아이들을 위하여 특별 공연과 작가님 TMI OX 퀴즈를 준비한다. 책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TMI 퀴즈를 낸다. 이번은 분리수거와 필환경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채식주의, 텀블러 사용 등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작가 이야기를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듣는다. 작가 강연을 마치고 나면 책놀이 '독서 로또'와 클로징 멘트로 사회자가 마무리한다.

『잘 버리면 살아나요』 손영혜 작가와의 만남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첫 번째로 특별 굿즈 제작이다. 이 책 앞부분에는 플라스틱 칫솔 이야기가 나온다. 처음 만들어진 칫솔이 플라스틱이라서 아직도 썩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서부와 계산해본 결과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살면서 480개 이상의 칫솔을 사용한다.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다. 환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필환경생활을 한다면 대용품으로 '대나무 칫솔'을 추천한다. 대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서 대나무 용품이 필환경 제품으로 각광받는다. 독서 수업 시간에 읽은 책 14종에도 플라스틱 제로 용품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래서 '손영혜 작가님과 만덕중의 초록빛 책'이라는 글귀를 새긴 대나무 칫솔 굿즈를 제작하여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선물로 주었다. 작가와의 만남이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포인트다. 문구는 물론 도서부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정했다. 독자 참여 코너의 상품도 책 내용에 걸맞은 책 표지 분리수거함으로 했다.

두 번째 특별한 경험은 바로 특별 공연이다. 작가와의 만남을 도서부와 함께 준비하다 보면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래서 특별 공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 다행히 학교에는 인적 자원이 많다. 우리 학교의 밴드부 아이들을 섭외하기 시작했다. 2019년도 밴드부 건반을 맡았던 학생회장이 '문학 성큼성큼 콘서트'에서 라이브 반주를 했던 것을 전교생이 보았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 건반을 맡아주기로 한 3학년에 감사하던 차에 3학년에 싱어송라이터(를 지망하는 학생)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타 곡을 작사·작곡하여 우리 학교의 무대 '해울마당'에서 실력을 발휘한 적도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가와의 만남에 어울리는 곡을 써서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의외로 흔쾌히 동의하고 『잘 버리면 살아나요』를 빌려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책으로 곡을 쓰는 것은 캠페인송에 가까울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분리배출 방법 50가지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함께 고민하다 '슬기로운 필환경생활' 수업에서 1학년 아이들과 함께 읽은 『아기 거북이 클로버』가 생각났다. 이 책은 그림책이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데다가 플롯이 있어 곡을 쓰기에도 적당해 보였다. 그림책 내용을 가사로 변형하고, 그에 어울리는 곡을 쓴다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아기 거북이 클로버』의 곡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만족스러웠고, 그냥 묵혀두기엔 아까웠다. 그래서 학생의 동의를 구한 뒤 출판사 블로그를 통해 작가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작가께 메일로 학생의 음악을 들려줬는데 비록 『아기 거북이 클로버』 작가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실 밴드부의 두 학생이 도서관에 자주 오거나 책을 자주 빌려 읽지는 않았다. 그런데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하려 매일 같이 도서관에 오고 나와 회의를 했는데, 이 과정을 학생들이 더 즐기는 것 같았다. 밴드부의 서브 건반을 아예 도서관에 두고 연습했는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각기 피아노 능력자들이 나타나 그 기간에 도서관은 라이브 무대로 행복한 역할도 수행했다. 건반과 밴드부로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이용자들이 많아졌다. 리허설을 위한 건반과 기타 연습이 유인책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밴드부 학생들이 도서부 학생들만큼이나 작가와의 만남을 기대한다. 3학년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런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1, 2학년 후배가 생긴 것이다.

마지막은 작가와의 만남 도중에 있었다. 작가가 즉석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분명 책이 청소년 소설도 아닌 분리수거 관련 환경 책이었음에도 질문이 가장 많은 학년은 1학년이었다. 한창 과학과 독서시간에 생태·환경을 공부할 때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따지고 보면 일주일에 4시간이나 다루는 주제였다. 아이들의 질문도 단순하지 않았고 작가님의 실천과 분리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질문 수준에 함께 듣고 있던 선생님들이 더 놀랐다. 수업,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림 2. 『잘 버리면 살아나요』 손영혜 작가와의 만남 후기 전시 사진

나. 실천 쫌 할 지도–만덕 생태 마블

앞서 '생태-슬기로운 필환경생활' 수업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수업 결과를 '만덕 생태 마블'로 제작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내용을 과학교사와 함께 정리했다. 내용은 크게 전기/에너지, 생물다양성, 생활 속 실천, 분리배출 네 가지로 나누어 분야별 6가지씩 총 2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유기농 마크, 사육 환경에 따른 달걀

번호, 친환경 물품 종류 예시, 인근 지역의 친환경 가게 추천 목록을 뒷면에 제시하여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했다. 처음에는 직접 마크와 친환경 가게 등을 찾아보길 바랐으나, 복잡해지면 포기하기 쉬우니 핵심 교육 목표인 실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리고 이미 과학과 협력 독서 수업 시간에 읽은 책에서 사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3. 실천 쫌 할 지도-만덕 생태 마블

2020년에 운영한 13579 Book Quest는 네이버 밴드 앱을 활용하여 만덕중학교 해울글마루밴드에 미션 인증 글쓰기로 확인했다. 올해는 전면 등교 수업을 했던 상황이라 해울글마루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학급 밴드는 모두 가입하기 때문에 과학교사와 협의하여 학급 밴드에 댓글로 인증하기로 했다. 환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한 생태 마블이지만 일부러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단 하나라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격려했다. 하나의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합쳐서 댓글에 올리도록 안내했다. 확인 후 2학기에 챌린지 참여 상품을 제공할 예정인데, 인증 방법이 간단해야 참여도 쉽고 확인도 쉽기 때문이다.

1학년이 생태를 학년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로 정한 것에 더해, 학교에서 생태가 전체적으로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채식 식단의 횟수를 늘리고, 잔반을 남기지 않는 생활교육 캠페인이 있었다. 학생 동아리 중 생태·환경을 위한 생태돋보기반, 기후용사 환경지킴이반이 개설되었고,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교육 교사연구회 만덕 기후위기 돌파단도 생겼다. 저자도 만덕 기후위기 돌파단에 소속되어 하나 이상 실천한 학생 전원에게 참여 횟수에 따른 챌린지 참여 상품을 차등 제공하기로 했다.

아직 여름방학 중이라 아이들의 과제 제출이 마감되지 않았다. 종종 네이버 학급 밴드에 올라오는 아이들의 과제 댓글을 보면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다. 그 외 독서교육 프로그램에서 실현하는 학교 교육과정

학교는 언제나 독서, 책읽기를 강조하고 실현의 중심에 학교도서관이 있다. 모든 학년을 수업에서 만날 수 없으니 더 다채로운 방식으로 독서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은 월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을 좋아하고 학교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아이부터 주로 학교도서관에 놀러 오는 아이, 수업이 아니면 학교도서관에 오지 않는 아이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월별로 집중 타깃을 선정해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와의 만남은 책을 읽은 학생을 주 타깃으로 선정하는데, 책을 읽고 들었을 때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이는 작가와의 만남을 계기로 책을 읽기도 한다. 작가와의 만남을 독서 전중후 활동 모두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간이 들어오거나 시험이 끝난 시기에 아이들의 도서관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책제목 퍼즐'을 전교생에게 보내기도 한다. 책을 읽지 않는, 학교도서관에 오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는 전교생이 타깃이다. 생태 수업을 진행한 이후여서 상품은 개인 텀블러에 아이스티와 얼음을 담아주는 형태로 했다. 단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상품에서 교육과정의 핵심 주제를 고려하고 아이들에게 강조했다.

일회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가능하면 연중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자율독서모임'이다. 아이들 3~6명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오고 책도 학교도서관에 있는 복본 중에서 자유롭게 선정한다. 점심시간이나 방과후를 활용하여 주 1회 책-대화 모임을 한다. 아이들은 1학년 때 독서 수업에서 모둠별 책읽기를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대화에 참여한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종종 책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학교도서관 외부 게시판에 전시한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도서부를 포함하여 13팀 66명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도서부가 직접 기획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4월에 도서부가 제공하는 미션을 수행하여 쿠폰을 모으기도 하고, 아침 등교 시간에 게릴라로 책이 있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책가방을 찾아라'도 있다. 2020년에 도서관 마스코트인 '묘묘실종사건'을 소재로 4권짜리 온라인 방탈출 프로그램을 도서부와 함께 기획한 것을 시작으로, 올 4월에는 지구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온라인 방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이들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 2학기에는 온-오프라인 연계 방탈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만덕 독서특성화중학교에서 책이 분실되는 사건인데, 진로동아리 학생과 협업하여 앱에서 구현하려고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경험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책과 정보자료가 주는 간접경험도 좋지만 도서부를 비롯한 아이들이 직접경험한 것에 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중학생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기획해서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가 기본적인 틀과 발판을 제공해주고 아이들의 경험에 피드백할 때 자주 도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여섯 가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다.

Ⅲ 아이들의 변화가 말합니다

1. 수업 후기

독서 수업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과 핵심 성취 기준이 아직은 없다.[3]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1학기 수업 후기를 받아보았다. 도서관 이용지도부터 자립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한 주제와 책을 어떻게 읽어냈는지 궁금했다. 그림책을 제외해도 1인당 3권 이상의 책을 읽은 기간이었다. 아래는 수업 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가. 수업에서 좋았던 것들

"초등학교 때 학교도서관에 거의 안 들어갔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에 자주 들어왔다. 그래서 책에 관심이 생겼다. 책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긴 게 좋고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놀이도 같이해서 더 좋았다."

김○○

"가치관, 필환경, 자립 등 주제에 따라 주제에 관련된 책을 골라 읽어보아서 여러 지식을 쌓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임○○

"하루 중에 책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

한○○

"책을 읽을 일이 잘 없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어서 좋았다."

박○○

나. 수업 이후 달라진 내 모습

"책을 좀 읽기 시작하고 읽고 싶은 책이 많이 생기고 구매했다."

한○○

"어떠한 일을 할 때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

한○○

3) 고등학교 독서 과목은 있으나 국어 과목이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일지를 적어 책의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이후 모둠 활동에 더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

"이전에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 가면 책을 억지로 읽고 쓰고 하니 책이 싫고 책 고르는 게 힘들고 꺼렸지만, 지금은 책 고르는 게 빠른 것 같다. 책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좀 없어진 듯."

방○○

"수업으로 학교도서관에 많이 오고 활동하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이 더 편해진 것 같다."

박○○

"맨날 소설, 동화 같은 책만 읽다가 좀 더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 환경이나 자립 등에 관심이 생겼다."

정○○

아이들은 독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니 감동적인 후기를 적어주었다. 수업 설계에서 고려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독서 수업이 교과서나 체계적인 핵심 성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이자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독서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 수업에서 좋았던 것들-생태 주제

"환경에 관한 책을 읽고 그 단어로 표를 만드는 것이 재밌었다. 필환경에서 과학과 컬래버한 것이 좋았다.

배○○

"수업에서 필환경을 주제로 수업을 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방법 외에도 여러 친환경 물품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구○○

"필환경이 재밌었다. 환경에 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우리 지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들에 관해 알 수 있었다."

정○○

"환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일회용품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전○○

"과학 신문 만들기가 재미있었고 만들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둠끼리 발표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최○○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 모둠원과 얘기하고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책에서 찾아 우리가 실천할 약속을 만드는 게 좋았다."

이○○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알게 되었고 생태 환경문제를 알게 되었다."

신○○

"필환경에 대한 책을 읽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을 모둠원과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을 만드는 게 재밌었다."

김○○

"환경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환경에 경각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김○○

"과학시간에 책에 나온 단어 사전을 만드는 게 재밌었다."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챌린지를 만들어본 것이 좋았다."
이○○

"단어 사전을 만드는 게 재밌었고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책이 재밌었다."
이○○

"힘든 기억은 없고 재미있는 생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은 것과 과학에서 책의 주요 단어들을 모아 기억에 남도록 그림도 그리고 계속 찾아보며 함께 공부해나간 것이 재미있었다."
박○○

라. 수업 이후 달라진 내 모습-생태 주제

"비건 지향이 되었다."
배○○

"환경을 생각하고 자립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

"멸종위기 동물에 관련된 책을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환경을 생각해 고체 비누(액체 아님)를 사용하고 있다."
안○○

"엄마께서 하던 집안일을 조금 더 돕게 되었다. 분리수거를 더 꼼꼼히 하게 되었다."
이○○

"멸종위기 동물들을 위해 환경을 더욱 아끼게 되었다."
신○○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책이 더 좋아졌다."
김○○

"책과 친해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내가 되었다."
김○○

"평소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귀찮음 등의 이유로 환경을 위한 실천을 안 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첫걸음이 된 거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김○○

"『나의 비거니즘 만화』 책을 읽은 뒤로 나도 비건을 실천하기 위해 고기 먹는 양을 줄이고 있고 우유 대신 두유를 먹고 있다."
민○○

"환경에 대한 책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환경 책을 읽고 나니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환경을 아끼고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긴 것 같다."
김○○

"과학시간에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책을 읽고 탄소발자국과 같은 몰랐던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아보카도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에 필환경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과학과 독서시간 때 필환경 생태 수업을 하고 필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민○○

생태 주제를 다룰 때는 어땠는지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책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럼에도 수업 시간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이들에게 고맙다. 특히 목표로 하던 행동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좋았다.

마. 과학교사 후기

과학과에서도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서교사와 수업해볼 좋은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아이들에게도 알리고 싶고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시도했다. 그러나 책 읽기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서교사에게 거의 의존했던 것 같다. 그냥 수업 시간 중에 한 권의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오래 고민하진 않았다.

그런데 수업 시작을 앞두고 일정을 짜고, 수업 중간중간 진행 상황이나 방향 등에 대해 사서교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배움 과정이 되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책을 잘 읽었고, 이해를 잘했다. 환경생태사전 만들기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책 읽기 자체보다 활동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해서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이다. 사전을 만들면서 어려운 환경생태 용어도 접해보고 주제가 서로 다른 모둠 발표도 보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랐다.

독서시간에 환경·생태 챌린지를 만들기 위해 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학급별로 모은 것을 다시 학년 전체로 통합하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도 뿌듯한 경험이었다. 교과 진도 등으로 시간을 많이 내진 못했지만, 책 읽기를 실천으로까지 이끌어낸 경험만으로도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작은 성장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방학 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실천을 해올지 모르지만, 숫자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참여한 아이들에게 노력과 실천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 남았다.

2. 독서교육 프로그램 후기

가. 『잘 버리면 살아나요』 손영혜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을 마칠 때마다 아이들에게 참여 후기를 받는다.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어림짐작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객관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전 교사들과 나누기 위함도 있다. 작가와의 만남에 직접 참여하진 못해도 아이들의 후기를 보고 격려도 전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소개한 바와 같이 작가와의 만남이 강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작가와의 만남을 '재밌다'고 느낀다. 그래서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에 100%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후기를 제출하고 귀가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후기를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현장감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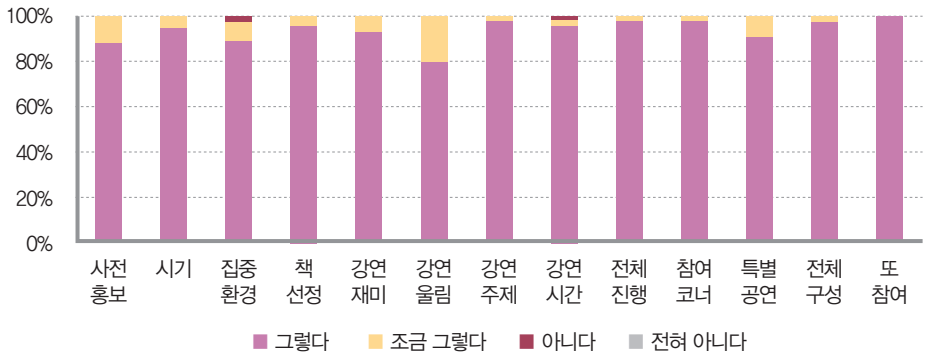


그림 4. 작가와의 만남 참여 객관식 문항

"다양한 퀴즈와 경품이 재미있었으며 특별공연이 마음을 울렸다. 지금까지 작가를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느껴지는 인간미와 털털함, 세심함, 인생이 왜인지 정들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작가님, 수업 재미있게 들었어요! 앞으로도 『잘 버리면 살아나요』를 볼 때마다 작가님의 정겨운 웃음이 생각날 것 같아요. 90분 고마웠습니다! 기억할게요, 작가님도. 이야기도."

1학년 배○○

"작가와의 만남으로 손영혜 작가님의 TMI를 알게 됐고 분리배출,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좋았다. 다음에 또 참가할 것이다."

1학년 한○○

"실제로 작가님을 만나니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작가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작가가 되어서 이 일을 글로 써보고 싶습니다."

1학년 박○○

"재활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재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재활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을 알아서 좋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미래의 어른인 우리가 더욱 분리배출을 잘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1학년 서○○

"선배들이 재밌게 진행해줘서 좋았다. 작가님과 처음 만나보는 시간이어서 마음이 떨렸지만 사회를 보고 강의를 들으며 풀린 것 같다.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고 유익한 경험이었다."

1학년 이○○

"주제도 좋았고 작가님의 강연이 재미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코너도 있어 좋았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웃음이 가득해서 좋았다."

2학년 권○○

"처음엔 선생님의 권유로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막상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겁고 다른 학생들과 푸는 문제들도 재밌었습니다. 저번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쉬워지기까지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자 첫 만남이었지만, 다음에도 한 번 더 봤으면 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 강○○

"이번에 처음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들어봤는데 원래 내가 관심 있던 주제이기도 해서 너무 재밌었다. 특히 작가님께서 너무 재밌으셔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정신을 팔 틈이 없어서 좋았다. 재밌게 진행해주신 선생님, 작가님께 감사하다."

2학년 이○○

"요즘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아져 이것저것 보고 있을 때, 딱 이 책을 본 순간 '나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점이 많아서 작가와의 만남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었고 작가와의 만남을 하면서 '작가가 저런 멋진 일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연하게 버리던 쓰레기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책을 읽으며 환경에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2학년 이○○

"작가님을 직접 뵈어 학교에서 강연을 들은 게 매우 오랜만인 것 같다. 작가님의 이야기와 우리 사회,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고, 중간에 재미있는 이벤트와 깜짝 공연 같은 것도 있어서 쉬는 시간 없이도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던 것 같다. 특히 작가님이 지구와 사회 발전, 환경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해 노력하며 하신 일들에 대해 존경스러웠다. 나도 이 강연을 계기 삼아 앞으로 분리배출을 잘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3학년 김○○

"작가가 한 일이 많아 놀라웠다. 진행도 좋았고, 공연도 멋있었다. 다음에도 작가와의 만남이 있다면 또 할 것 같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3학년 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지키면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지구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3학년 추○○

"환경에 대하여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분리수거를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작가님이 존경스럽고 나도 작가님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3학년 노○○

나. 실천 쫌 할 지도-만덕 생태 마블

만덕 생태 마블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면서 함께 설문조사를 받아보았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생태·환경에 대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아이들의 의견처럼 무관심에서 약간의 관심으로, 관심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한 발짝 한 발짝이 소중하다. 학교도서관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여 심장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환경을 위해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전기를 절약하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니 환경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 거 같다."

1학년 민○○

"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 경험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1학년 이○○

"9시 45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12시가 되지 않도록 지키고 모두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1학년 박○○

"현재 지구에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있지만, 현재 악순환(예시: 지구온난화-더움-에어컨, 선풍기 사용-오염물질 발생-오염물질이 지구의 열이 배출되는 것을 막는다-지구 더워짐-에어컨, 선풍기 사용-오염물질 발생)을 막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 당장 악순환이 멈추더라도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열심히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도 동참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지키는 아름다운 만덕중학교 학생이 되겠다!"

1학년 김○○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걱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조금은 슬프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재활용을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2학년 이○○

"환경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천할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앞으로는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하려고 다짐했습니다."

2학년 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즐기면서 환경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것 같다"

2학년 권○○

"환경에 관련한 수업이나 프로그램 등은 환경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환경 관련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분명한 효과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지금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만덕중 학생들이 환경보존에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학년 편○○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환경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환경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비록 실천하지 않아도 일회용품이나 환경에 안 좋은 물품을 사용할 때마다 죄책감을 갖게 될 것 같고, 그로 인하여 조금씩 조금씩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노력할 것 같아서 효과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학년 임○○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완전 무관심이었어도 조금의 관심과 호기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 방법들을 검색하여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인드로 환경을 지켜야겠다."

2학년 박○○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지만, 막상 작가와의 만남이나 환경 관련 수업 등을 하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교육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환경오염 관련으로 미래가 걱정된다는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사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이 환경이 이미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슬픕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문제에 대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게 이러한 방학 숙제를 받아서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환경 관련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 김○○

"효과가 무조건 있다. 나 같은 학생들이 노래까지 써가지고 홍보를 하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다"

3학년 조○○

"현재 생태계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세우고 배워 실천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을 학교에서 습관 들인다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서 좋은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 환경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켜나가야 하므로 모든 사람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환경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3학년 이○○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 교육받기 전엔 그냥 해도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한 것들이 학교에서 수업하고 난 후 많이 심각하고 위험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런 것을 조금씩 어떻게 개선하며 나아갈지 교육하는 건 효과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학년 김○○

"환경 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심각성 등을 알려주기에는 좋을 것 같다. 지구의 온도가 6도까지 올라가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보았고 몇십 년 뒤에는 부산이 반도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거짓말 같지는 않아서 지금 지구의 환경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느낀다."

3학년 김○○

Ⅳ 향후 계획 및 제언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의 독특한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수업과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사례를 글로 정리하며 돌아보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아 다행이기도 하다.

교과교사와 단순 협력 수업이 대부분이었던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달리 올해의 기억은 아주 특별하다. 특수교사와 협력하여 차이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주로 독서 수업 시간만 활용했는데, 과학교사와의 수업은 따로 또 같이하는 협력이라 특별했다. 과학시간에 기본서를 한 권 정해 읽고 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서 신토피컬 독서를 아이들에게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부산 탐방수업을 할 때도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기는 하지만 이는 발췌 독서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과학시간에 생태·환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배우고 독서시간에 필환경생활을 실천할 방법을 강구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만덕 생태 마블로 이어간 것은 수업의 실제적 가치를 더했다. 만덕 생태 마블은 전 학년의 여름방학 과제로 제시되어 지금도 열심히 참여 중이다. 교육과정과 연결한 작가와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준비 과정부터 작가와의 만남에 집중하는 모습, 후기까지 감동이었다.

2학기에도 진로교사와 협력 수업이 예정되어 있다. 수업 후기에서 아쉬운 점으로 대부분 책 읽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적었다. 따라서 2학기 독서 수업에서는 주제를 조금 줄이더라도 책을 읽고 모둠별로 책-대화 나누는 시간을 확대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수업이든, 학교도서관 운영이든 교육과정의 실현이라는 핵심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수서부터 이용자와의 만남,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을 계획·실행에 반영하여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를 위해 꾸준한 연수와 자기 연찬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하는 학교 환경 속에서 온-오프라인을 겸한 수업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연구하여 발맞춰 나가야 한다. 이에 더해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이 움직일 때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아직 국가에서 제시한 기본 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능력이 강조되어 힘든 부분도 있다. 다행히 학교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서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업할 수 있는 리터러시, 정보활용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안다. 학교마다 분투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의 힘이 보태져 다음 개정 교육과정에는 사서교사의 단독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설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김보영 (2020. 7. 21). [사서교사의 수업노트] ③ 책과 책·책과 사람·사람과 사람 '연결'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에듀인뉴스. 출처: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7

김해시 관광과 [발행년불명]. 가야 땅따먹기 스탬프투어 소개. 김해 관광포털. 출처: https://www.gimhae.go.kr/00548/06732/06767.web

나희정 (2020. 8. 18). [사서교사의 수업노트] ⑦ 교과교사와 협력수업… "수업 효과, 교육적 가치 함께 쑥쑥~." 에듀인뉴스. 출처: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6

대한민국 독서대전 [발행년불명]. 부산다운 책읽기, 책공간 탐방 스탬프 투어. 대한민국 독서대전. 출처: https://korearf.kpipa.or.kr/uss/ion/evt/EgovEventRceptRegist.do?eventId=EVENT_00000000000411&applcntId=&searchSe=08

부산 시민도서관 [발행년불명]. 학교로 가는 도서관. 출처: https://school.siminlib.go.kr:4430/

이신애 (2021. 8. 4). [사서교사의 메타리터러시] 좌충우돌, 미디어 리터러시 극복기. 에듀플러스. 출처: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

청소년 문화 연대 킥킥 [발행년 불명]. 문학성큼성큼 부산 만덕중 11월 22일 행사현장 (탁경은 청소년소설 〈사랑에 빠질 때 나누는 말들〉). 청소년문화웹진 '킥킥.' 출처: https://blog.naver.com/kickkick99/221715919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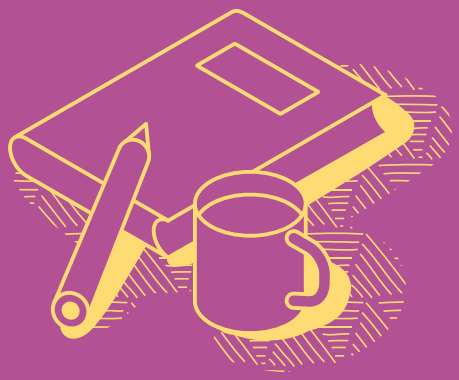
02

현장사례
우수상

MZ세대를 위한 대학도서관 메타버스 서비스 사례

김성자 · 권용구 ·
조용훈 · 이영원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Ⅰ. 추진배경 및 목적 35
Ⅱ. 한성 북니버스 구축 38
Ⅲ. 한성 북니버스 서비스 44
Ⅳ. 성과 및 제한점 53
Ⅴ. 향후 계획 56



요약문

최근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다. 언론을 보면 사회 곳곳에서 앞다투어 메타버스를 활용했다는 기사가 연일 화제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마련한 열람공간이 코로나19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2021년 8월 2일 서울지역 대학도서관 최초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도서관(한성 북니버스)을 구축하고, 도서관의 메타버스 활용사례를 언론에 처음으로 알렸다.

메타버스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한 초기에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사에 외주를 주어 작업하려고 하였으나 업체로부터 고가의 견적을 받고 당초 계획과 달리 자체 구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공개 버전(freeware)으로 작업하다 보니 인터넷 사이트 링크, 동영상 플레이, 한글 표현 등을 할 수가 없었고, 맵(가상공간)에 담을 수 있는 이미지 개수도 20개로 제한되는 등 많은 제약 조건이 따랐다. 이에 메타버스 도서관에 기존의 서비스 연결이나 실제 도서관 모습과 일치하게 구현하는 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팀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며 작업했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MZ세대 오리엔티드'로 방향을 잡고 메타버스 도서관이 실제 모습과 최대한 유사하되 재미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귀여운 캐릭터를 배치하고 게임 요소를 반영하는 데에 힘썼다.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는 타 맵들과 차별성을 갖고 도서관다운 메타버스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독서 프로그램 소개, 전자책/오디오북 연결 등의 서비스를 담아내는 데에도 노력했다. 한성 북니버스에 많은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오픈 이벤트를 마련하였으며, 사전 홍보, 오픈 당일 홍보, 사후 홍보 등 메타버스 도서관 홍보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한성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는 국내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오픈되자마자 인기 크리에이터 맵으로 게시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4.54점(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부분 학생들(94.6%의 응답자)이 한성 북니버스를 체험한 후 학술정보관에 친근함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에는 분명 여러 기술적 제한이 따르지만, 메타버스 활용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무궁하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한성 북니버스가 국내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의 마중물이 되도록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가. 대외적 환경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가속화로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가리킨다.[1] 이곳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아바타로 현실과 유사하게 꾸며진 가상공간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통해 유명가수 팬미팅, 대기업 신입사원 연수, 대선 출정식 등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메타버스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대학가에도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했던 입학식, 학교축제 등을 메타버스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향후 온라인 교양수업,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메타버스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지만 대학도서관에서는 아직 메타버스 접목에 활기를 띠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부분 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여전히 마음 놓고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점과 주 이용자가 MZ세대임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해 '보여주어야 할 공간'이 많은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더더욱 메타버스 활용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그림 1.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그림 2. S대학교 메타버스 입학식

출처: [그림 1] 영남일보(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711010001238),
[그림 2] 아산데스크(http://www.asandes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3)

1)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나. 대내적 환경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머물고 싶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9년 서가로 가득했던 자료열람실을 학습, 토론,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학습 공간(러닝커먼스)으로 탈바꿈했으며, 해당 공간은 교내 인기 장소가 되었다. 바로 이듬해인 2020년에는 개인 공부를 목적으로 카페로 빠져나가는 '카공족' 이용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칸막이 열람실을 카페형 창의·협력 학습공간(창의열람실)으로 리모델링해 학생들의 '최애 공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열람시간 단축 및 이용좌석 제한이 따르면서 열람실이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새롭게 오픈한 창의열람실의 경우, 대학의 비대면 수업정책에 따라 아예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해 새로운 열람실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인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림 3.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리모델링 후 열람실 모습

코로나19 이후 도서관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이용자들의 독서활동을 위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구입을 확대했으며, 주력 서비스인 '상상독서' 프로그램들을 모두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했다. 또한 최신 트렌드에 따라 '독서 브이로그'나 '(영상리뷰) 내가 사랑하는 고전'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부단히 노력하여 마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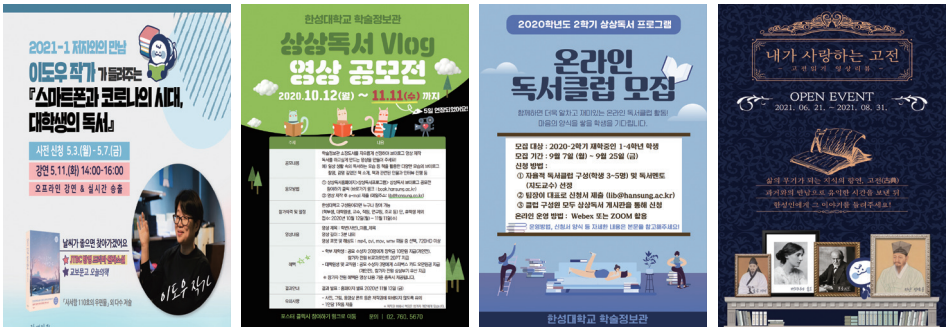


그림 4.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독서프로그램 포스터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시 코로나19로 침체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에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단순 개방 차원을 넘어 아웃리치 진행 및 6년 연속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참여 등으로 '2020 대학도서관 평가' 특성화 부문 1위(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와 2019년 길 위의 인문학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주민 회원들의 도서관 방문이 대폭 줄어들었고, 교내 외부인 출입금지 정책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지역주민의 방문도 위축된 상황이다.

2. 추진목적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놓았으며, 뉴노멀 시대에서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최재붕, 2020. 7.). 디지털 가속화로 세상이 바뀌었으니 도서관의 시선과 생각의 기준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특히 MZ세대를 주 이용자로 하는 대학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시선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새로운 세계관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챗봇 기술을 적용한 인문학 교육, TV 예능에서 볼 수 있는 자막·음향을 포함한 교육영상 제작, 카드뉴스 제작 및 SNS 영상 홍보 등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젊은'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을 추진했다.

첫째,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가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둘째,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

셋째, 가상공간 내 도서관 서비스 홍보로 프로그램 참여율과 자료 이용률을 높인다.

넷째,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다섯째, 메타버스 도서관 간접체험으로 지역주민과 예비 한성인에게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Ⅱ 한성 북니버스 구축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메타버스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실제 도서관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로 메타버스 도서관명을 부여했다. 한성대, 책(book),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한성 북니버스(Book-niverse)'라 이름했으며, 메타버스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될 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했다.

1. 구축 방향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했다.

가. 실제 모습과 최대한 동일한 도서관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현실세계와 같은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도서관도 실제 도서관의 모습과 유사해야 한다. 따라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는 메타버스 도서관 이용자가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성 북니버스 공간을 실제 모습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현하도록 노력했다. 학술정보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에 해당하는 건물 전 층(1층~6층)과 이용자들이 자주 가지 못하는 옥상정원까지 구현하는 데 힘썼다.

그림 5. 실제 학술정보관 전경

그림 6. 메타버스 학술정보관 전경

나. 재미있는 도서관

무엇이든 재미있어야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특히 메타버스 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MZ세대 학생들임을 감안해 한성 북니버스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서가만 가득한 보존서고나 자료열람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즐길 수 있는 게임 활동 공간을 마련했다. 가상공간에 게임용 사물(object)들을 하나하나 구축할 때마다 이용자들이 "오! 멋진데!", "아! 귀여워.", "재밌다!" 등의 즉각적 반응을 보일 것을 염두하며 작업했다. 현실 도서관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가능해서 더 매력적인 메타버스 도서관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림 7. 한성대학교 마스코트인 상상부기(좌)와 메타버스 속 상상부기(우)

그림 8. 메타버스 속 해변 콘셉트의 퀴즈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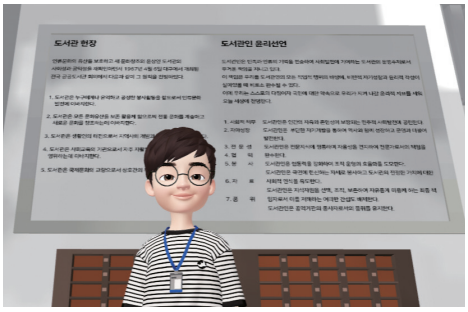
그림 9. 메타버스 도서관에서 즐기는 모습

다. '도서관다운' 도서관

가상 도서관도 도서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메타버스 도서관에는 즐거움과 재미도 있지만 도서관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여 다른 맵(가상공간)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메타버스 도서관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가능한 한 많이 담기도록 제작했다. 2학기 진행 예정인 독서프로그램 홍보, e-book/audio book 안내뿐 아니라 QR코드 이미지를 삽입해 해당 상세 공지 및 열람 사이트로 직접 링크되도록 하였다.

상상독서 전시관

2학기 예정 프로그램 홍보



도서관 헌장 및 도서관인 윤리선언

도서 검색대 및 홍보 키오스크

그림 10. 메타버스 속 도서관 안내 및 서비스 QR코드 링크

2. 제작 플랫폼

한성 북니버스는 최근 유행 중인 다양한 샌드박스 플랫폼 중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네이버Z의 제페토를 플랫폼으로 결정하였다. 결정과정에서 마인크래프트(마이크로소프트사)와 로블록스(로블록스사)도 후보로 두었으나, 유료서비스로 인한 접근성 부족과 국내 인지도 부족으로 제페토(네이버Z사)를 선택하였다.

제페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작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아바타 패션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랫폼, 다른 하나는 한성 북니버스와 같이 맵을 만드는 빌드 잇 맵 플랫폼이다. 한성 북니버스는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을 메타버스로 제작하려는 목적이므로 제페토 빌드 잇 맵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제페토 맵은 PC환경에서 개발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된다. 개발환경은 맵을 만들기 위한 최소사양으로 Windows10 등 아래 표와 같은 사양을 요구한다.

표 1. 제페토 빌드 잇 플랫폼 운영 최소사양

구분	최소사양
운영체제	Windows 10 또는 Mac OS Mojave 이상
CPU	intel i5 이상
메모리	8GB RAM 이상
그래픽	Geforce GTX 660 이상
Direct X	10 버전 이상
해상도	1280x720 이상
HDD 여유공간	500MB 이상

빌드 잇 맵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가상공간에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배치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배치된 오브젝트를 선택·이동·회전·크기·정렬하여 맵을 꾸미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 중 특이한 기능을 하는 오브젝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오브젝트, 자동차를 빌려 탑승하는 기능이 담긴 오브젝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오브젝트, 풍선이나 우산을 들 수 있는 오브젝트 등인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맵을 꾸밀 수 있다.

3. 맵 구축 순서

한성 북니버스와 같이 건물을 가상세계로 옮기는 제페토 맵은 건물을 짓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축 업무의 분업화와 효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축 순서를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장소를 어떻게 배치할지 배치도를 작성하고, 캐릭터의 사이즈와 공간감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축소하기 위한 축적을 정한다. 제페토 맵에서 오브젝트를 쌓기 시작할 때는 건물 외부구조에서 내부구조 순으로 했으며, 창문–출입문–계단–화장실–엘리베이터–사인물 순으로 내부구조를 완성하였다.

내외부 옥상 공간 등의 현실적인 묘사와 완성도를 위해 실제 도서관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실측하고, 수시로 직접 건물 사진을 찍고 실제 학술정보관과 비교하면서 오브젝트를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했다.

건물의 외부구조와 내부구조를 완성한 뒤에는 집기를 설치하였다. 먼저 서가, 의자, 책상, 소파, 대출/반납 데스크와 같은 가구를 제작하였다. 가구를 제작한 뒤에는 검색PC, 업무PC, TV, 키오스크, 출입게이트와 같은 전자기기를 제작하였다. 집기 제작 또한 오브젝트로 구성하며, 학술정보관의 소장 집기 디자인과 외관의 미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의자 1개를 만들기 위해 다리, 좌판, 등판, 팔걸이 등 17개 오브젝트를 조합하는 등 기본 오브젝트에 없는 디자인으로 한성 북니버스만의 특색 있는 가구 연출을 시도하였다.

집기를 완료한 후 서가들이 즐비한 지루한 공간을 활용해 실제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각종 놀이기구 공간과 프로그램 전시관을 조성하였다. 재미를 위한 Jump 놀이 공간, 퀴즈 공간, 상상독서 홍보 공간 등을 위해 각종 오브젝트를 배치하였다.

마무리 단계로 이벤트를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퀴즈 이벤트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모든 단계가 마무리된 후에는 한성 북니버스 맵 소개 글을 작성하고 섬네일 및 스크린샷 촬영을 추가하였다. 최종 공개 전 마지막 단계로 한성 북니버스 맵 공개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하여 네이버Z에 심사 요청을 하였다.

그림 11. 한성 북니버스 맵 구축 순서

4. 공간 구성

이용자가 가상의 도서관 공간을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도서관을 실제 학술정보관 모습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이 목표지만, 서가만 있는 반복되는 자료실 공간 및 보존서고 공간에는 도서관을 홍보하는 가상공간과 재미 요소를 더해줄 어트랙션 공간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공간을 구성했다.

표 2. 한성 북니버스 공간 구성

구분		배치내용	변경 여부
1층	보존서고	보존서고를 Quiz Zone으로 변경	변경
2층	로비	출입게이트, 대출/반납대 및 각종 집기	동일
	사무실	공간구성 제외	구현 제외
3층	러닝커먼스	인포데스크, 데크, 서가 등 각종 집기	동일
	창의열람실	의자, 책상 등 각종 집기	동일
4층	사회과학자료실	상상독서 홍보관, 미로 공간, 각종 집기	변경
	집중열람실	의자, 책상 등 각종 집기	동일
5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	의자, 책상 등 각종 집기	동일
	상상커먼스	의자, 책상 등 각종 집기	동일
6층	멀티미디어자료실	시청각자료 및 그룹열람실 관련 집기	동일
	Design & IT 정보센터	Lib-work 및 자료실 의자, 책상 등	동일
옥상 및 외부공간		Jump 어트랙션, 수영장, 도로, 사인물 등	변경

공간구성에는 실제 건축도면을 활용하여 구축 계획을 스케치하였으며,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되는 공간, 가상으로 꾸며질 공간, 구현을 제외한 공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맵 구축은 이용자 서비스 대상 공간으로 한정하였기에 학술정보팀, 정보전산원 사무실과 같은 사무공간은 구현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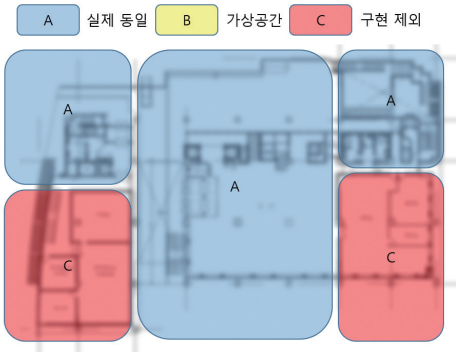


그림 12. 학술정보관 2층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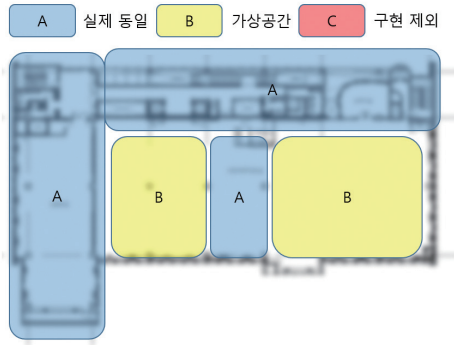


그림 13. 학술정보관 4층 공간구성

5. 구축 일정

구축작업이 완료된 한성 북니버스는 심사 후 2021년 8월 2일 최종 승인되어 제페토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한성 북니버스가 구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맵 공개 및 서비스가 시작된 2021년 8월 2일로부터 처음 학술정보관 제페토 ID를 생성하고 메타버스 관련 현황 조사가 시작된 2021년 5월 31일을 기산일로 추산하면 맵 구축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현황조사는 약 2주가 소요되었으며, 구축을 위한 견적조사를 비롯하여 예산수립 및 공간 배치를 구상하였다. 2주 후에는 팀 회의를 통한 공간 배치를 확정했으며, 맵을 구축하기 위한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근로장학생은 1개월간 학술정보관에서 3시간씩 2개조로 2명씩 근무하며 맵을 제작하였다. 8월 오픈을 목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말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7월 25일 최종 심사를 신청하였다. 맵은 심사를 신청하고 약 1주일 후 최종 승인과 함께 게시되었다. 맵이 게시되기 전과 게시된 후에 홈페이지, SNS 홍보를 진행했으며 오픈 이벤트, 만족도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표 3. 한성 북니버스 구축 일정표

기간	수행 내용	소요기간
D-60	메타버스 플랫폼 현황조사	1week
	예산 수립 및 공간 배치(안) 수립	1week
	제페토 기관용 ID 생성	1day
D-45	공간 배치 회의 및 배치 계획 확정	2weeks
	맵 제작을 위한 팀 구성	1day
D-30	맵 제작	4weeks
	홍보 및 SNS 인증 이벤트 준비	1day
	만족도 설문조사 준비	1day
D-day	한성 북니버스 맵 오픈	-
	오픈 이벤트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Ⅲ 한성 북니버스 서비스

한성 북니버스는 한성대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미래의 한성대학교 학생이 될 예비 한성인과 제페토에서 메타버스 도서관을 궁금해하는 모든 일반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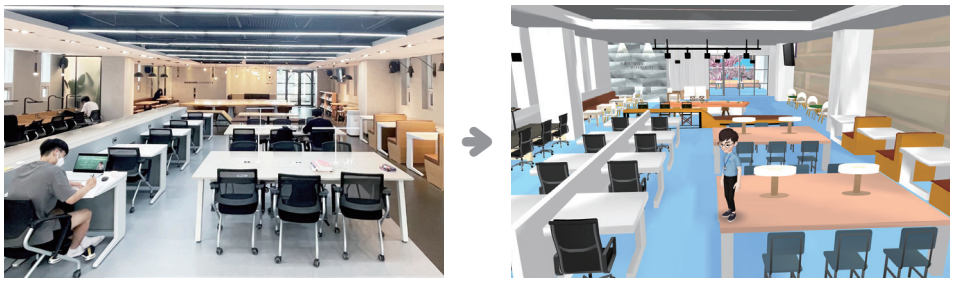
1. 도서관 체험

가. 층별 공간 체험

이용자는 학술정보관 6개 층의 공간을 실제 방문하는 것과 같이 경험해볼 수 있으며 평소 방문하지 못했던 공간까지 시간 제약 없이 모두 체험할 수 있다.

학술정보관 2층 로비

학술정보관 3층 러닝커먼스



학술정보관 3층 창의열람실

학술정보관 전면 복도

그림 14. 학술정보관 실제 사진(좌)과 한성 북니버스 속 사진(우)

나. 독서프로그램 안내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한성대학교의 슬로건인 '상상력'을 인용한 '상상독서'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서가만 즐비한 4층 자료실을 재구성해 메타버스 도서관에 전시관을 마련하였다. 이용자들은 고전을 읽고 영상으로 리뷰하는 '내가 사랑하는 고전'부터 '독서클럽', '테마가 있는 독서 아카데미', '독서 브이로그 공모전', '저자와의 만남', '청년제안 프로젝트'까지 2학기에 진행되는 독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5. 한성 북니버스 속 상상독서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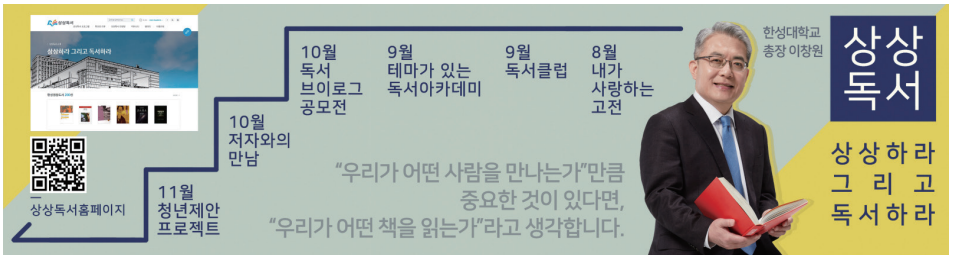


그림 16. 상상독서 전시관에 게시된 상상독서 홍보글(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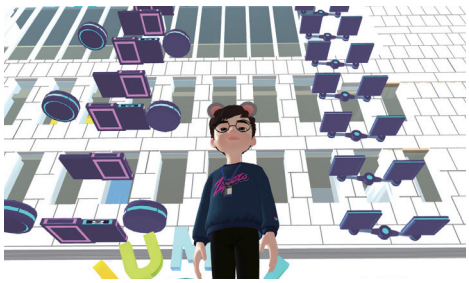
다. 전자책/오디오북 링크

코로나19로 도서관에 방문하기 힘든 이용자를 위하여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성 북니버스 전시관에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QR코드를 활용하여 모바일 전자책 열람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무료로 개방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동영상 플레이는 고사하고 간단한 웹 링크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이 많지만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여러 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QR코드 삽입이라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웹 링크 불가를 극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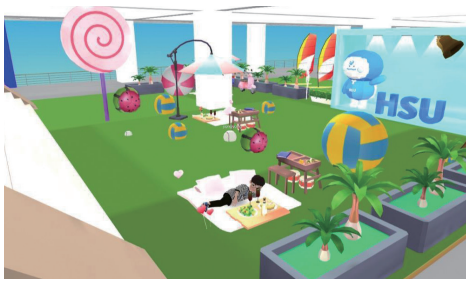
그림 17. 상상독서 전시관에 게시된 전자책/오디오북 이용 안내

2. 가상 놀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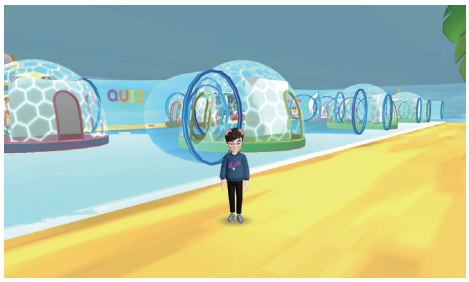
제페토 맵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친구들과 맵에서 소통하고, 같이 사진 찍고, 춤을 추며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한성 북니버스 맵에도 제페토 이용자들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배치하였다. 포토존에 있는 상상부기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고, 해변 콘셉트 공간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미로 찾기도 하고, 점프 어트랙션으로 옥상까지 올라가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다. 학술정보관을 메타버스 속에서 실제 모습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놀이시설을 곳곳에 배치하여 지루하지 않게 여러 곳을 둘러보며 간접적으로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더불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좀 더 친근한 이미지의 공간으로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 옥상으로 점프



해변 콘셉트의 힐링놀이



수상 돔에서 퀴즈 풀기

미로 탈출하기

그림 18. 한성 북니버스 곳곳에 설치된 놀이공간

3. 이벤트 및 홍보

가. 참여 이벤트

한성 북니버스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하는 오픈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벤트는 메타버스 도서관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보물찾기'와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상상독서 인증샷', 'QUIZ! QUIZ!', 재미를 위한 '도서관 대탈출', 'JUMP UP!'까지 총 5가지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사전에 학생들의 경품 선호도를 조사하여 학술정보관 행사 최초로 치킨세트, 아이스크림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림 19. 한성 북니버스 오픈 이벤트

오픈 이벤트 종료 이후에는 9월 개강 이벤트(2021. 9.), 예비 신입생 대상 이벤트(2022. 1.~2.)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 홍보

한성 북니버스 홍보는 네이버Z에서 맵 등록을 승인하여 대중에게 가상도서관 맵이 공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홍보, 오픈 당일 홍보, 사후 홍보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전홍보	오픈 당일 홍보	사후홍보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가상 도서관의 일부만 공개하는 짧은 영상 게시	• 제페토 피드에 한성 북니버스 곳곳에서 찍은 사진 게시	• 가상도서관 방문 유도를 위해 한성 북니버스 오픈 이벤트 홍보
홈페이지 홍보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제페토 홍보** 사진 피드 업데이트	**홈페이지 홍보**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SNS 홍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에브리타임		**SNS 홍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에브리타임

그림 20. 한성 북니버스 홍보

홈페이지 홍보 페이스북 홍보 인스타그램 홍보

그림 21. 사전 홍보: 메타버스 도서관 오픈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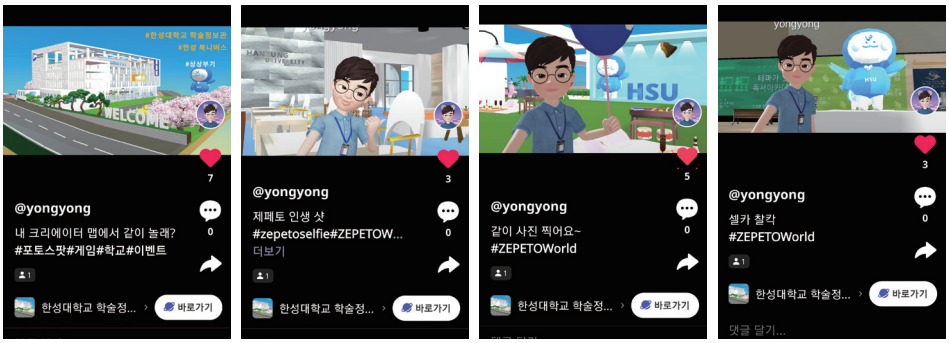


그림 22. 오픈 당일 홍보: 제페토 인증샷 피드

홈페이지 홍보 페이스북 홍보 인스타그램 홍보

그림 23. 사후 홍보: 한성 북니버스 오픈 이벤트 안내

4.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는 메타버스 방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도서관 오픈과 관련한 이용자 만족도 및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한성 북니버스가 MZ세대 이용자들에게 학술정보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학술정보관 서비스 이용률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가상도서관 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사용자 경험 조사
- **조사기간** 2021. 8. 2.~2021. 8. 4.(3일간)
- **조사대상** 한성 북니버스를 방문한 재학생
- **조사내용** 이용만족도 조사를 위한 4단계로 구성(16~20문항)
  [1]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및 한성 북니버스 방문 경험
  [2] '메타버스' 용어 인식 수준 및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경험
  [3] 한성 북니버스 방문 후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조사방법** 구글 설문지

나.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기간 중 학생 56명이 온라인 설문에 응하였는데, 남학생 17명, 여학생 39명의 응답 현황을 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제페토 플랫폼 이용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성 북니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54점(5점 만점)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만족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9.3%가 학술정보관 방문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대다수 학생(96%)이 한성 북니버스가 실제 도서관과 유사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술정보관 방문 경험이 없는 일부 이용자(10.7%) 중 83.3%는 한성 북니버스 방문 이후 실제 학술정보관에도 방문해 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한성 북니버스가 실제 도서관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50개(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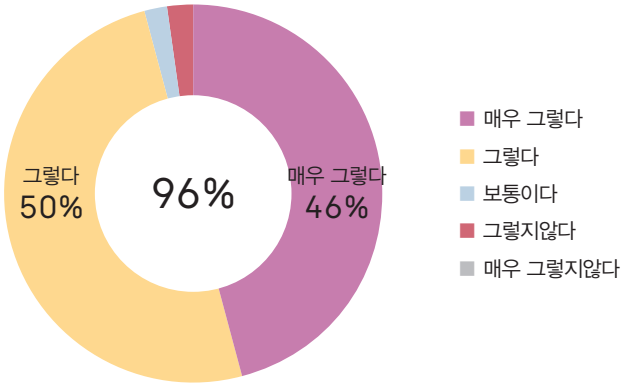


그림 24. 실제 학술정보관과 가상 도서관의 유사도 조사 결과

학생들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3.2%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고, 이 중 50%는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용해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제페토(85.7%), 마인크래프트(67.9%), 로블록스(7.1%) 순으로 많았다.

메타버스를 통해 이용해본 플랫폼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응답 28개(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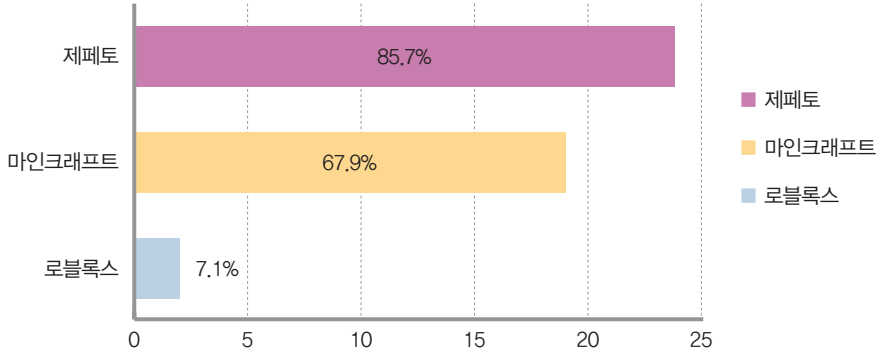


그림 25.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 경험 조사 결과

응답자들에게 한성 북니버스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를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대부분 응답자는 학술정보관의 시설 및 건물구조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89.3%), 57.1%의 응답자가 학술정보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성 북니버스 방문자들이 가상도서관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독서 프로그램(53.6%),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51.8%), 문화 프로그램(46.3%)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메타버스를 이용해 학술정보관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중복가능)

응답 56개(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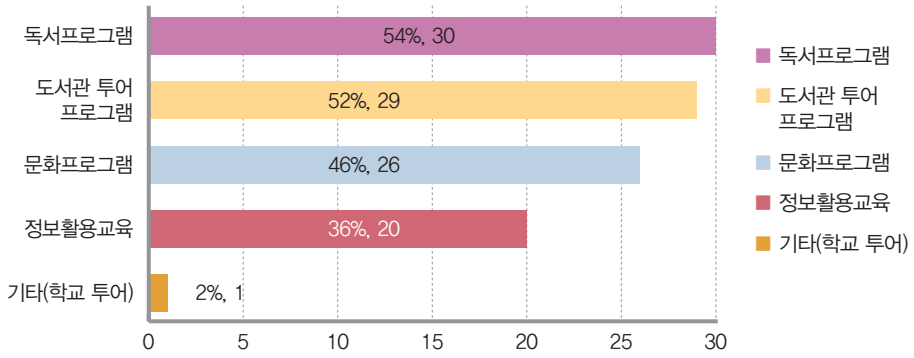


그림 26. 메타버스 내 프로그램 참여 의향 조사 결과

한성 북니버스로 학술정보관에 친근함이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친근함이 생겼다고 응답한 학생이 94.6%로, 대다수가 가상 도서관 이용만으로도 학술정보관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성 북니버스를 방문한 후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에 대한 친근함이 생기셨나요?

응답 56개(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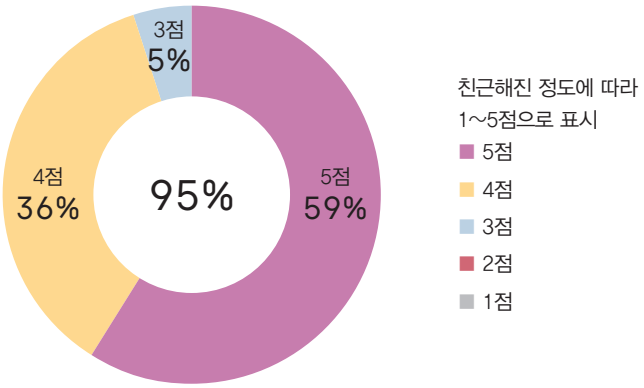


그림 27. 한성 북니버스 방문으로 인한 도서관 호감도 조사 결과

한성 북니버스를 체험해본 학생들이 자유롭게 작성한 방문소감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표 4. 한성 북니버스 방문 소감

구분	주요 의견
가상도서관 유사도	• 너무 똑같아서 놀라워요! 학교에 방문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한성 북니버스를 통해 학술정보관을 간접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하네요. •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방문하기 어려운데 앱으로라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이 외 10건
정보제공	•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학술정보관의 시설이나 구조에 대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어요. • 이 외 1건
고려사항	• 재밌다.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학교 전체를 만들어주세요. •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 등 다른 메타버스에서 만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 이 외 5건
단순감상	• 한성대 학술정보관이 제자리에서 기존 업무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에 맞게 꾸준히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으로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 캐릭터 조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높았고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시도와 도전을 행한 점이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외 31건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도서관은 도서관의 홍보 창구나 프로그램 진행 공간, 놀이공간 등의 활용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Ⅳ 성과 및 제한점

1. 추진 성과

가. 서울지역 대학도서관 최초 메타버스 구축

국내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 제페토 기준으로 2021년 8월 3일 현재, 국내 약 400개 대학도서관 중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을 포함하여 3개 도서관이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했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서울지역 대학도서관 중 최초로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한 성과를 보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같은 일자 기준으로 4개관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표 5. 제페토 플랫폼 내 국내 도서관 메타버스 구축현황(2021. 8. 3. 기준)

관종		도서관명	지역
대학도서관	4년제	A 대학교 도서관	충북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서울**
	2년제	B 대학교 도서관	경기
공공도서관		A 도서관	경기
		B 도서관	서울
		C 도서관	서울
		D 도서관	인천

나. 인기 크리에이터 맵 선정

한성 북니버스 맵은 하루(2021년 8월 3일 16시 현재)만에 4,500명의 이용자가 방문하였고, '좋아요' 반응에도 상당히 높은 점수(97%)를 받았다. 제페토 플랫폼에서는 최근 인기 있는 맵을 '인기 크리에이터 맵'이라는 별도 탭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하는데, 한성 북니버스가 다른 맵과 비교했을 때 인기도가 상위에 랭크되어 제페토 인기 크리에이터 맵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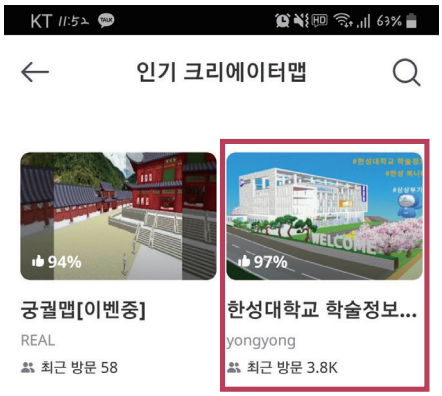


그림 28. 인기 크리에이터맵으로 등재된 한성 북니버스

다. 저예산으로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추진 가능성 확인

한성 북니버스는 예산이 거액 투입되는 용역에 의하지 않고도 자력만으로 훌륭한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사업 추진 초기에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사에 견적을 의뢰했으나 고가의 견적을 받고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사서들과 도서관 근로장학생들이 수시로 토의하고 협업하며 MZ세대 학생들의 취향을 겨냥하는 가상 도서관을 저예산으로 내실 있게 구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림 29. 사서와 재학생들이 메타버스 도서관을 구현하는 모습

라. 대학본부 메타버스 서비스로의 확장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의 메타버스 시도는 한성대학교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한성 북니버스 오픈으로 캠퍼스 안에 메타버스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후 대학본부는 비대면 수업,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등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을 하게 되었다. 학술정보관은 교내 타 부서로부터 메타버스 구축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

마. 각종 언론에 기사화

한성 북니버스가 메타버스 활용 도서관으로는 최초로 기사화되어 도서관의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을 국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리는 성과를 보였다.

그림 30. 한성대 메타버스 도서관 개관 보도기사

2. 제한점

메타버스 도서관 맵 구축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Z에서 게시를 허가해주지 않으면 맵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허가되지 않는 맵은 주로 저작권, 상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거나 오브젝트 수가 많은 경우이다. 한성 북니버스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되는 오브젝트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건물 타일 표현, 서가에 꽂힌 책, 인테리어 표현 등에서 너무 많은 오브젝트가 사용되어 제작 막바지에는 일부 공간의 오브젝트 수를 줄이느라 원래 의도대로 디테일하게 맵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제페토는 무료로 제작되는 플랫폼인 만큼 접근하기는 쉽지만 그만큼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오브젝트 수가 다양하지 않아서 학교 공식 마스코트인 상상부기 캐릭터를 3D로 표현하거나, 복잡한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 자료실 이름을 표기하려고 사진을 사용했지만, 업로드할 수 있는 사진 또한 20개로 제한되어 있어 계획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유료 서비스인 제페토 공식 맵에서는 영상을 게시하거나 음악, 웹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으나, 공식 제휴가 아닌 공개버전(freeware) 빌드 잇 맵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성 북니버스 내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링크할 수 없었고, 학술정보관 소개 영상이나 이용교육 등의 영상을 게시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V 향후 계획

여러 기술적 제한점이 있음에도 메타버스 공간이 제작 의도와 연출에 따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여 오는 2학기와 겨울방학 중에 교내 유관부서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및 2022년 수시·정시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설문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플랫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수 인원의 언택트 모임이 가능한 이프랜드(ifland)를 활용하여 저자와의 만남, 독서아카데미, 독서클럽 발표대회와 같은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오브젝트 수에 제약이 없는 마인크래프트 플랫폼으로 학교 캠퍼스 전체를 지어보는 재미있는 체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대 (2021. 3. 4.). 순천향대·SKT, ‘메타버스 입학식’ 개최. 아산데스크. 출처: http://www.asandes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3

나동욱 (2021. 8. 4.). 한성대,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 개관. 베리타스 알파. 출처: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141

류용환 (2021. 8. 4.). 한성대,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 개관. 브릿지경제.s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804010000964

복현명 (2021. 8. 4.). 한성대,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 개관. 스마트경제. 출처: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1

유선태 (2021. 7. 23.). 가상세계서 팬미팅·채용 설명회, 아바타가 대신 출근하는 세상도 올까… 4년 뒤 6배 시장 ‘메타버스’질주. 영남일보. 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711010001238

이승환 (2021. 8. 4.).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 개관. e-대학저널. 출처: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60

이원지 (2021. 8. 4.). 한성대,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 개관. 한국대학신문. 출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3425

최재붕 (2020). Change 9, 포노 사피엔스 코드. 서울: 쌤앤파커스.

하영 (2021. 8. 4.). 한성대,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 개관. 교수신문. 출처: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3426

03

현장사례
우수상

QR code를 포함한 청구기호 라벨 개발과 장서 관리 업무 혁신 사례

5mm의 혁신

김상원 · 송미연
한림성심대학교 한빛도서관

Ⅰ.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61

Ⅱ. Bar code-1970년대 혁신적인 발명품,
선을 이용한 발상의 전환 62

Ⅲ. 발상의 전환(1)–가로를 세로로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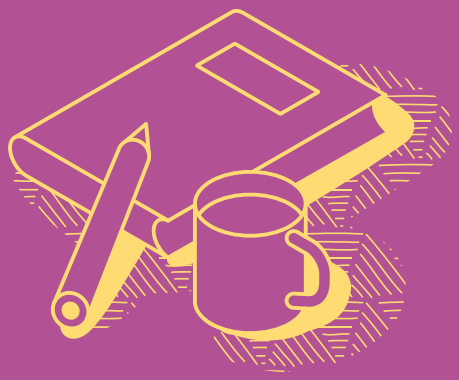
Ⅳ. QR code 68

Ⅴ. 발상의 전환(2)-'5mm의 혁신'
QR 청구기호 라벨 개발 75

Ⅵ. 측정 결과 78

Ⅶ. 결론 80

Ⅷ. 후기 81



요약문

장서 점검은 정기적으로 도서 대장(원부) 또는 서가 목록과 대조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장서 데이터가 전산화됨에 따라 소장 목록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여 일괄적으로 전산처리함으로써 부재 도서를 확인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정리 보관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1] 이처럼 장서 점검은 도서 목록에 있는 장서가 서가에 실제 있는지 확인하여 도서의 손상 및 분실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도서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이다. 도서관의 운영 방법과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매우 많은 양의 도서를 점검해야 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도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 중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업무이다.

최근 우리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율 저하와 이로 인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면서 학과 통폐합, 신규 채용 중단과 같은 인력 조정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 과중과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에 취약한 곳 중 하나가 대학도서관이다. 대학의 필수 시설로 인정되어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대학 사정과 함께 항상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한림성심대학교 도서관은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 반복되는 업무 중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발굴해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무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그 첫 번째 실무사례로 기존의 bar code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제약사항을 극복하고자 2차원 방식의 QR code를 장서 관리 업무에 적용하여 기대 이상의 업무 개선 효과를 얻었다.

우리 도서관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어떤 실천과 변화 과정을 거쳐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공공도서관 장서관리매뉴얼. 76-77.

I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달걀 일화가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자 축하연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 성과를 무시했다. 이에 콜럼버스는 달걀을 탁자 위에 세워 보라고 주문했다. 모두 실패했지만 콜럼버스는 성공했다. 달걀을 살짝 깨뜨려 세웠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다.[2)]

지치고 더운 여름이다. 방학이라 도서관은 한가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용객이 거의 없다. 그러나 방학 중 도서관 근무자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해야 한다. 매년 실시하는 장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 15만 권을 전수 조사해야 하는데 약 1개월 일정으로 4인, 2개 조로 편성된 인력이 하루 6시간 동안 장서 점검업무를 진행한다. 서가에서 책을 빼내 바코드를 스캔하고 다시 책을 꽂아서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 최신 기술 RFID를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풍경은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빠듯한 재정 형편에 고가의 RFID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장서 점검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책을 빼서 등록번호 바코드를 스캔하고 다시 제자리에 넣는 작업을 반복하는 동안 등록번호 바코드를 꼭 책 표지에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등록번호 바코드가 책 표지에 붙어 있어서 기본적인 도서 관리 업무에는 편리하지만, 장서 점검 업무를 할 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곳에 붙여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에 붙여야 하나? 서가에서 바로 보이는 책등[3)]에 바코드를 붙이면 책을 빼지 않고 장서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 책등의 폭이 현재 사용하는 가로로 긴 바코드 폭보다 좁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 책등 폭보다 가로길이가 넓은 바코드 라벨은 꺾여서 제대로 스캔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바코드 라벨 폭을 좁게 만들더라도 책등의 폭이 워낙 다양해서 이것도 적당한 방법이 못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서 점검 업무를 빠르게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2) 한국대학신문 (2020. 5. 30). [사설] 포스트 코로나와 콜럼버스의 달걀. 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092

3)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 사이, 책을 서가에 배열하면 보이는 책 제본 부분의 겉면.

Ⅱ Bar code-1970년대[4] 혁신적인 발명품, 선을 이용한 발상의 전환

"I just extended the dots and dashes downwards and made narrow lines and wide lines out of them" - Norman Joseph Woodland[5]
전 단지 점과 선들을 아래로 확장한 후 각 부호에 맞는 좁은 선과 넓은 선을 그렸을 뿐입니다. - 노먼 조셉 우드랜드

이 낯설지 않은 긴 막대기 형상을 가진 특별한 코드는 1948년 미국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쓰이는 훌륭한 부호 체계이다. 모스 부호[6]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이 대단한 발명품은 슈퍼마켓과 같은 곳에서 관리와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들어져 지금도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바코드는 특히 도서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바코드가 없었다면 지금의 도서관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1. 바코드의 구조[7]

그림 1. 바코드의 구조

4) 바코드는 그보다 이전에 사용했으나 활발히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의미.
5) 바코드 발명가. Drexe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2012. 12. 20). Norman Joseph Woodland, co-inventor of the barcode, passes away at 91. 출처: https://drexel.edu/engineering/news-events/news/archive/2012/December/normanjosephwoodlandcoinventorofthebarcodepassesawayat91/
6) 모스 부호(morse code)는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를 적절히 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기한 것.
7)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바코드의 기본.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mechanism/

가. 콰이어트 존(마진)

바코드 심벌 좌우에 있는 여백 부분을 말한다. 이 여백이 충분하지 않으면 판독할 수 없다. 좌우에 네로우 바 폭(최소 엘리먼트) 10배 이상의 여백이 필요하다.[8] 이러한 특성으로 가로 폭을 늘 일정한 크기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콰이어트 존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판독이 불안정해지므로 바코드를 만들 때 주의가 필요하다.

나. 스타트/스톱 캐릭터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문자이다. 스타트/스톱 캐릭터는 바코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CODE39에서는 "*"이고 CODABAR에서는 "a", "b", "c", "d"이다. (EAN, ITF, CODE128의 경우는 문자가 아니라 스타트/스톱을 나타내는 바 패턴이 있다.)

다. 데이터(메시지)

데이터를 나타내는 문자(숫자, 알파벳 등)의 바 패턴이 왼쪽부터 나열된다. [그림 1]에서는 0, 1, 2의 문자를 표시하는 바 패턴을 왼쪽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여 '012'라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라. check digit

판독 오류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 산출된 수치로 바코드 데이터 바로 뒤에 붙는다.

마. 바코드 길이

바코드 길이는 좌우의 콰이어트 존을 포함한 길이를 말한다.

바. 바코드 높이

바코드 높이는 인쇄 가능한 최대한의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바코드 길이의 15% 이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8) 바코드가 일정 크기 이상의 인쇄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소형화할 때 문제점

2. 바코드의 특징[9)]

가. 빠른 속도: 바코드 입력은 키보드 입력보다 빠르며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
나. 높은 신뢰성: 바코드 기술의 오류율은 1% 미만이다.
다. 실용적: 바코드 시스템 장비는 저렴하다.

3. 바코드와 기존 장서 점검

지금처럼 표지 바코드 라벨 부착 방식으로 장서 점검을 하는 경우 표지 하단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려면 그림과 같이 반드시 책을 빼서 바코드를 스캔하고 재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가. 표지 바코드 라벨 부착 장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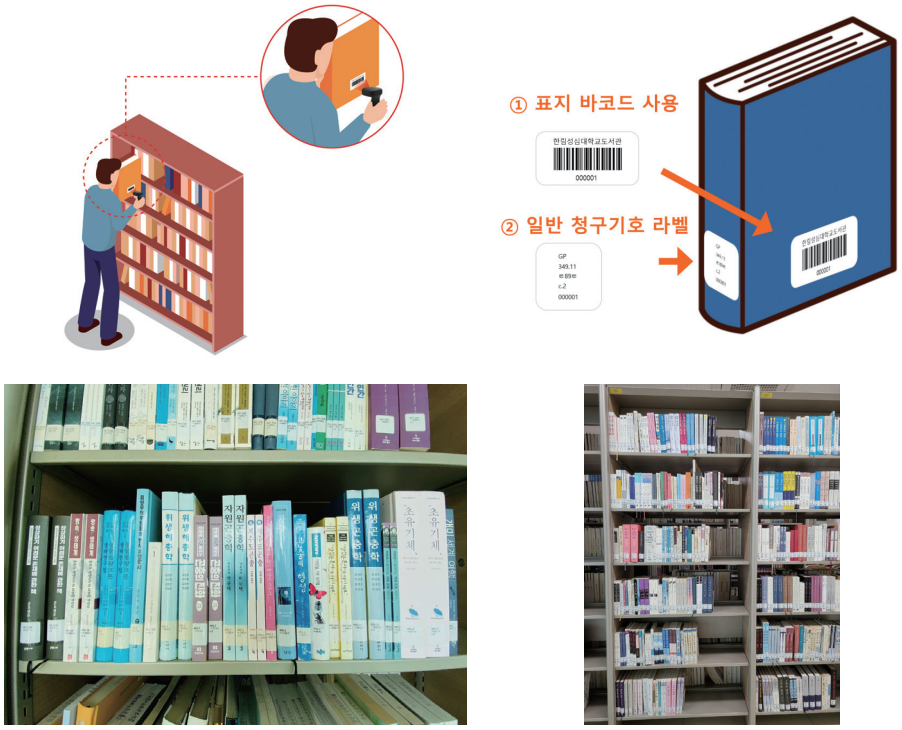


그림 2. 바코드 라벨과 장서 점검

9) Xinyetong Technology CO [발행년불명]. RFID VS 바코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더 좋아? 출처: https://www.asiarfid.com/ko/rfid-vs-barcode.html

나. 표지 바코드 라벨 부착 시 장서 관리 업무 처리 속도

표 1. 표지 바코드라벨 장서 관리 업무 처리 속도

작업	작업 내용	소요시간(초)[10]
라벨 부착	1. 책등: 청구기호 라벨 부착, 보호필름 부착 2. 표지: 바코드 라벨 부착, 보호필름 부착	30
장서 점검	책 빼기 → 바코드 스캔 → 책 넣기 → 책 정리	3

Ⅲ 발상의 전환(1)-가로를 세로로

바코드 라벨을 세로로 책등에 붙이면 책을 빼지 않고 스캔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존 장서 점검의 문제점은 서가에서 책을 빼서 스캔한 후 다시 제자리로 집어넣고 책을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줄인다면 장서 점검 시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바코드 라벨을 책등에 부착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코드는 수평으로 데이터를 수록하는 특성이 있어 대부분 책등의 폭이 바코드 라벨보다 좁은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아래 그림처럼 우리 대학에서 사용 중인 바코드 라벨은 가로가 48mm로 이 폭보다 작은 경우 바코드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된다. 고민 끝에 바코드 라벨을 세로로 붙여보기로 했다. 청구기호 라벨과 두 가지 라벨이 동시에 붙어서 보기에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일단 6단 6열 서가 전체를 붙여서 테스트했다.

10) 5회 측정 후 업무 처리 시간의 산술 평균 반영,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작, 그밖에 작업에 필요한 기타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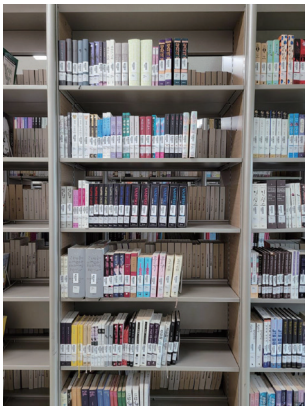


그림 3. 현재 사용 중인 바코드 규격과 세로로 바코드 라벨을 붙인 모습

1. 책등 청구기호 상단 세로 부착 방식

그림 4. 책등 청구기호 상단에 세로로 부착하는 방식

2. 책등 청구기호 상단 세로 부착 방식의 장단점

표 2. 책등 청구기호 상단 세로 부착 방식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책을 빼지 않고 장서 점검: 시간과 비용 절감 • 장서 점검 시간 2배 정도 빨라짐	• 청구기호 라벨과 바코드 라벨 두 가지 라벨이 한꺼번에 붙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음 • 책등의 폭이 10mm 이하로 좁아지면 바코드 스캔이 어려움 • 바코드 리더기를 세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피로감

3. 책등 청구기호 상단 세로 부착 방식의 장서 관리 업무 처리 속도

표 3. 책등 바코드 라벨 장서 관리 업무 처리 속도

작업	작업 내용	소요시간(초)
라벨 부착	1. 책등: 청구기호 라벨 부착, 보호필름 부착 2. 책등: 바코드 라벨 부착, 보호필름 부착	30
장서 점검	바코드 연속 스캔	1 이하

"You never change things by fighting the existing reality. To change something, build a new model that makes the existing model obsolete."
– Buckminster Fuller[11)]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싸운다고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기존의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라. - 버크민스터 풀러

장서 점검 속도가 2배나 빨라졌다. 바코드를 세로로 붙이기만 했는데 이렇게 빨라지다니, 우리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책등이 기존보다 어수선해 보이기는 했지만 이 정도 속도라면 획기적으로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쁜 마음에 바코드 스캔을 몇 번이나 다시 해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도서관 직원들 모두 무엇인가 큰일을 해낸 기분이었다. 기존 업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당연한 일이었다.

업무를 개선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책등에 붙인 라벨 두 장이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이 정도면 된 건가? 혹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며칠을 고민해보았지만 새로운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마침 신규로 구매한 도서들이 도착하여 정리한 후 청구기호를 붙이려고 라벨 인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따라 유독 인쇄된 청구기호 라벨의 여백이 많아 보였다. 문득 바코드를 저 공간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전 상황에도 언급했지만, 바코드는 수평 데이터를 포함해서 책등의 폭이 좁으면 꺾이게 된다. 이 경우 라벨 스캔을 할 수 없다. "그렇지. 안 되는구나!" 포기하려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파스 봉투 겉면 하단에 있는 작은 QR 코드가 눈에 들어왔다. 도서관 곳곳에서 이미 QR 코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QR 코드를 청구기호 라벨에 넣어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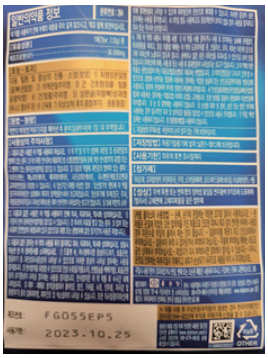


그림 5. QR code가 인쇄된 파스 봉투

11) 류용효 (2018. 12. 5.). 현장에서 얻은 것 첫 번째, 디지털 체인지와 변화관리의 중요성. CAD & Graphics. 출처: https://www.cadgraphics.co.kr/newsview.php?pages=news&sub=news01&catecode=2&num=57124#

생각은 왜 해보지 않았을까? 작게 인쇄할 수 있는 QR 코드의 장점을 활용할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다. 어처구니없게도 파스 봉투에 작게 인쇄된 QR 코드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충분히 작다, 들어가겠는걸!"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Eureka)[12]를 외쳤을 때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바로 자를 가져다 크기를 재어보았다. 10mm가 조금 안 되는 크기다.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왔다. 바로 QR 코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소 크기로 인쇄할 수 있는 조건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Ⅳ QR code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는 1994년 DENSO WAVE가 개발한 고속 판독용 매트릭스 2차원 코드이다. 이는 1997년 AIMI의 ITS 규격으로 등록되었고 2000년에는 ISO/IEC 규격으로 등록되었다.[13]

1. QR 코드의 규격[14]

QR 코드는 모델 1, 모델 2 및 Micro QR로 분류된다. 이들은 특징 및 데이터 용량이 각기 다르다. 각각의 모델은 QR 코드의 크기(셀 개수)를 나타낸다. 버전이 높을수록 데이터 용량이 크다.(코드의 실제 크기 또한 증가한다.)

표준 버전은 21×21셀(MicroQR은 11×11셀)이고, 모델의 버전이 높아질수록 각 측면에 4개 셀(MicroQR은 2개 셀)이 추가된다.

12) 뜻밖의 발견을 했을 때 외치는 단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던 중 욕조에 들어가서 욕조의 물이 넘쳤을 때 외친 것을 기원으로 본다.

13)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QR코드란 무엇입니까?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_2d/qr/

14)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QR코드란 무엇입니까?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_2d/qr/

모델 1[15)] 모델 2

그림 6. QR 코드 모델

2. QR 코드의 구조[16)]

가. 위치 검출 패턴

QR 코드 심벌의 세 코너에 배치된 3개(Micro QR은 1개)의 위치 검출용 패턴으로 우선 이 패턴을 검색하여 코드 위치를 인식할 수 있으며 고속 판독이 가능해진다. 위치 검출 패턴은 A, B, C 어느 방향에서라도 백색 셀과 흑색 셀의 비율이 반드시 1:1:3:1:1이 된다. 따라서 360° 모든 방향에서 판독이 가능하여 작업 효율이 한층 향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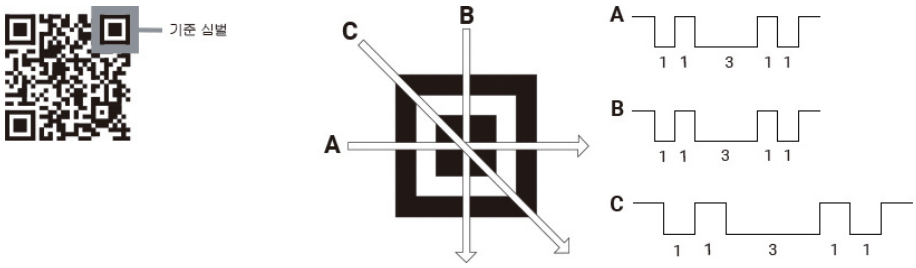


그림 7. 위치 검출 패턴

나. 여백(마진)

마진은 QR 코드 주위의 공백 부분이다. QR 코드 모델 1, 모델 2에서는 4셀분의 공백이, Micro QR 코드에서는 2셀분의 공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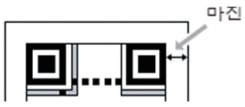


그림 8. 여백(마진)

15) 한림성심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용한 모델.

16)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QR코드란 무엇입니까?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_2d/qr/

다. 타이밍 패턴

백색 셀과 흑색 셀이 교대로 배치되어 심벌 내의 셀 좌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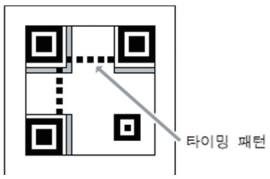


그림 9. 타이밍 패턴

라. 형식(포맷) 정보

코드 심벌에 사용되는 오류 정정률과 마스크 패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디코딩할 때는 먼저 이 부분을 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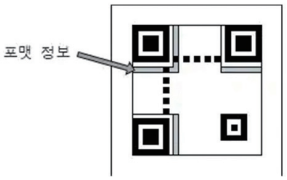


그림 10. 형식(포맷) 정보

마. 오류 정정 부호(리드 솔로몬 부호)

QR 코드 일부분이 누락 또는 손상된 경우라도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고 복원할 수 있도록 리드 솔로몬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부호이다. 오류 정정은 심벌의 손상 정도에 따라 4가지 라벨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오류 정정 부호

오류 정정 라벨	코드 대비 손상된 면적
L	7%
M	15%
Q	25%
H	30%

3. QR 코드의 특징[17)]

가. 작은 공간에 인쇄(높은 데이터 밀도(공간 절약))

QR 코드는 가로/세로 양방향으로 정보를 표현하므로 바코드와 동일한 정보량을 1/10 정도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17) DENSO WAVE(덴소웨이브) [발행년불명]. QR코드란? 출처: https://www.qrcode.com/ko/about/

나. 360° 어느 방향에서도 인식 가능

QR 코드는 360° 어느 방향에서든지 고속 인식이 가능하다. 그 비밀은 QR 코드 안에 3개 '위치찾기 심벌'로, 배경 모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고속 인식이 가능하다.

그림 11. 위치찾기 심벌

다. 오염·손상에 강하다

QR 코드는 '오류 복원 기능'을 통하여 코드 일부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데이터를 최대 약 30%까지 복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 기능은 디자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QR 코드의 복원력을 이용하여 바코드의 일정 부분을 디자인 용도로 훼손하더라도 바코드 기능을 할 수 있어 종전의 단순한 바코드에서 벗어나 고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바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18]

얼룩 오염 파손

그림 12. QR 코드의 얼룩, 오염, 파손

4. Bar code VS. QR code[19]

바코드는 데이터를 한 방향으로만 코드화하지만 QR 코드(2차원 코드)는 데이터를 수평과 수직 방향 모두를 코드화하므로 표준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다. 바코드는 최대 30글자를 코드화하지만, 2차원 코드는 최대 3,000글자를 코드화할 수 있다.

18) Flair Korea(플레어 코리아) [발행년불명]. QR code. 출처: http://flairkorea.com/board_data/cms/1382688042_79793_1

19)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2차원 코드란 무엇입니까?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_2d/intro/

그림 13. Bar code와 QR code의 데이터

5. QR code 판독 원리[20)]

가. 카메라에서 QR 코드 영상 입력
나. 카메라 영상을 흑백(bitmap)으로 변환
다. 흑백 영상에서 QR 코드 찾기
라. 찾은 QR 코드 판독
마. 판독 데이터를 스마트폰 화면에 출력

6. 스캔 거리[21)]

QR 코드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스캔 거리, cell의 크기, 스캐너의 성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스캔 거리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Minimum QR code size=Scanning distance/10

QR 코드와 장서 점검자의 거리를 50mm라고 한다면 최소 사이즈의 QR 코드는 가로, 세로가 5mm가 되어야 한다.

50mm/10=5mm

그러나 QR 코드를 제작할 때 데이터의 정보량이나 복원율 등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알 수 없어 무작정 크기를 5mm로 맞출 수는 없다. 따라서 코드의 실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cell 크기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20) Flair Korea(플레어 코리아) [발행년불명]. QR code. 출처: http://flairkorea.com/board_data/cms/1382688042_79793_1
21) Flair Korea(플레어 코리아) [발행년불명]. QR code. 출처: http://flairkorea.com/board_data/cms/1382688042_79793_1

7. 프린터 헤드 밀도와 셀 크기[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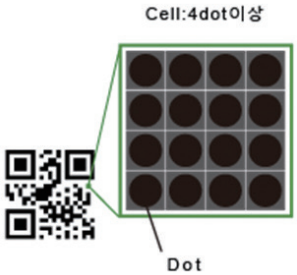


표 5. 프린터 헤드 밀도와 cell 크기

프린터와 cell 크기				
프린터	dot밀도	4dot	5dot	6dot
레이저	600dpi(24dot/mm)	0.17mm	0.21mm	0.25mm
	360dpi(14dot/mm)	0.28mm	0.35mm	0.42mm
열전사/thermal	300dpi(12dot/mm)	0.33mm	0.42mm	0.5mm
	200dpi(8dot/mm)	0.5mm	0.63mm	0.75mm

※ dot: 점을 말함.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 단위. 프린터/이미지 스캐너 등의 경우 1인치당 표현 단위 "dpi: dots per inch: dots/inch"로 표현된다.

※ 일반 열전사/direct thermal printer에서는 cell 크기는 프린터 헤드의 dot 수에 따라 결정된다.

DENSO WAVE[23)]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4dot/1cell 이상으로 인쇄할 것을 권장한다. cell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레이저 프린터의 해상도를 300dpi 정도라고 가정하면 각 cell의 크기는 약 0.5mm 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8. 스캐너로 인식 가능한 셀 크기[24)]

스캐너는 인식 가능한 cell 크기에 한계가 있다. 스캐너 '해상도(분해능)'는 이 인식 한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위의 표와 같이 600dpi 프린터 4점으로 인쇄하면 cell 크기 0.17mm의 QR 코드이지만, 이 QR 코드를 인식하려면 스캐너 해상도가 0.17mm 보다 작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인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헤드 밀도가 높은 프린터를 이용하여 작게 인쇄하면, 스캐너 인식 한계를 넘게 되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스캐너 도입 시에는 채용할 스캐너도 함께 고려하여 cell 크기를 설정한다.

22) DENSO WAVE(덴소 웨이브) [발행년불명]. 셀 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포인트. 출처: https://www.qrcode.com/ko/howto/cell.html

23) QR 코드를 개발한 기업명.

24) DENSO WAVE(덴소 웨이브) [발행년불명]. 셀 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포인트. 출처: https://www.qrcode.com/ko/howto/cell.html

9. 셀 크기 구하는 방법[25]

가. 버전(셀 수) 결정

데이터 용량·문자 종류, 오류 정정 레벨로 버전을 결정한다.

나. 셀 사이즈 결정

프린터의 해상도, 스캐너의 성능을 고려하여 셀 사이즈를 결정한다.

다. 셀 크기 확정

셀 수와 셀 사이즈를 곱하면 QR 코드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확보해야 하는 인쇄 공간을 계산할 때 여기에 콰이어트 존을 더한다. 모델 1, 2에서 4셀, 마이크로 QR에서 2셀이 필요하다.

표 6. 셀 크기 구하는 방법

버전(셀 수) 결정
↓
셀 크기 결정
↓
셀 크기 확정

10. QR 코드의 적용[26]

QR 코드의 실측법은 버전이 정해진 cell(QR 코드를 구성하는 하나의 사각형 영역)을 몇 mm로 인쇄할지에 따라 결정한다. cell이 클수록 QR 코드는 스캐너에서 안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코드가 커지기 때문에 인쇄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쇄 영역 안에서 가능한 한 크게 인쇄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QR 코드는 도서 등록번호 6자리 숫자를 수록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작고 안정적인 스캔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해 각 현장에서는 QR 코드의 추가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25)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QR 코드란 무엇입니까?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_2d/qr/

26) DENSO WAVE(덴소 웨이브) [발행년불명]. 셀 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포인트. 출처: https://www.qrcode.com/ko/howto/cell.html

그림 14. QR 코드의 cell 크기

Ⅴ 발상의 전환(2)–'5mm의 혁신' QR 청구기호 라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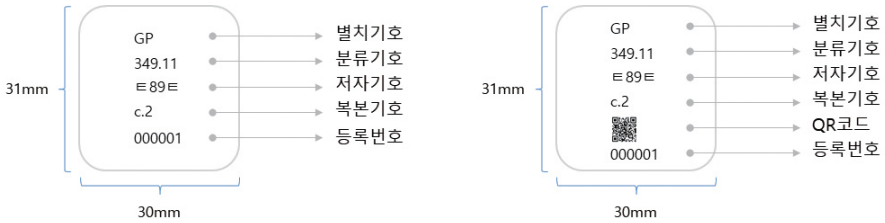
2차원 코드는 동일한 데이터가 포함된 바코드 크기의 최대 1/30로 축소할 수 있다.[27]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기호 문단 간격을 줄이고 6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도서 등록번호를 QR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청구기호 라벨의 줄 간격을 조정하고 남는 여백이 7~8mm 정도가 되었다. 앞서 확인한 QR 코드의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스캔 거리, cell 크기, 스캐너 성능 등을 고려하고 QR 코드가 들어갈 자리의 위아래 여백까지 생각하면 5~6mm 정도 크기가 적당했다.

몇 가지 크기로 청구기호 라벨 샘플을 만들어 스캔해보았다. QR 코드에 수록되는 도서 등록번호 정보량이 적어서(6자리 숫자) 5~6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인쇄해도 스캐너로 인식이 잘되었다. 미리 정해진 여백에 맞도록 샘플 테스트를 진행해 개발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앞에서 확인해본 QR 코드의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스캔 거리 공식을 적용하면 최소 5mm 크기의 QR 코드까지 가능했다.

드디어 새로운 청구기호 라벨이 개발되었다. 기존 라벨 인쇄 방식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가로 5mm, 세로 5mm의 QR 코드만 삽입하여 새로운 형식의 청구기호 라벨을 개발했다.

27)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2차원 코드란 무엇입니까?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_2d/intro/



전통적인 청구기호 라벨　　QR 코드를 사용한 청구기호 라벨

그림 15. 전통적인 청구기호 라벨과 QR 코드를 사용한 청구기호 라벨

1. 한림성심대학교 도서관 라벨 출력용 프린터와 QR 코드 cell 크기

표 7. 프린터와 QR 코드 cell 크기

프린터	dot밀도	5dot	QR code
레이저 (Canon IR-3730)	600dpi (24dot/mm)	0.21mm	5mm 5mm

【 프린터 사양을 고려한 최종 QR 코드 크기: 24dot×0.21mm=5.04mm≒5mm 】

2. QR 청구기호 라벨을 이용한 장서 점검

그림 16. QR 청구기호 라벨 장서 점검

3. QR 청구기호 라벨의 장단점

표 8. QR 청구기호 라벨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책을 빼지 않고 장서 점검: 시간과 비용 절감 • 작업 시간과 경비 절감 효과: 바코드 라벨 미부착	• 기존 청구기호 재부착 작업 필요

4. 책등 QR 청구기호 라벨 부착 장서 관리 업무 처리 속도

표 9. 책등 바코드 라벨 부착 방식 장서 관리 업무 처리 속도

작업	작업 내용	소요시간(초)
라벨 부착	1. 책등: 청구기호 라벨 부착, 보호필름 부착	15 이하
장서 점검	QR 코드 연속 스캔	0.5 이하

5. QR 코드 적용 시 주의사항

가. 일정 수량만큼 출력하여 인쇄된 용지를 직접 책에 붙여 판독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인쇄된 라벨지를 평면으로 스캔하여 인식돼도 실제 책에 붙였을 때 책등의 폭과 상태 등에 따라 판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책에 부착하여 확인한다.

나. 프린터 해상도를 확인한다. 우리 도서관의 경우 600dpi 해상도로 출력하고 있다. QR 코드 Ver.1의 경우 반드시 300dpi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레이저프린터에서 출력하기를 권장한다.

다. QR 코드 인쇄 프로그램에서 코드의 가로, 세로 비율은 1:1이 바람직하다. 정사각형으로 인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약 1~2% 비율 정도 오차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 일반적으로 투명한 필름에 인쇄된 QR 코드는 판독하기 힘들다.[28] 그러나 일반 종이 라벨에 인쇄한 후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벨 보호용 투명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에서는 판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29]

28) Flair Korea(플레어 코리아) [발행년불명]. QR code. 출처: http://flairkorea.com/board_data/cms/1382688042_79793_1

29) 10만 권을 기준으로 판독 오류 0건(판독 오류 기준: 오염되지 않은 QR 코드가 투명 스티커의 방해를 받아서 판독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

Ⅵ 측정 결과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 - Peter Drucker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 피터 드러커

측정 결과 바코드 세로형[30] 장서 점검 속도가 바코드 가로형에 비해 57% 빠르고 뒤이어 QR 코드 장서 점검 방식은 52%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장서 점검 속도 측정표

5회 평균(분)

작업자	바코드 가로형	바코드 세로형	QR 코드
A	28.3	13.0	13.5
B	39.3	13.3	17.2
C	27.4	13.1	13.3
D	31.0	16.1	16.2
E	24.5	9.4	11.5
평균	30.1	12.9	14.3
비교	–	57%	52%

측정 결과 예상과 달리 바코드 세로형 방식이 QR 코드 방식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6단 6열 서가 기준으로 1분 30초 정도 빠르다. 바코드 세로형의 점검 속도는 의외로 대단한 결과를 보였다. 바코드 라벨의 넓은 폭, 이에 따른 스캔 작업의 용이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전체 장서 관리와 점검을 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로 표현되려면 장서 점검 전에 해야 할 라벨 부착 작업을 모두 고려하여 '일'이라는 공통된 단위로 환산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아래는 이를 측정하는 식과 유형별로 환산한 표이다.

스캔(sec: 일의 양)×라벨 작업(작업 수: 일 양)=일이 수월한 정도(낮을수록 좋다)
6단 6열 장서 수 1,000권 1장의 라벨 작업에 걸리는 시간 약 15초
예시) 1,000권×(15초×라벨 수) : 1,000×15×2=8시간

30) 책등에 바코드를 세로로 부착한 형태.

표 11. 유형별 환산표

구분	바코드 가로형			바코드 세로형			QR 코드		
작업	스캔	라벨	값	스캔	라벨	값	스캔	라벨	값
값	30.1	2	60.2	12.9	2	25.9	14.3	1	14.3
개선 정도		–			56.9% ↑			76% ↑	

그 결과 단일 라벨을 사용하는 QR 코드 사용 방식이 14.3의 값을 얻어서 기존 방식보다 약 76%나 일 처리 방식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서 점검 시간만 고려할 때는 바코드 세로형 방식이 빠르다. 그러나 바코드를 세로로 부착하는 것은 기존 라벨 부착 업무시간과 같은 시간이 필요하고 책등을 절반 이상 가리게 되어 서가의 전체 모습이 라벨로 나열된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단일 라벨을 사용하는 QR 코드 사용 방식은 더욱 세련되고 단순한 모습과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한 대단히 만족스러운 운영방식이다. 우리 도서관은 이제 더는 책에 바코드를 붙이지 않는다.

표 12. 단순 장서 점검 속도 비교표

tP(time Pessimistic): 작업자 처리 속도 중 제일 느린 시간(작업 편차 고려)

구분	tP(sec)	시간(hr)	하루(6hr)	일주(w)	개선 정도[31]
바코드 가로형	39.3	98.3	16.4	3.3	–
바코드 세로형	16.1	40.3	6.7	1.3	2.4
QR 코드	17.2	43.0	7.2	1.4	2.2

QR 코드 라벨 운영방식의 장점
• 장서 점검 시간 2배 이상 단축 • 바코드 라벨 부착 업무 불필요, 비용 및 업무시간 단축 • 별도 시스템 또는 장비 변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업무 개선 방안

31) 바코드 가로형 대비 점검 속도가 빠른 정도를 나타낸다. (배수) 바코드 세로형

Ⅶ 결론

이 사례는 장서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기호에 QR 코드를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장서 점검을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책등에 등록번호 바코드를 세로로 붙이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QR 코드를 포함한 청구기호 라벨을 개발하게 되었다.

QR 코드는 많은 정보를 하나의 코드로 압축하고, 작게 만들 수 있으며, 오염·손상에 강하고, 일정 부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에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수준의 해상도가 보장된다면, 대부분 도서관에서 보유한 일반 프린터로 쉽게 인쇄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편리한 장서 관리 방안이다. 다만, 기존에 바코드 전용 리더기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필요하고 장서 관리 라벨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우리 대학은 장서 수가 비교적 적은 도서관이라서 장서 점검 업무와 QR 코드 라벨 변경 작업을 같이 진행하였다. 장서 수가 많은 도서관의 경우 신규 도서부터 적용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추가 과제로, 현재 적용한 QR 코드 모델 1의 장서 점검 속도를 바코드 세로형 방식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 QR 코드 크기를 확대[32]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QR 코드 모델 2[33] 방식의 특징을 이용하여 책등에 라벨을 부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책의 곡면이나 각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개량형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QR 코드를 이용한 장서 관리 업무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서가에서 책을 빼지 않고도 각종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관점의 QR 코드 운영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처럼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QR 코드가 우리가 일하는 도서관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많은 사례가 발굴되어 서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표준화한다면, 요즘 우리나라 경쟁력을 대변하는 'K-POP', 'K-문화', 'K-방역'처럼 한국형 혁신사례가 반영된 도서관 업무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꿈꿔본다.

32) QR 코드의 크기가 클수록 인식 속도는 높아진다.

33) QR 코드 모델 2는 코드가 일그러진 경우에도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모델 1을 개량한 코드.

Ⅷ 후기

"The world as we have created it is a process of our thinking. It cannot be changed without changing our thinking." - Albert Einstein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 생각의 과정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도서관은 일 자체의 특성 때문에 업무 개선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먼 부서로 취급되어 왔다. 사실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 도서관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떤 조직 내에서 다른 부서보다 업무 개선과 같은 효율적인 업무와는 멀게 느껴지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다. 늘 하던 업무가 반복되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업무를 하고 나면 뭘 개선해야 할지, 어떤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성과를 만들어 낼지 막막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올 초부터 대학이 더 노력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이와 함께 대학 내 각 부서는 각자 맡은 업무를 개선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도서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개선하고 혁신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부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상반기에 개선 노력을 많이 하였고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 그중 우리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사례는 돌이켜보면 애초에 혁신과 같은 큰 화두를 염두에 두고 시도한 일은 아니다. 많은 시간 의심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우연한 기회에 발아되기 좋은 조건을 만나서 싹을 틔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혁신의 좋은 조건은 관련 지식과 생각이 쌓이고 주변의 자기 업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될 때 문득 찾아올 수도 있는 반가운 손님 같은 것이 아닐까?

"혁신은 늘 새로운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항상 실행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개선의 노력을 의미한다. 갖추고 있는 기술을 다양한 곳에 적용을 시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응용 발전시키는 것이 혁신이다."[34]

보는 이에 따라서는 별것 아닌 사례일 수 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례일 수 있다. 다만 업무가 평소보다 개선되었고 우리 도서관 구성원 모두는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도서관의 경험을 공유한다. 도서관 업무도 주의 깊게 잘 살피면 개선하고 나아가서 혁신할 수 있는 과제가 많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도서관도 혁신하는 곳이다!

34) 손삼수 (2018. 6. 3.). [전문가 기고] 혁신이란 무엇인가. 출처: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36482

참고문헌

구중억 (2010). 국내 도서관에서 바코드와 RFID를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309–33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공공도서관 장서관리매뉴얼.

박옥남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사서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85–311.

박은지 (2013). 사례 분석을 통한 QR 코드의 활용 방안 연구: 물류·유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9(4). 247–264.

박진희 (2012). QR코드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21–347.

홍덕용 (2018).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서의 QR 코드 도입사례와 이용만족도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145–163.

DENSO WAVE(덴소 웨이브) [발행년불명]. 셀 크기를 설정하기 위한 포인트. 출처: https://www.qrcode.com/ko/howto/cell.html

DENSO WAVE(덴소 웨이브) [발행년불명]. QR코드란? 출처: https://www.qrcode.com/ko/about/

Flair Korea(플레어 코리아) [발행년불명]. QR code. 출처: http://flairkorea.com/board_data/cms/1382688042_79793_1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2차원 코드란 무엇입니까?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_2d/intro/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바코드의 기본.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mechanism/

KEYENCE(키엔스코리아) [발행년불명]. QR코드란 무엇입니까? 출처: https://www.keyence.co.kr/ss/products/auto_id/barcode_lecture/basic_2d/qr/

Xinyetong Technology CO [발행년불명]. RFID VS 바코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게 더 좋아? 출처: https://www.asiarfid.com/ko/rfid-vs-barcode.html

부록 사례에서 사용된 장비 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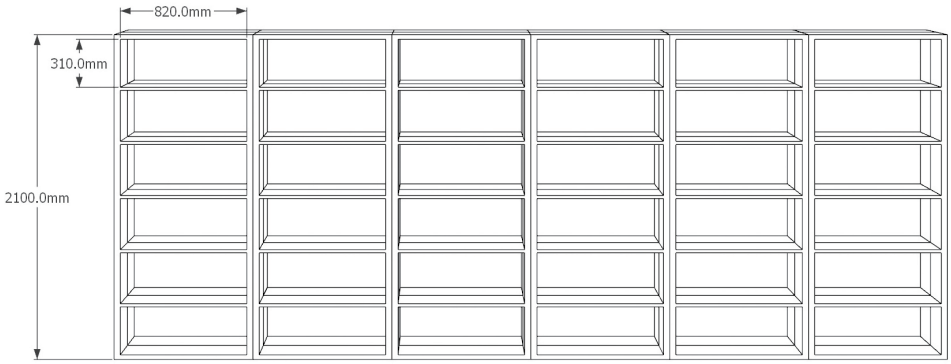
1. 2차원 바코드(QR 코드) 스캐너 사양

스캔 성능		스캔 거리	
센서	640×480 CMOS	EAN-13	50mm-200mm(13mil)
조명	white light LED	Code39	40mm-90mm(5mil 10bytes)
포커스	red light LED	QR code	25mm-240mm(20mil[35] 16bytes)
밀도	〉5mil	Data Matrix	50mm-90mm(10mil 20bytes)
대비	〉20%	PDF 417	30mm-130mm(6.67mil 7bytes)

2. 라벨 출력용 프린터 사양

구분	사양
제품 이름	Canon Generic Plus UFR Ⅱ
메모리	3GB
해상도	600dpi(1,200dpi)
속도	30ppm

3. 6단 6열 서가(측정 시 기준으로 사용된 서가)



35) mil은 1/1000inch이다. 1inch는 25.4mm이고 1mil은 25.4/1000mm이다.

04

현장사례
장려상

언택트 시대에 도서관 살아남기

군포시도서관 주제특화와 온라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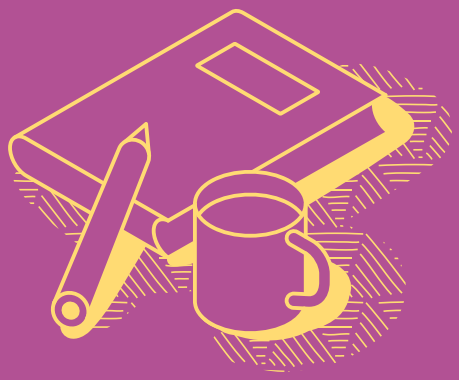
이은진 · 정세선 · 박세헌
군포시 특화사업과

Ⅰ. 도서관 특화사업 87

Ⅱ. 군포시 도서관 특화사업 90

Ⅲ. 향후 계획 101

Ⅳ. 마치며 102



요약문

Ⅰ. 목적

☑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를 도서관의 특화주제로 재설정하고 관련 지식정보를 중점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Ⅱ. 추진방향

☑ 시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특화주제 재설정

☑ 집 안에 고립된 시민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

☑ 홍보 강화로 대내외적인 특화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Ⅲ. 특화주제

도서관	주제	내용
당동도서관	노후준비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 등
대야도서관	도시농업	베란다 텃밭, 홈 가드닝, 플랜테리어
부곡도서관	함께육아	집콕시대 육아, 아이 맞춤형 육아법

Ⅳ. 사업내용

주요 사업	사업내용
비대면 프로그램	• 유튜브 강의: 40편 제작, 2,300명 구독, 160,000회 조회 • ZOOM 강의: 11개 강의, 71회 운영, 765명 참여
SNS 운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팔로워 1,800명 • 카드뉴스 등 홍보물 170건, 628컷 제작 및 게시
온라인 시민참여 이벤트	• "나에게 남은 시간이 단 6개월이라면" 등 15개 이벤트
특화 도서 코너	• (당동)노후준비, (대야)도시농업, (부곡)함께육아
도서관 이용률 ⬆	• 도서대출 72%, 대출자 61%, 이용자 84%, 프로그램 2100% (2020년 대비 2021 증감률)

Ⅰ 도서관 특화사업

1. 도서관 특화사업이란

특화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특별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실생활에서 수혜받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서관 특화는 활성화가 요구되는 분야의 자료구축과 프로그램 등 지식정보 서비스 비중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포시는 모두 6개 시립도서관을 운영한다. 정책 수립의 중심 역할인 중앙도서관, 지역 접근성이 가장 높은 산본도서관, 어린이를 전문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산본 신도시에 있어 기본적 접근성이 확보된 상태이다. 이 외에 외곽의 분관 형태로 위치한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이 있으며 이 세 도서관이 이번 특화사업의 대상이다.

2. 추진배경

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한 해 동안 3차례 휴관(약 120일)이 이루어졌고, 개관 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공포심으로 도서관은 한산했다. 2020년 운영실적은 2019년에 비해 참담한 수준이었다. 도서관 운영에서 방향 전환이 시급하였다. 시민이 오지 못하면 도서관이 찾아가야 한다.

표 1. 군포시 도서관 2019년 대비 2020년 이용률

구분	도서대출	대출자	이용자 수
감소율	– 43%	– 42%	– 74%

특화 추진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기존에 도서관별 특화주제는 있었으나 추진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시대와 상황에 맞는 더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반영된 새로운 주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생활의 필요가 충족되고 가시적인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자료제공 및 지식 충전이라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줘야 했다.

표 2. 기존 도서관별 특화주제 현황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다문화	천문우주	가족행복

3. 추진방향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잡았다.

가. 시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특화주제 설정

나. 집 안에 고립된 시민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

다. 홍보 강화로 대내외적인 특화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주제 설정

국민적 관심 키워드를 참고하되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지내며 관계 단절로 우울증을 겪는 사회 분위기(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고, 향후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민공동체를 만들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주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최근 2년 동안 상위권 키워드

- 대형서점: 나(나를 위한 삶), 돈(부자, 주식, 재테크), 집(집콕 라이프) 등
- 포털 사이트: 독서, 투자, 가족, 유튜브, 구글 등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선정기준

- 시민들의 관심사 반영
- 실용 지식을 제공해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
- 시민들과 소통 활성화

이러한 기준으로 도서관특화팀과 3개 도서관이 매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선정하였다.

표 3. 2021년 도서관별 특화주제 선정 현황

도서관명	특화주제		내용
	기존	변경	
당동 도서관	다문화	노후준비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오팔세대'(58년생)의 다양한 수요(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 등)를 비롯하여 노후 준비에 적극적인 젊은 층을 포용하는 폭넓은 콘텐츠 제공
대야 도서관	천문우주	도시농업	도시농업은 인간 중심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 베란다 텃밭, 홈가드닝, 플랜테리어 등 도심 속 자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부곡 도서관	가족행복	함께육아	아이 키우기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로, 집콕 시대 아이별 맞춤형 육아법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형 시간제 돌봄을 병행

4. 추진경과

군포시 6개 시립도서관은 군포시민이라는 동일 대상에게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앙도서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중시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포시에서는 분관 서열에 있는 3개 도서관을 분리하고 도서관특화팀을 만들어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며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표 4. 2021년 도서관별 특화사업 월별 진행 상황

월	주요 내용	비고
1월	조직 개편 주제 설정 특화 계획 수립	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억 원.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비상상황에서 독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시장님과 시의원, 예산담당자를 일일이 만나 설득하여 어렵사리 사업비를 1회 추경에 수립 그러나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 예산을 협조 받아 2월부터 착수, 3월에 사업 개시
2월	동영상 강의 제작 SNS 개시(인스타그램, 페이스북)	
3월	동영상 유튜브 게시 ZOOM 프로그램 실시 특화도서 코너 운영	
4월	1회 추경예산 수립 동영상 제작 입찰	
5월	매월 동영상 제작 및 홍보	

5. 문제점 및 극복과정

특화는 도서관 활성화이기 때문에 도서관특화팀과 해당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사업대상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마치 정해진 파이를 경쟁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조직 간의 역할과 사업대상이 사전에 분명히 구분 조율되어야 했다.

표 5. 2021년 도서관별 특화사업 업무 역할 분담

도서관명	도서관특화팀	당동·대야·부곡도서관팀
사업대상	희망자 모두	관내 주민
담당업무	• 총괄 계획 수립 • 유튜브 강연 제작 및 운영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 온라인 시민참여 이벤트 진행 • 대내외적 홍보 강화	• 특화 정기 프로그램 운영 • 특화 도서 전용 코너 운영 • 특화 관련 시설 운영

또 한 가지, 특화의 목적이 도서관 활성화와 도서관 홍보라는 점에서

- 도서관특화팀 제작 동영상과 홍보물은 각 도서관 이름으로 배포되어야 했다.
- 그러기 위해선 도서관특화팀원들의 이름 없는 노고가 전제되어야 했다.

Ⅱ 군포시 도서관 특화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1년 3월부터 연중 운영

나. 사업대상: 희망자 누구나(전 국민 대상)

– 기존처럼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코로나19로 대면이 불가한 상황에서 도서관 활성화는 불가하였다.

다. 사업방법: 온라인(유튜브, 줌/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 강의는 유튜브에 상시 게시하고, 소통은 SNS를 활용하고 있다.

라. 사업실적

표 6. 2021년 도서관별 특화사업 주요 실적 현황(2021. 3.~2021. 7.)

주요 사업	사업내용
비대면 프로그램	• 유튜브 강의: 40편 제작, 2,300명 구독, 160,000회 조회 • ZOOM 강의: 11개 강의, 71회 운영, 765명 참여
SNS 운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팔로워 1,800명 • 카드뉴스 등 홍보물 170건, 628컷 제작 및 게시
온라인 시민참여 이벤트	• "나에게 남은 시간이 단 6개월이라면" 등 15회 운영
특화 도서 코너	• 당동·대야·부곡도서관
도서관 이용률	• 도서대출 72%, 대출자 수 61%, 이용자 수 84% 증가 (2020년 1~7월 대비 2021년 1~7월 현황)

* 유튜브 URL https://www.youtube.com/gunpolibrary
* 인스타그램 URL https://www.instagram.com/gunpolibrary/
* 페이스북 URL https://www.facebook.com/gunpolibrary/

마. 사업비

– 102,800천 원(1회 추경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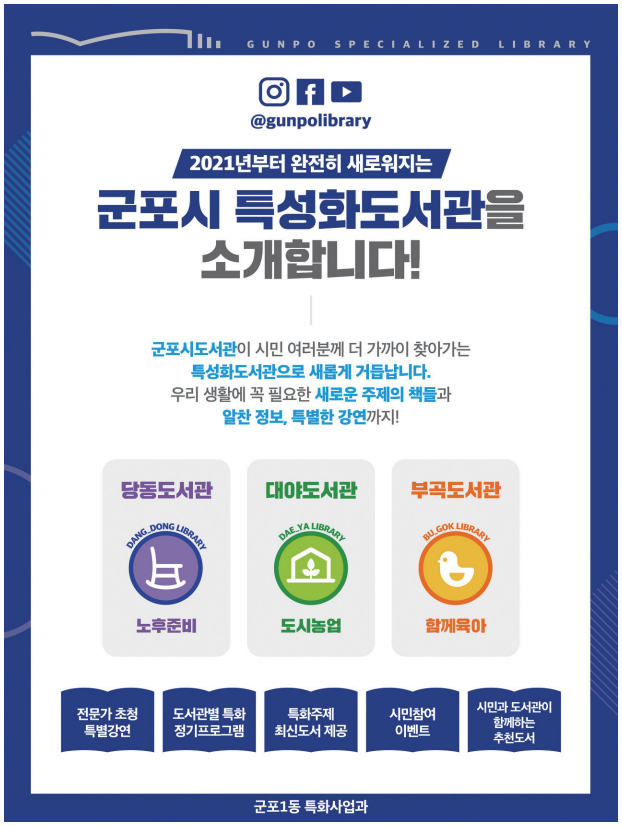


그림 1. 군포시 특화사업 포스터

2. 주요 사업 1: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도서관/주제별)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선 다음 요소가 필요하다.

가. 유튜브 운영: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매체로 적합

나. 전문강사 섭외: 강의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인지도 높은 강사 섭외

다. 저작권 소유: 강의 영상 저작권을 군포시도서관이 소유

- 유튜브에 상시 게시되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
- 정보자원의 효율성 도모

라. 영상제작: 매월 주제별, 10편의 강의 제작(전문업체에 발주, 고품질의 영상 제작)

이 덕분에 3월부터 제공된 40편의 강의 조회수가 160만 회(구독자 수 2,300명)에 달하고, 관련 도서가 도서관에서 대출 및 예약되는 등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사와 시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Zoom 강의를 도서관에서 운영 중이다.

그림 2. 군포시도서관 유튜브 메인화면

당동 노후준비

■ 유튜브 특강: 15편 제작/145,000회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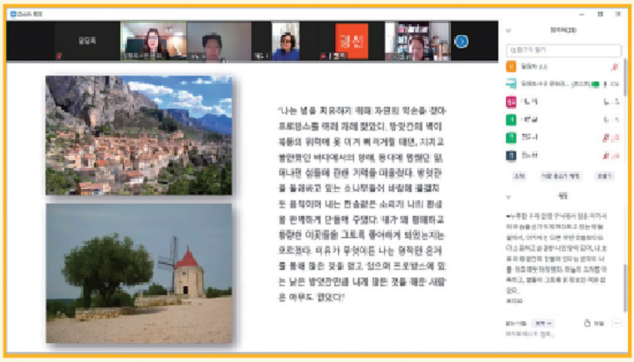
강의게시일	강의명	강사	제작
2021. 3.~	100세 인생, 행복한 자산관리	이영주	5편
2021. 5.~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	강창희	5편
2021. 6.~	자산수명 늘리기	김경록	5편

YouTube

자산수명 늘리기

■ 실시간 줌(ZOOM) 특강: 2개 강의 16회 운영/180명 참여

강의기간	강의명	대상	횟수
3. 19.~5. 21.	마음으로 만나는 요가	성인	10
3. 31.~5. 12.	연표로 돌아보는 처음	성인	6



zoom

연표로 돌아보는 처음

대야 도시농업

■ 유튜브 특강: 20편 제작/6,500회 조회

강의게시일	강의명	강사	제작
2021. 3.~	식물이 아프면 찾아오세요	김강호	5편
2021. 4.~	반려 식물 인테리어	송현희	5편
2021. 6.~	꽃과 정원의 문화사	박원순	5편
2021. 7.~	요리하는 도시농부	박선홍	5편

YouTube

요리하는 도시농부

■ 실시간 줌(ZOOM) 특강: 6개 강의 41회 운영/425명 참여

강의기간	강의명	대상	횟수
3. 8.~5. 24.	그림책 자연학교	6~7세&보호자	12
3. 11.~5. 13.	에버그린 하브루타	초등3~4	10
3. 16. / 4. 13. / 5. 18. / 6. 15.	다독다독 그림책	6세~초등	4
3. 20.~4. 24.	나의 그린하우스	성인	6
4. 27.~5. 25.	별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농부생활	성인	5
6. 15.~7. 6.	그린텃밭레시피	성인	4

zoom

다독다독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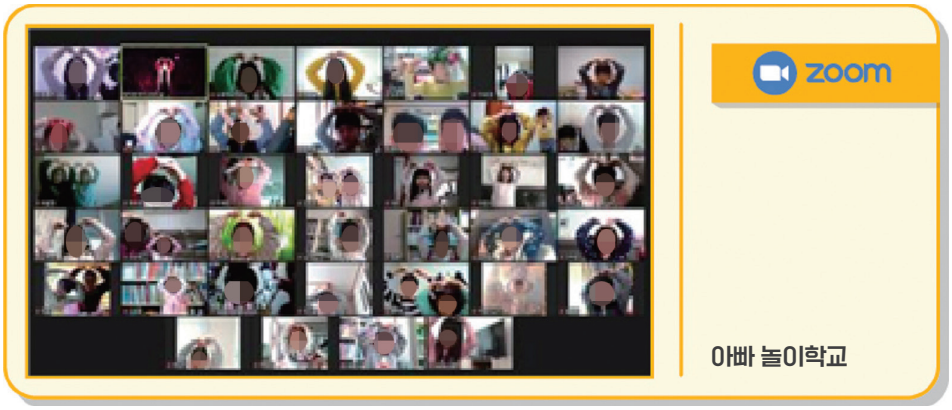
부곡 함께육아

■ 유튜브 특강: 5편 제작

강의게시일	강의명	강사	제작
2021. 8. 12.~	슬기로운 초등 부모 생활	이은경	5편

■ 실시간 줌(ZOOM) 특강: 3개 강의 14회 운영/160명 참여

강의기간	강의명	대상	횟수
3. 16.~5. 18.	그림책 감정코칭	성인	10회
4. 10. / 5. 8. / 6. 5.	아빠 놀이학교	아빠, 자녀(5~8세)	3회
4. 15.	엄마의 말공부	성인	1회



3. 주요 사업 2: SNS 등 다양한 매체 홍보

- 전담 인력 배치
- 예산 40,000천 원 투자
- 12가지 이상의 홍보 매체 활용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홍보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도서관에는 시민 개인의 학습 또는 교과 성적 향상, 여가 생활 등 각자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 덕분에 기본적인 이용률이 확보되었다. 그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아직도 도서관이 휴관 중으로 알고 있거나 운영 여부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변해야 했다. 도서관 특화팀 내에 홍보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했다. 전무하다시피 한 홍보예산을 40,000천 원 배정하였고 활용 가능한 매체 12가지를 동원하여 대내외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다. 홍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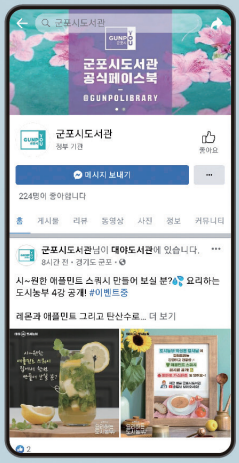
- 특화 동영상 강의
- 온라인 시민참여 이벤트
- 도서 및 영화 추천
- 특화 관련 생활정보
- 오늘의 명언
- 도서관별 문화프로그램 홍보

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개시 5개월 만에 SNS 팔로우 1,800명 확보
- 홍보물 170건 628컷 제작 및 게시
- 시민 의견에 일일이 댓글을 달며 소통 중

인스타그램

도서관 밖에서도, 군포시 밖에서도 특화주제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고 도서관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적합하였다.



페이스북

홍보담당자는 게시물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댓글을 달아주고, 맞팔로잉으로 화답하는 등 방문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들여 개시 5개월 만에 1,800 팔로우로 연결됐다.

나. 다양한 홍보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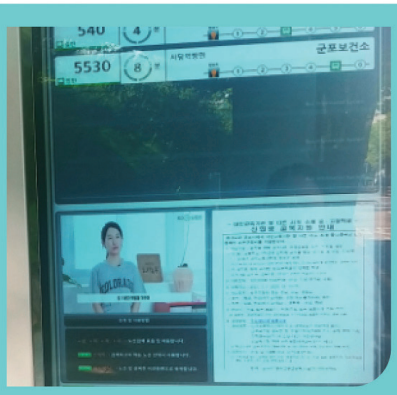
시민들의 접근 경로가 다양한 만큼 모든 홍보 방법을 동원하여 매회 활용하고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카드 뉴스로 특별강연 홍보
현수막	도서관 건물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시가에 게시
언론보도	기사자료로 만들어 신문과 인터넷 뉴스로 보도
홈페이지/블로그	군포시청, 군포시도서관, 군포시 블로그에 게시
BIS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홍보
마을버스TV	마을버스 내부 TV를 통해 특화 강연 홍보
통장 회의자료	군포시 354개의 통장회의에 배부되는 자료로 배포
아파트 게시판	공동주택(아파트) 154개 단지 923개 동 건물 게시판 활용
동주민센터 게시판	관내 12개 동주민센터 게시판 활용
도로안내 전자게시판	차량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전자게시판 활용

언론보도

시 홈페이지

현수막



BIS

4. 주요 사업 3: 온라인 시민참여 이벤트 운영

도서관과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 소통의 장
담당 직원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즐겁게 작업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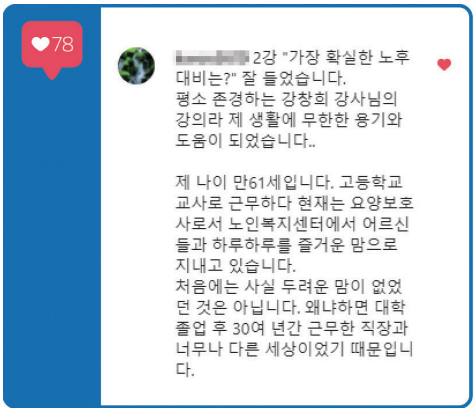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도서관의 일방적인 정보제공과 외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참여 행사를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홍보담당자가 시민들의 참여 작품을 선별하고 재편집하여 SNS에 게시하면,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격려와 공감의 글을 나누고 있다. 시민에게는 개인의 성취감과 자기표현 욕구 충족 및 적극적 행사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도서관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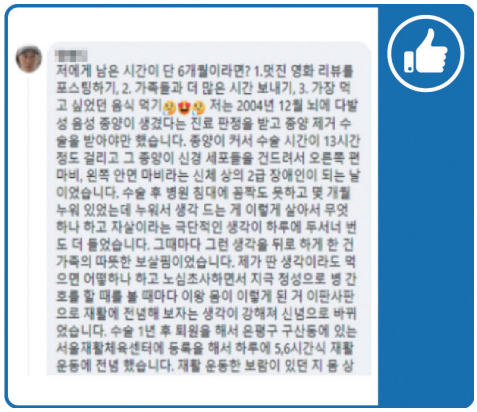
노후준비	• 나에게 남은 시간이 단 6개월이라면? • 시민들과 함께 읽고픈 이달의 책 추천하기 • 수강 인증과 소감 댓글 달기 •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게시하기 등
도시농업	• 나만의 자연밥상 뽐내기 • 당신이 추천하는 자연힐링 영화 & 책은? • 요리하는 도시농부 박선홍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 질문해주세요 • 우리 집 반려식물을 소개합니다 • 반려식물 & 토피어리 만들기 참여자 작품 게시
함께육아	• 질문해주세요! 10대 사춘기 자녀에 관한 고민 • 가족과 함께 보면 더 좋은 가족영화 또는 책 추천하기 •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게시하기 등 • 수강 인증과 소감 댓글 달기

■ 참여이벤트 '당신이 추천하는 자연 힐링 영화 & 책은?'

– 참여자 gachinessewe님 작품

■ 시민 공감 댓글





5. 주요 사업 4: 특화도서 코너 운영

도서관 종합자료실에 특화도서 서가를 설치하여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구축된 도서는 아래 표와 같으며, 매년 각 분야에 1,000권씩 신착 도서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면 해당 분야의 모든 자료를 섭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7. 도서관별 특화도서 구축 현황(2021. 7. 기준)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도서 수	2,950권	942권	1,286권

그림 3. 도서관별 특화도서 코너

Ⅲ 향후 계획

지식 습득 방법은 이미 전통적인 종이책에서 인터넷과 전자책, 전자저널, 영상자료 등 디지털자료로 대체되고 있고 도서관 시설 이용자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최근의 갑작스러운 이용률 저하의 원인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있지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과거의 생활 패턴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강제로 온라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정착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1. 더욱 발전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

20세기 저명한 도서관학자 랑가나단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했다. 도서관도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포시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2. 관계 맺기와 소속감을 부여하는 소모임 활성화

한편 관계 맺기라는 인간의 본능적 정서도 고려할 것이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집단에 소속되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도서관에서 지식과 정서 함양을 도모함으로써 좀 더 만족도 높은 군포시 도서관을 시민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Ⅳ 마치며

변화의 순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존 업무 패턴 그대로, 근로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일 8시간과 주40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변화의 목적이 생존이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변화에도 마찬가지다. 인사발령(2021. 1. 8.) 하루 전 통보받아 배치된 도서관특화팀 직원들은 맡겨진 업무가 막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임무에 집중해야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새로운 운영방식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테스트하며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이어졌다. 집밥이 그리워 정시에 퇴근하는 날에는 집 안을 청소하거나 자녀를 돌보면서 또는 TV를 시청하면서도 '특화'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다. 고달픔을 토로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했고 다음 날에는 더 나은 제안을 팀장에게 가져와서 업무에 욕심을 냈다.

사업 초반, 도서관 특화 담당자들은 특화라는 추상적 단어에 겁을 냈다. 그럴만한 것이 분관의 인력은 시설 운영·유지만으로도 버거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같은 직렬로 모르는 바 아니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업무를 분명히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 도서관은 나름의 고민을 거쳐 특화의 모습을 키워나갔다.

합심하여 달려온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유튜브 조회수가 늘고 SNS에서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우리가 스케치했던 그림에 색깔이 덧입혀지는 중이다. 어렴풋한 가능성에 믿음과 기다림으로 서로 격려하며 일궈낸 군포시 특화담당자들에게 그리고 특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행정적 뒷받침을 해준 주무팀 차석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을 지원해준 대야도서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붙임 1 당동·대야·부곡도서관 이용통계

■ 2021년도 운영실적 증가율

(2019. 1.~7., 2020. 1.~7., 2021. 1.~7. 기준)

	2020년 대비 증감	2019년 대비 증감
도서대출	+72%	–2%
대출자	+61%	–7%
이용자	+84%	–52%
프로그램	+2100%	+1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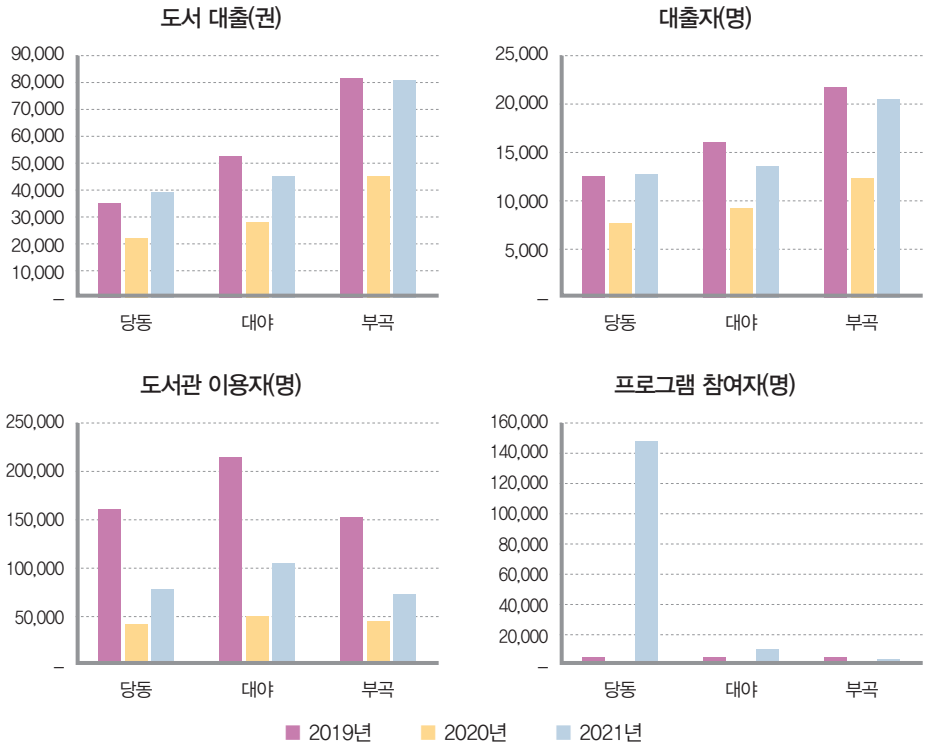
※ 시설 이용은 낮으나 콘텐츠 수요는 매우 높음

– 도서 대출과 대출자는 코로나19 이전 상황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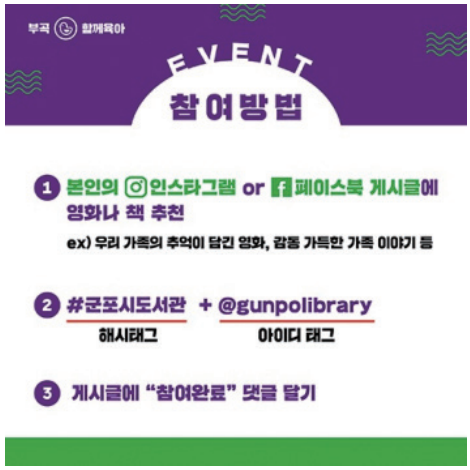
– 도서관 이용자(입관자)는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19년 대비 50% 정도에 그침

– 프로그램은 유튜브 운영으로 이전과 비교 불가한 결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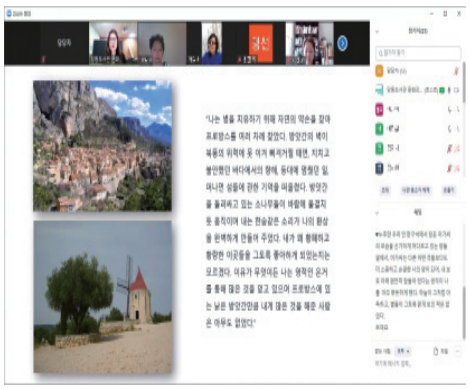
■ 2019~2021년 운영실적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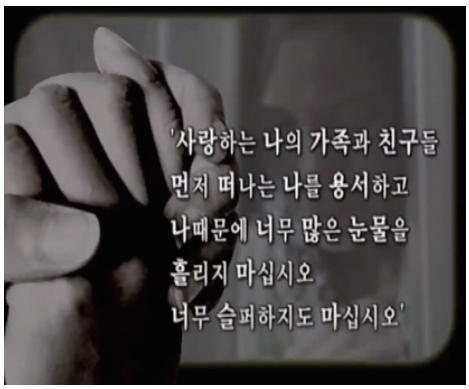
붙임 2 온라인 시민참여 이벤트 홍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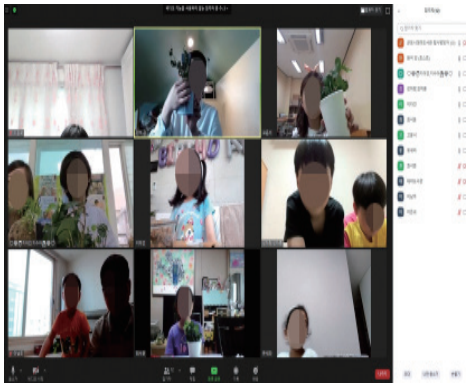
붙임 3 도서관 Zoom 프로그램 참여 사진



당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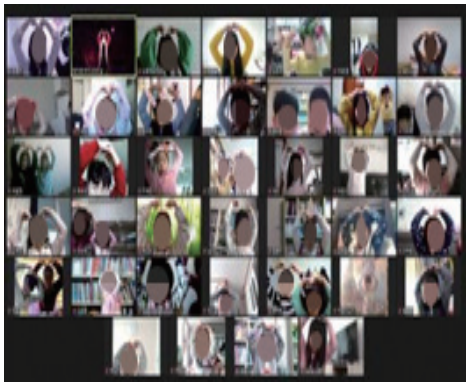


참여 작품



대야도서관

참여 작품



부곡도서관

참여 작품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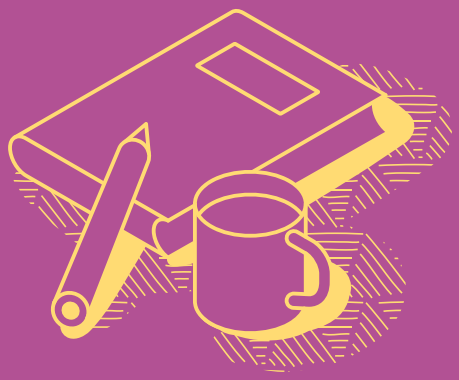
현장사례
장려상

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연구지원서비스 혁신 사례

중앙대학교 RSS를 중심으로 (Research Support Service)

유춘섭 · 박원석 · 현명섭 ·
최연주 · 유승우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Ⅰ. 서론 109
Ⅱ. RSS 도입 과정 110
Ⅲ. RSS 기능 소개 115
Ⅳ. RSS 도입 결과 123
Ⅴ. 결론 및 제언 125



요약문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은 '학술연구 극대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 역할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였다. 이에 각종 학술 DB의 활용 방안을 기획·가공·분석하여 다양한 시각화 방법으로 연구자에게 필요한 학술정보를 사서가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이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중앙대학교 연구지원서비스(Research Support Service, 이하 RSS)이다.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다양한 학술정보를 연구활동에 적극 공급하기 위해 RSS의 구성 요소로 my RSS(개인형 맞춤 연구지원서비스)와 my ART(연구트렌드분석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의 RSS 내용과 성과, 이후 개선점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RSS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my RSS: 연구자 전 생애 연구 프로파일 DB 구축

– 연구자 프로파일 DB 구축: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 DB 간 중복 논문 반자동 제외, 저자–연구자 매핑 작업

– 맞춤형 연구정보 제공: 논문 이외에 특허, 연구과제, 도서, 뉴스 정보 추천, 정확도 향상을 위해 3중 확인 절차, 분야별 담당사서 확인 작업 후 제공

2) my ART: 연구자 프로파일 DB와 전 세계 학술 DB 연계

– 연구 트렌드 분석: 연구성과의 실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연구자 게재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의 전 세계 동향, 주요 투고 저널, 공동 연구자 추천 등 향후 연구 활동 시 필요한 정보 제공

RSS의 이용률을 확인해보면 2021년 7개월간 11,792건의 사용량을 보인다. 최근 7월에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교원 업적시스템과 my RSS를 연동한 기능이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원들은 RSS가 연구활동에 매우 유용한 서비스임을 긍정하고, 연구활동 초창기에 해당 서비스가 있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등 호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개선 방향에 대한 피드백도 활발하게 접수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기류 속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학술정보 분석 업체인 Elsevier사, Clarivate사와 MOU를 체결하여 연구자 친화적 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공동개발 중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도서관은 타 대학도서관들과 사례 공유와 협업으로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더욱 다양하고 실전적인 서비스를 모색 중이며, 이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이 대학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학도서관계에 공유하고자 한다.

Ⅰ 서론

"대학도서관 역할의 기본을 회복하고, 혁신을 더한 연구지원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라는 용어는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보면 교육지원서비스와 함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연구지원'과 '서비스'로 용어를 분리하여 이면적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 관점에서의 '연구지원'이란, 연구자에게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전반적인 역할을 일컫는 용어이고, '서비스'는 이용자의 기대 수준을 넘어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이 있으며,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서가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소통해 학술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김순, 2019; 남영준, 김희선, 2012; 이용재, 이지욱, 2020). 대부분 간접적으로 학술정보 이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거나 일반 행정부서가 해야 할 연구성과분석업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라 칭할 수 있는 연구지원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실이라 볼 수 있다.

윤희윤(2021)의 『대학도서관경영론』 '제1장 경영환경의 이해-제2절 대학과 도서관의 관계-2.3 도서관의 업무와 기능-2.3.2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첫째, 대학도서관이 캠퍼스 지식정보서비스 구심체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교수학습 및 학술연구 극대화에 이바지하지 못하면 존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학술연구 극대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 역할이다. 대학의 사명이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대학의 기본 기구로서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사명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의 디지털 및 빅데이터 시대에 학술연구 극대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시하는 각종 학술 DB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기획·개발하고, 가공·분석하여 다양한 시각화 방법으로 연구자에게 필요한 학술정보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 즉, 적극적인 디지털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 활동이 대학도서관의 기본 역할이 되어야 한다.

학술정보의 디지털화는 편리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 개인이 활용하기에 데이터 크기가 상당하며,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학술정보의 정확한 검색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적이다(Feldman, 2004). 그런데도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를 디지털화한 이후 '학술 DB 구매 → 홈페이지 게시'라는 일반 행정(구매)부서의 역할과 다를 바 없는 비사서적이고

비전문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어 연구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혁신의 꽃은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야 피어날 수 있다.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은 사서들이 연구자와 직접 소통해 연구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구활동 극대화에 이바지할 연구지원서비스의 기본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다양한 학술정보를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1876년 하버드대학 엘리어트 총장이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라고 한 말을 실천하고자 'my ART(Analysis of Research Trend)'와 'my RSS'를 개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지원서비스(Research Support Service, 이하 RSS)를 시행하고 있다.

Ⅱ RSS 도입 과정

1. 개발 배경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실종의 끝자락에서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자"

1990년 초반부터 대학도서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전산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목록의 DB 구축을 통한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과 사무자동화가 주요 전산화 대상이었다. 도서관 전산화 이후 이용자들과 사서의 거리는 한층 더 멀어지게 되었다. OPAC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도서를 검색하고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참고서비스와 분류 및 편목만이 사서의 전문성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게 되었다.

1990년 후반부터 각종 학술정보가 디지털화되기 시작하였다. 마이크로피시, CD Server 등의 매체 변환을 거치면서 이용자들은 학술정보를 사서 중개 없이 직접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학술정보가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변화함에 따라 참고서비스라는 전문적 역할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다.

2005년 이후 학술정보 대부분을 웹 환경의 인터페이스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학도서관 사서는 학술 DB를 구매한 뒤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하는 역할로 후퇴하여 이용자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분류와 편목은 아웃소싱 또는 공동 목록으로 마지막 남은 전문적 역할마저도 잃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대학도서관은 학술 DB를 홈페이지에 게시만 해놓을 뿐 각종 DB가 빅데이터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빅데이터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는 전문가가 적합한 솔루션을 도구로 삼아 빅데이터를 가공·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은 '학술정보=빅데이터'라는 인식하에 연구자가 학술정보의 낮은 검색 적합도와 다양한 학술 DB 활용의 복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 변화에 따른 사서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판단하였다.

2019년 교육부의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2019. 1.)에 따르면 연구자 프로파일 DB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학술 DB를 분석·가공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연구정보서비스를 대학도서관의 전략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그림 1). 이를 통해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연구정보 큐레이션 요구에 부응할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연구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 RSS를 기획하였고, 2020년 6월에는 my RSS를, 9월에는 전 세계 연구트렌드분석 리포팅 서비스인 my ART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사서가 연구자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브리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지원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는 사서이고, 빅데이터는 도서관이 구입한 각종 학술 DB이며, 가공·분석 결과는 my ART, 도구는 자체 개발한 my RSS와 상용 솔루션인 SciVal, InCites, 정보를 받는 대상은 연구자인 셈이다.

주요 기능(안)

교내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

- 인용색인 DB(Web of Science, Scopus, KCI 등)와 교내 연구정보 관리 시스템 연계
- 대학(원)·학과(부)·연구자별 피인용 정보, h-Index 등 연구성과 지표 분석·제공

연구자 프로파일 DB 구축

-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학내 연구자 프로파일 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 이력,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 성과 등 연구 활동 정보를 수집·통합한 연구자별 프로파일 구축

기관별 연구성과 비교분석 서비스

- 학내 단과대학(기관) 및 국내 주요 대학과의 기관별·학문분야(전공)별 비교 분석
- 해외 유사 규모 및 선진 대학과의 비교 분석 서비스 제공

맞춤형 연구정보 서비스

- 연구자별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과제, 연구자 및 투고 저널 정보 추천
-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 주제 발굴 및 창출 기회 마련

그림 1.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전략 2–추진과제 4

2. RSS 구조

RSS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my RSS: 연구자 전 생애 연구 프로파일 DB 구축

- 연구자 프로파일 구축
- resume 출력
- 투고 저널 추천
- 맞춤형 연구정보 제공
- 교내 공동 연구자 추천
- 전 세계 연구과제 검색

나. my ART: 연구자 프로파일 DB와 전 세계 학술 DB 연계

- 개인 연구성과 기반 전 세계 연구 트렌드 분석 리포팅
- 주요 연구 분야 트렌드 분석
- 연구 분야별 우수연구자 및 우수논문 추천

3. 기획 및 구축과정

가. 기획 및 개발과정

201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논문 수, 피인용 수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양상을 보인다. RSS는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대학도서관이 나아갈 길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1) my RSS

■ 연구자 프로파일 DB 구축

연구정보 데이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 연구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RSS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연구자 정보 및 연구업적 등록, 저자-연구자 매핑 작업, 논문 상세정보 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연구정보를 구축하였다. 본교 재직 전임교원 1,099명의 교원명, 사번, 학과정보 등을 확인하고 교정하여 연구자 정보를 등록하였다. 1999~2018년에 게재된 논문 145,000여 건의 정보를 Web of Science와 Scopus, KCI, 교내 DB에서 반출하여 시스템에 반입한 후 DB 간 중복 논문을 반자동으로 제거하였다. 이후 게재되는 신규 논문은 주기적으로 각 DB에서 반출하여 반입하고

있다. 반입된 데이터는 논문의 저자와 교원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매핑 작업을 거치게 되며, 이후에는 논문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최종 승인완료 작업을 하게 된다. 논문 이외 연구업적 유형인 저·역서와 학술활동은 교내 DB에서 주기적으로 반출하여 등록하고 있다.

2019년 7월, RSS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고도화된 연구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최적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10월에 RSS 초기 버전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후 학내 결정기구(대학운영위원회) 보고(2020. 5.), 베타버전 오픈 및 교원(교학부총장, 단과대학(과)장, AI 학과 교원, 분야별 담당 교원 등) 미팅(2020. 6.~), my RSS 정식 오픈(2020. 9.) 과정을 거쳐 지금의 my RSS가 탄생하게 되었다.

■ 맞춤형 연구정보 제공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연구자가 적합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Feldman, 2004).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원별 맞춤형 연구정보 제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정보 검색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기획되었다.

맞춤형 연구정보의 성패는 추천연구정보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상용되었던 맞춤형 연구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추천정보의 다양성을 위해 논문 이외에 특허, 연구과제, 도서, 뉴스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3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자별 관심 키워드를 교원 또는 사서가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하여 정확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분야별 담당사서의 확인 작업을 거쳐 추천정보가 제공된다. 최신 논문정보는 EBSCO Discovery Service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특허는 KIPRIS, 연구과제는 NTIS, GRATS, HORIZON 2020, 도서는 알라딘, 뉴스는 BIGKinds에서 격주로 수집하여 제공한다.

2) my ART

my ART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방향성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도하는 연구성과 분석서비스와는 다른 관점으로 기획하였다. 연구성과분석의 경우, 연구자들이 현재까지 출판한 연구성과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게재한 논문의 피인용 수, 이용 수, 투고 저널의 우수성 등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논문의 실적을 분석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연구자가 게재한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연구활동에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정보 분석 솔루션 중 Elsevier사의 SciVal을 중심으로 my ART를 제작하였으며, SciVal에서 제공하는 내용 중 'Topic'과 'Prominence Percentile(PP)' 지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Topic'은 논문의 인용·피인용 관계를 통해 관련

논문끼리 묶어 형성되며, 'Topic'의 이름은 대표 키워드 3가지로 표현된다. 'PP'는 'Topic'에 부여되는 지표로 해당 'Topic'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는지 등 전반적인 인기도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또한, 논문의 인용 영향력과 연구비 수주금액이 'PP'값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계획수립 시 참고하기 좋은 지표로 활용하였다.

나. 서비스 준비과정

RSS를 시행하기 위해 분야별 담당사서가 서비스 대상 교원을 선정하고, 교원과 미팅 일자를 조율한 후 RSS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한다. 교원의 전 생애 연구성과를 수집한 후 원문 대조작업 등 1~2차 확인을 거쳐 RSS에 축적한다.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my ART를 제작하며, 맞춤형 연구정보에 사용될 논문과 키워드를 선정한다. 미팅에서는 RSS 시연을 통해 이용 방법과 추가 설명이 이루어지며,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나 보완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RSS의 기능을 보완한다.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은 추가 미팅 혹은 메일로 하며, 교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팅은 오프라인을 기본으로 진행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메일이나 전화, 온라인 플랫폼(Zoom)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다. 서비스 현황

2021년 8월 기준 재직 전임교원 중 110명의 my RSS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데, 이에 대한 입소문이 나고 있다. 분야별 담당사서는 교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자는 RSS를 통해 정제된 학술정보를 받고, 학술정보 검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관성적으로 진행해온 연구활동이 전 세계 연구 트렌드 정보를 토대로 삼아 계획적인 활동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로써 연구결과의 인용 영향력과 우수 저널 투고율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연구활동 기회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Ⅲ RSS 기능 소개

1. my RSS

my RSS는 연구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구자 개인별 계정을 발급받아 접속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연구정보 포털시스템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5개 대메뉴와 18개 소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과정을 my RSS를 통해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구성하였다(그림 3).

메인화면 위젯은 연구자의 선호도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위젯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my RSS에 축적된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resume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나의 최근 연구활동' 위젯에서 본인이 최근 게재한 논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 상세페이지에서는 초록과 서지사항, 주제 분야, 저자 키워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게재 저널의 연도별 Impact Factor(IF) 증감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원문을 PDF 파일로 내려받아 바로 열람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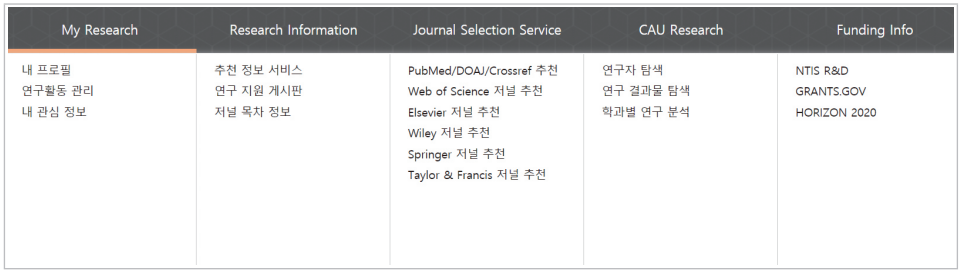


그림 2. my RSS 전체 메뉴

그림 3. my RSS 메인화면 예시

'교내 공동 연구자 추천' 위젯은 교내에 연구주제가 유사한 연구자들을 추천하여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자 기획한 기능이다. 본인과 추천된 연구자의 주요 저자 키워드 각 20개 중 공동 연구를 희망하는 키워드를 다중 선택하면 해당 키워드들이 포함된 학술논문을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그림 4). 이때 추천되는 연구자는 본인과 동일한 키워드를 가진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 중 유사도 상위 10% 연구자를 선별하여 랜덤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특정 연구자를 지정하여 공동 연구주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ELECT' 버튼으로 랜덤 목록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 4. 교내 공동 연구자 추천-상세 화면 예시

'최근 추천정보' 위젯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연구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본인이 게재한 논문 정보를 바탕으로 최신 정보가 추천되는 서비스이며, 수동으로 관심 키워드와 가중치를 설정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유사도값 최소 조건을 충족한 뒤 담당사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연구자에게 my RSS(그림 5)와 메일(그림 6)로 제공된다.

소메뉴 중 '내 프로필'에서는 연구자의 기본정보와 함께 공동연구자, 유사연구자, 저자 키워드, 본인이 게재한 논문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2021년 7월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교원업적데이터 전송'이다. 연동하고자 하는 논문을 선택한 후 교원업적데이터 전송 버튼을 누르면 중계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되며, 교내 업적시스템에서 이를 불러오면 my RSS에 색인되어 있는 논문 상세정보가 업적시스템에 동일하게 입력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을 통해 연구자가 교내 업적시스템에 논문의 세부 정보들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가적 업무를 줄이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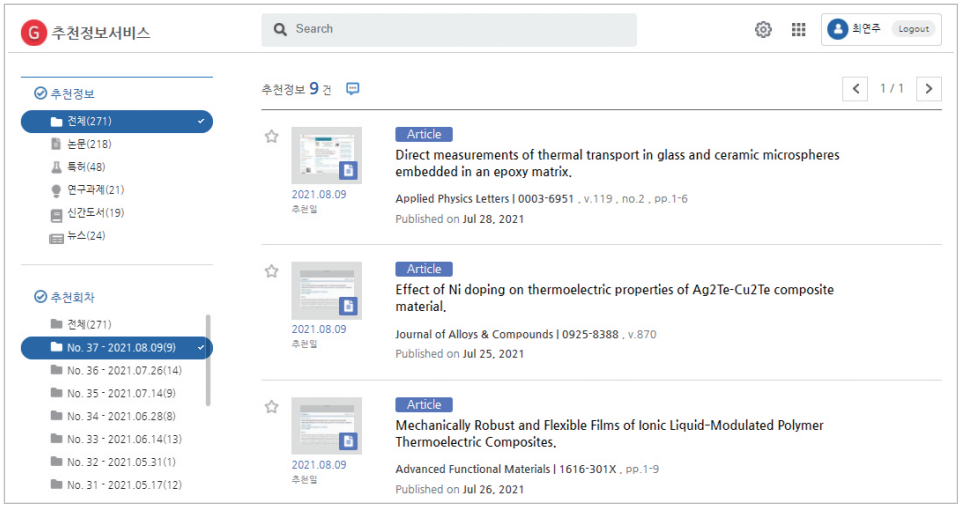


그림 5. 맞춤형 연구정보-이용자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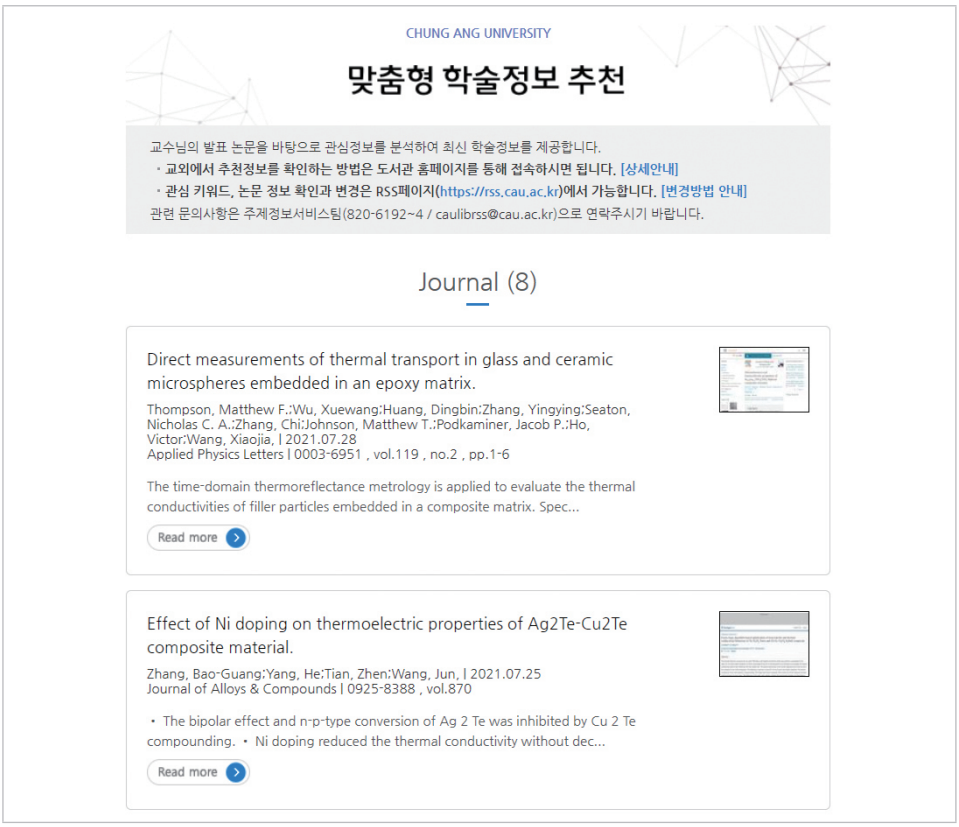


그림 6. 맞춤형 연구정보–이용자 메일 수신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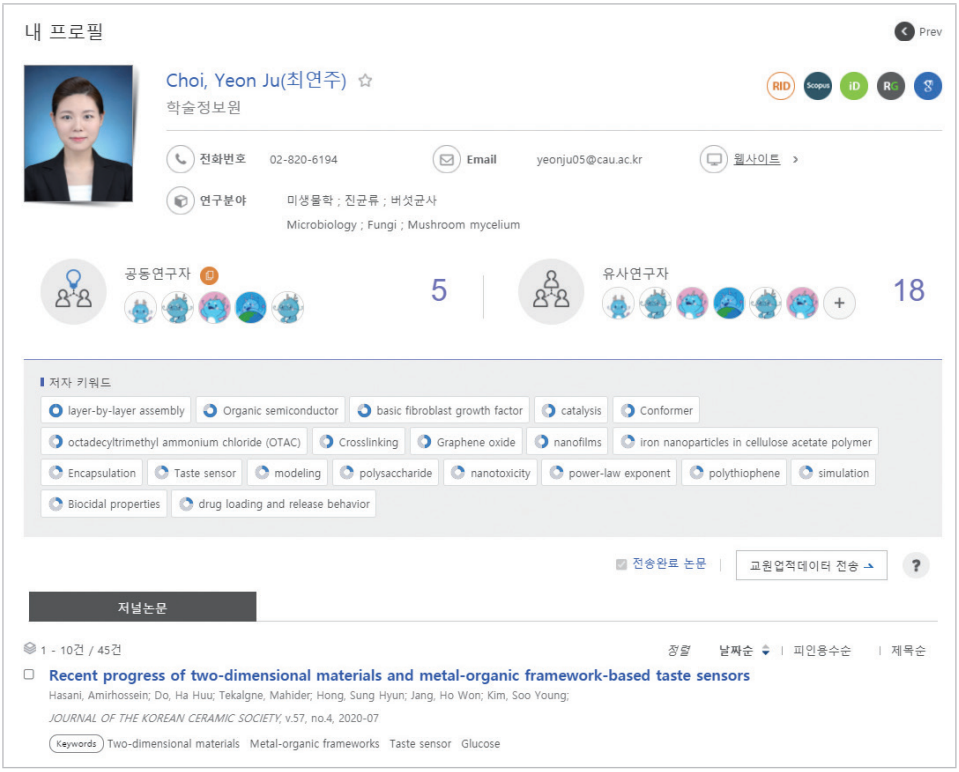


그림 7. my RSS–소메뉴 '내 프로필' 화면 예시

‘연구지원 게시판’ 소메뉴에서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저널 투고법이나 학술 DB 활용방법, 연구윤리 안내,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등 연구 진행 시 필요한 정보들을 수록했으며, my ART도 이 메뉴에서 제공된다. 일반적 정보는 전체 교원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하며, 특정 주제 분야에 해당하거나 개인별로 제공되는 my ART는 특정 교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도록 하였다.

대메뉴 ‘Journal Selection Service’에서는 각종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저널 추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거나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연결했다. 그중 PubMed, DOAJ, Crossref 등에 수록된 저널정보를 기반으로 논문을 투고하기 적합한 저널을 추천해주는 ‘PubMed/DOAJ/Crossref 추천’ 메뉴에서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의 제목, 저자 키워드, 초록을 입력하면 해당 논문과 유사한 저널을 유사도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추천 목록에는 학술지명 외에도 각 학술지의 출판사와 ISSN, 등재정보가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학술지명을 선택하면 학술지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정보로는 연도별 Journal Publication Time, Journal Impact Factor, Journal CiteScore, SJR값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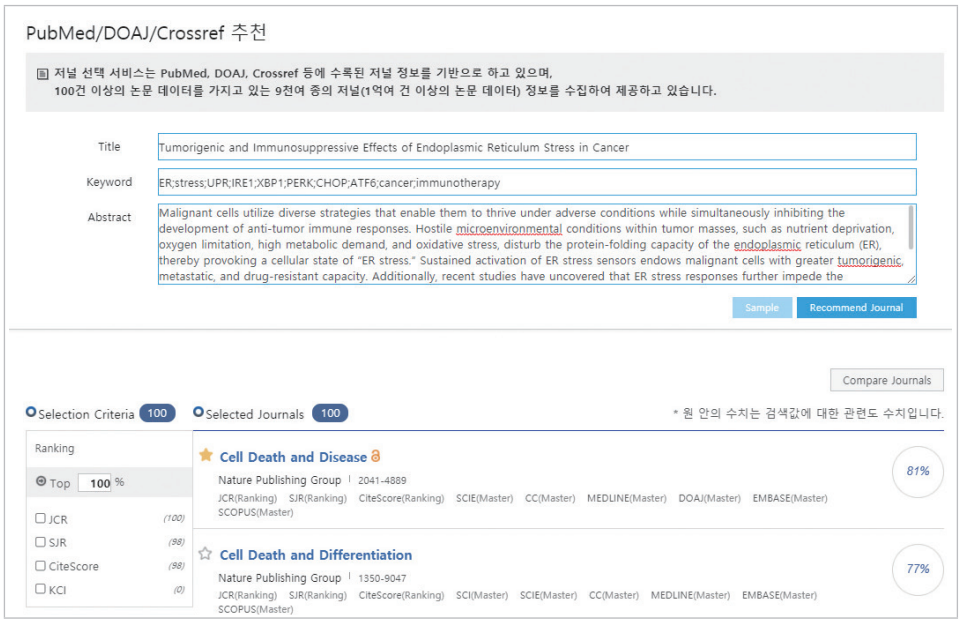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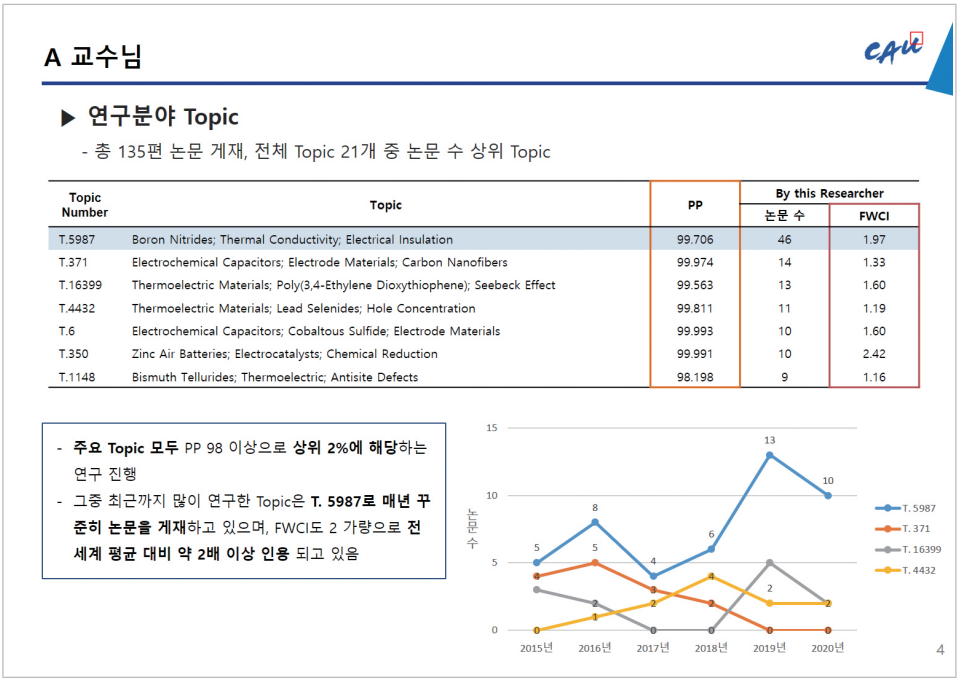
그림 8. my RSS-대메뉴 ‘Journal Selection Service’ 화면 예시

대메뉴 ‘CAU Research’에서는 교내 연구자 혹은 교내 연구자들이 게재한 논문을 검색하고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소메뉴 중 ‘학과별 연구 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과에서 게재한 논문 정보를 분석·요약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Journal Impact Factor 상위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열람하거나 소속 학과의 주요 투고 학술지, 연구주제 분야, 교내외 공동 연구 네트워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my ART

my ART는 연구지원 게시판에서 PPT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그림 9~13). 교원별 맞춤형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게재한 논문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연구자의 주요 연구 분야와 관심 분야의 전 세계 동향, 타 연구자들의 주요 투고 저널, 국내외 우수연구자 및 논문, 공동 연구자 추천정보 등 향후 연구활동 시 필요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분석자료는 1회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기서비스이며, 분석 내용 이외에 교원의 추가 요청 시 제공되는 수시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정기서비스에는 전반적인 트렌드 정보가 요약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수시서비스에서는 연구자의 요청사항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분석자료는 Scopus와 SciVal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며, 추후 Web of Science와 InCites를 병행하여 제작하고자 Clarivate사와 협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Web of Science 이용 시 최신 conference 정보 등을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연구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 교수님

▶ **연구분야 Topic**

- 총 135편 논문 게재, 전체 Topic 21개 중 논문 수 상위 Topic

Topic Number	Topic	PP	By this Researcher	
			논문 수	FWCI
T.5987	Boron Nitrides; Thermal Conductivity; Electrical Insulation	99.706	46	1.97
T.371	Electrochemical Capacitors; Electrode Materials; Carbon Nanofibers	99.974	14	1.33
T.16399	Thermoelectric Materials; Poly(3,4-Ethylene Dioxythiophene); Seebeck Effect	99.563	13	1.60
T.4432	Thermoelectric Materials; Lead Selenides; Hole Concentration	99.811	11	1.19
T.6	Electrochemical Capacitors; Cobaltous Sulfide; Electrode Materials	99.993	10	1.60
T.350	Zinc Air Batteries; Electrocatalysts; Chemical Reduction	99.991	10	2.42
T.1148	Bismuth Tellurides; Thermoelectric; Antisite Defects	98.198	9	1.16

- **주요 Topic 모두** PP 98 이상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연구 진행
- 그중 최근까지 많이 연구한 Topic은 **T. 5987로 매년 꾸준히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FWCI도 2 가량으로 **전 세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인용** 되고 있음

그림 9. my ART-연구자의 주요 연구 topic 목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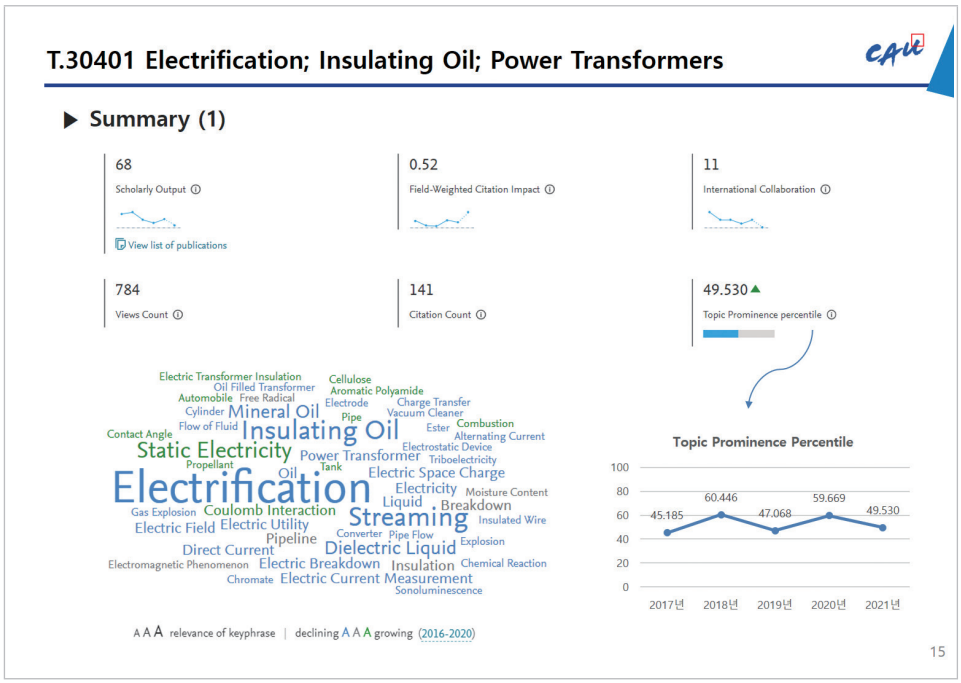


그림 10. my ART–주요 연구 topic의 전 세계 연구 동향 요약 화면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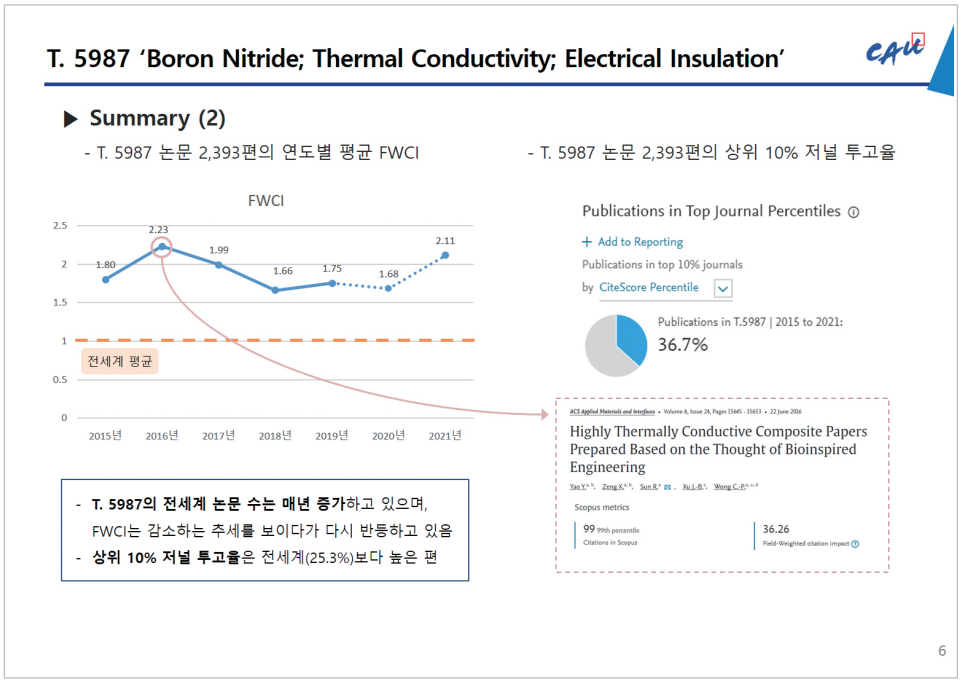


그림 11. my ART-주요 연구 topic의 전 세계 연구 동향 요약 화면 예시 (2)

T.3391 'Nanogenerators; Harvesters; Energy Harvesting'

▶ 우수 연구자

- FWCI 1.0 이상, 논문 수 상위 연구자 목록
- International Collaboration 80% 이상 우수 연구자 적색 음영 표시

Author	Affiliation	Country/ Region	Scholarly Output	FWCI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ang, Zhonglin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666	4.99	639 (95.9%)
Guo, Hengyu	Chongqing University	China	96	6.93	74 (77.1%)
Lee, Chengkuo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Singapore	86	4.97	70 (81.4%)
Jiang, Tao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79	3.66	74 (93.7%)
Zi, Yunl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73	5.09	64 (87.7%)
Zhang, Chi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72	3.07	40 (55.6%)
Kim, Sang-Woo	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	70	3.33	34 (48.6%)*
Xu, Liang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66	4.24	61 (92.4%)
Chen, Xiangyu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63	4.55	54 (85.7%)
Wang, Jie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60	5.57	53 (88.3%)
Li, Zhou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59	5.35	32 (54.2%)
Shi, Qiongfe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58	4.95	47 (81.0%)
Zhang, Yan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China	56	1.87	30 (53.6%)
Yang, Ya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55	2.41	29 (52.7%)
Hu, Chengguo	Chongqing University	China	54	6.25	26 (48.1%)

* 국내 연구자는 National Collaboration 값 표기
** 특정 연구자의 세부 분석은 요청 시 제공

7

그림 12. my ART-주요 연구 topic 내 우수연구자 목록 화면 예시

Related Topic

▶ Electrochemical Capacitor 관련 우수 Topic

- PP 상위 20위

Topic Number	Topic	Scholarly Output	FWCI	PP
T.6	Electrochemical Capacitor; Cobaltous Sulphide; Electrode Material	8,516	2.51	99.993
T.371	Electrochemical Capacitor; Electrode Material; Carbon Nanofiber	4,582	2.07	99.974
T.235	Graphene Oxide; Nanofiltration Membrane; Electrochemical Capacitor	4,943	1.35	99.954
T.34461	Titania Carbide; Sodium-Ion Battery; Ion Storage	1,335	4.09	99.930
T.16939	Electrochemical Capacitor; European Currency System; Adiponitrile	1,324	2.54	99.848
T.18168	Aerogel; Electrochemical Capacitor; Graphene Oxide	1,136	2.11	99.722
T.2672	Electrochemical Capacitor; Polyaniline; Polypyrrole	1,898	1.81	99.693
T.23819	Sodium-Ion Battery; Molybdenum Disulphide; Ion Storage	1,033	2.76	99.623
T.31540	Electrochemical Capacitor; Silicon Nanowire; Energy Density	694	2.73	99.605
T.190	Tungsten Oxide; Electrochromic Device; Lithium Perchlorate	1,799	1.32	99.564
T.3153	Electrochemical Capacitor; Storage System; Regenerative Braking	1,833	1.27	99.209
T.37135	Electrochemical Capacitor; Metal-Organic Framework; Lithium-Ion Battery	528	3.13	99.193
T.29977	Capacitor; Lithium; Intercalation	455	2.26	99.074
T.15753	Exfoliation (material Science); Graphite; Sheet Resistance	994	1.48	99.030
T.1448	Vanadium Pentoxide; Lithium-Ion Battery; Nanoribbon	1,121	1.22	98.653
T.4810	Molybdenum Trioxide; Nanoribbon; Lithium-Ion Battery	970	1.28	98.523
T.9676	Ionic Liquid; Lithium-Ion Battery; Electrolyte	630	1.23	98.459
T.17918	Niobium Pentoxide; Lithium-Ion Battery; Ion Storage	475	2.11	98.404
T.6334	Lithium-Ion Battery; Titanate; Lithium	1,047	1.23	98.312
T.13001	Electrochemical Capacitor; Ionic Liquid; 1-Ethyl-3-Methylimidazolia Tetrafluoroborate	803	1.28	98.157

* 특정 Topic의 세부 분석은 요청 시 제공

10

그림 13. my ART-주요 연구 분야 내 우수 topic 목록 화면 예시

Ⅳ RSS 도입 결과

1. 실제 적용 후 경과

2020년 6월 베타서비스의 시작으로 사서들이 담당 교원과 1:1 미팅을 진행하며, RSS를 소개·시연하고 교원의 보완 및 요청사항을 수집하였다. 교원의 주요 요청사항은 RSS에 축적되는 본인의 연구업적을 교내 연구업적시스템에 연동시키는 기능이었으며, 이는 앞서 Ⅲ-1. my RSS 기능 소개에서 설명한 바 있다.

'교내 공동 연구자 추천 기능'은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기능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기능이다 보니 교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초기에는 추천 연구자를 랜덤으로 선정하였으나 특정 연구자를 선택하여 탐색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연구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기능을 보완하였다.

논문 상세페이지 하단에 표기되는 Impact Factor 그래프에 mrnIF값을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다. mrnIF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안하여 연구과제 성과분석에 활용되는 지표로 연구과제 후속 보고 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지표로 판단되어 mrnIF값이 Impact Factor값과 같이 표기되도록 수정 중이다.

Resume의 경우, 현재 기본형식 1가지를 제공하나 다양한 형식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식을 수집하였다. RSS에 수록된 연구업적을 각 형식에 맞게 출력하도록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연구자가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여 resume를 생성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2. 성과 및 이용자 후기

가. 서비스 교원 및 이용 현황

현재 RSS 대상 교원은 재직 전임교원의 10%로 교원 110명에게 서비스 중이다. 해당 교원들의 RSS 이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월별로 페이지 뷰 수를 산출하였으며, 2021년 RSS 페이지 뷰 수는 11,792건으로 나타났다(2021년 1월 1일~2021년 7월 31일 기준). 방학기간에 해당하는 1~2월과 7월에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월에 가장 많은 이용도를 보였는데 이는 교원 업적시스템 연동 기능을 베타오픈한 시기로 업적시스템 연동에 대한 교원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서비스 리액션

기존에는 교원이 필요에 따라 학술정보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형태였던 반면, RSS를 선보이며 적극적 서비스로 접근하자 교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그림 14). 해당 서비스가 연구활동에 매우 유용한 서비스임을 수긍하며, 본인 외에도 소속 학과 교원 전체가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았다. 시니어 교원의 경우, 연구활동 초창기에 해당 서비스가 있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아쉬워하며 신임 교원에게도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교내 연구 환경에 낯선 신임 시니어교원에게도 서비스해서 교내 연구자들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지 쉽게 파악하고, 교내 공동 연구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RSS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Journal Selection Service를 통해 저널 투고 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인이 게재한 논문임에도 원문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원들이 다수 있었는데 RSS에서 원문을 바로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맞춤형 연구정보서비스의 경우, 교원들은 논문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정보 제공이 유용하다고 평가했으며, 대학원생들에게 공유하기도 하였다. 해당 서비스의 유용성이 인정되자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서비스가 전파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my ART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 단순 경쟁활동에 지쳐 있던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온 서비스였기에 더욱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연구방향에 대한 막연함이 있던 교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연구 계획을 설정할 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제 우수연구자들을 탐색하며 관련 연구결과를 탐색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14. RSS 교원 미팅 후 피드백

3. MOU 체결

RSS 중 my ART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기업은 기존 my ART 제작에 사용되는 분석도구인 Scopus와 SciVal을 제공하는 Elsevier사와 새롭게 활용할 예정인 Web of Science와 InCites를 제공하는 Clarivate사이다. 두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두 기업이 대학과 협력을 체결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드물고, 대학도서관과는 유일한 사례이다. 협약을 통해 사서의 RSS 경험과 두 기업이 보유한 주요 DB의 전문 활용능력과 컨설팅 능력이 더해진다면 중앙대학교 RSS의 수준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

즉, 대학의 사명 중 하나인 '연구'는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자 책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학문적 교류, 협업은 전례 없이 활발해졌으며, 인문·사회 분야의 지적 탐구는 물론 자연과학·공학 분야에서 선취적 지적 발견을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대학평가로 가려지는 대학의 명성과 경쟁력도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능력에 대부분을 의존하며, 우리 사회도 대학에 연구 역량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수의 대학들은 연구 중심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은 대학의 기본 역할인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책무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대학도서관과 사서들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였고, 이에 RSS를 기획 및 실행하게 되었다.

RSS의 구조는 크게 1) 연구자 프로파일 DB와 전 세계 학술 DB를 연계하는 my ART, 2) 전 생애 연구 프로파일 DB가 구축되는 my RSS로 구성되어 있다.

사서들과 교원이 1:1 미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RSS를 발전시킬 아이디어나 제안사항과 긍정적 반응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최근에는 Clarivate사, Elsevier사와 각각 MOU를 체결하며 대학과 연구자 외에 전 세계적 학술정보 기업으로부터도 RSS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RSS는 정식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다음과 같은 개선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RSS가 담당사서와 교원의 1:1 미팅으로 진행되다 보니 인력과 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주제 분야를 현재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주제 전문사서의 채용을 대학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둘째, 학술 DB 이용자들의 빅데이터 활용에서 해당 DB 업체들도 이용자들의 개인화 데이터 중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각 DB 업체가 개선하도록 노력 중이며, Clarivate사, Elsevier사와 MOU를 체결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셋째,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더욱 다양하고 실전적인 서비스의 탐색이다. 이제껏 홀로 정보를 검색하고 연구를 진행해 온 대학 연구자들의 특성상 연구자 본인조차 도서관이 자신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을지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려면 각 대학도서관에서 RSS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의식적·기술적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에서 세 차례 대학도서관 RSS 사례 특강, 2021년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유일한 사례 발표, Clarivate사, Elsevier사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 등의 활동으로 전국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에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로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RSS를 계획·실행·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와 연구자 간의 소통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학술정보의 구입·전시에서 벗어나 연구자별 맞춤형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학도서관의 기본 역할이 되어야 한다.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은 이상과 같이 대학 연구 활동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례가 대학도서관계에 공유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참고문헌

김순 (2019). 오픈 사이언스 시대에 대비한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정보관리학회지, 36(1), 7–30.

남영준, 김희선 (2012).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연구지원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369–390.

윤희윤 (2021).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태일사, 23.

이용재, 이지욱 (2020). 국내 대학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의 현단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305–327.

Feldman, S. (2004, March 1). The high cost of not finding information. KMWorld. Available: https://www.kmworld.com/Articles/Editorial/Features/The–high–cost–of–not–finding–information–9534.aspx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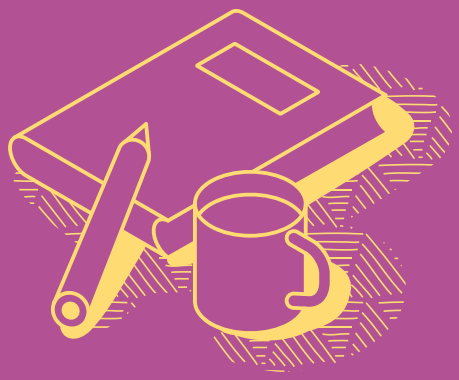
현장사례
장려상

코로나 시대, 집콕하는 가족의 독서와 화합을 꿈꾸다

비대면 '책 읽는 가족 시리즈'

서다정
파주 한울도서관

Ⅰ. 도서관 현황 및 소개 131
Ⅱ. 프로그램 기획 134
Ⅲ. ‘책 읽는 가족 시리즈’ 프로그램별 기획 및 운영 138
Ⅳ. 프로그램 평가 147
Ⅴ. 보완 및 발전 가능성 152



요약문

코로나19로 많은 도서관에 변화가 생겼다. 잦은 휴관, 도서 예약 후 특정 시간 수령 서비스,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 등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했다. 또한 사회적 변화로는 회사의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두기, 학교의 수업 단축이 빈번해졌고, 가족이 집에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히나 부모의 자녀 가정 보육 부담과 스트레스도 심해졌다.

그래서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개발과 가족의 집콕 상황을 어우르는 독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했다.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 '책 읽는 가족 시리즈'를 통해 가족이 함께 1일 한 권의 그림책을 읽고, 독서와 다양한 해당 미션을 수행하였다.

이를테면, 2021년 2월 '도전! 책 읽는 가족(독서 미션)', 5월 '책 쓰는 가족(그림책 필사)', 6월 '책 그리는 가족(그리기 미션)', 7월 '책 토론 가족(독서 토론)'의 시리즈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책 내용을 다양한 시선과 논리적·창의적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책에 대한 흥미 증진,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이 되도록 기여하였다.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재참여 팀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긍정적 반응으로는 '코로나로 가족이 집콕하며 갈등이 많았는데,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각각 특색 있는 미션을 통해 책을 깊고 다양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또한 참가 만족도와 프로그램 재개설 요청이 높았고, 미션 정확 횟수 인증팀에겐 직접 제작한 도서관 굿즈를 제공하여 참여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담당사서는 프로그램 참가의 지속성, 참가팀 간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1) 인증 글에 댓글 : 매일 댓글로 미션 내용에 공감, 도서 추천 등 소통 노력을 하였다.
2) '리플 친구' 연결 : 참가팀 간 독서 소통이 없고 숙제만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완했다. '리플 친구'는 참가팀 간 독서 소통을 목표로, 서로 댓글로 소통하는 활동이다. 책 추천 및 공감과 응원으로 동기부여되는 긍정적 효과였다.
3) 참가팀의 궁금증 해결 : 담당사서에게 채팅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질문하도록 하였다.
4) 인증 글 관리 : 매일 인증 여부 체크, 지속적 미인증팀에 독려 전화, 잘못된 미인증 글 수정 요청, 프로그램 마감 하루 전날 한 번의 미인증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인증을 권유하여 참가팀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과 사회적 변화에 맞춘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 담당사서와 참가팀 간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마감했다.

Ⅰ 도서관 현황 및 소개

한울도서관은 2018년 12월에 개관하여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였다. 2021년 6월 통계에 따르면[1] 도서관이 속한 파주시 운정권은 파주시 18개 읍면동 인구 472,260명 중 약 198,217명인 42%가 거주한다. 또한 파주시 전체 세대 205,132세대 중 77,213세대로 약 16%가 거주한다.

가족 구성원으로 20~40대 부부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자녀가 많이 거주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운정 정거장을 공사할 정도로 외지에서 일하는 직장인도 많다. 학구열과 독서열이 높아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이 커서 한울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교와 근접하여 파주시에서 장애인특화자료를 수집 비치해놓았다. 담당사서는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고, 도서관이 독서 생활 환경에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독서 체험활동, 독서교실, 청소년 재능기부 수업 등이 있었다. 줄 서서 접수, 모집 인원의 2배 신청, 4년간 참여하는 참가자도 많다. 현재는 코로나19에 발맞추어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림 1. 한울도서관 전경

1) 파주시 민원봉사과 (2021. 6.). 최신 파주 통계. 파주 통계 사이트. [인용일: 2021. 8. 5.]. 출처: http://stat.paju.go.kr/

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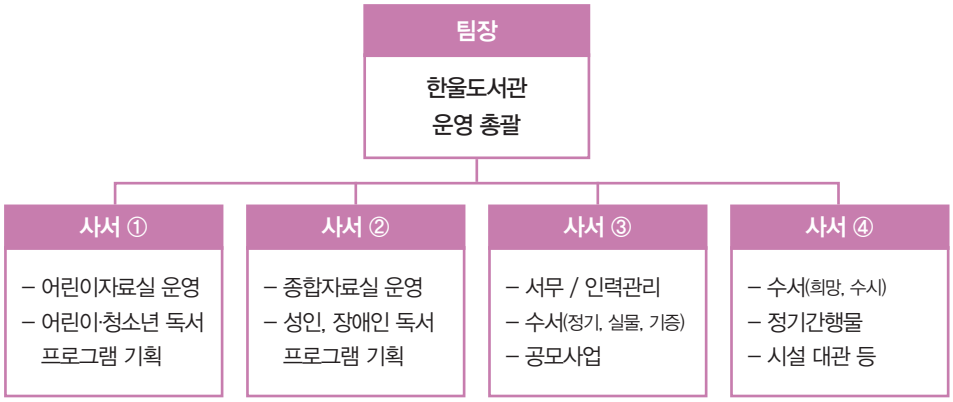


그림 2. 조직도

나. 시설 및 운영 현황

1) 시설 현황

표 1. 시설 현황

구분	지하 1층	1층	야외
주요 용도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사무실, 서고, 기계실, 화장실	운정 3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주차장
면적(㎡)	2,053.85	649.99	/
좌석수	종합 및 어린이자료실 329석	/	12석

2) 운영현황

표 2. 장서 현황(2021. 6. 기준)

	총류	철학	종교	사회	자연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일반 도서	1,233	2,711	637	7,432	1,310	3,406	1,881	530	13,120	2,274	34,534
어린이 도서	480	208	59	1,263	1,265	499	238	624	9,467	1,322	15,425
비도서	36	27	2	67	6	22	702	52	299	25	1,238
총계	1,749	2,946	698	8,762	2,581	3,927	2,821	1,206	22,886	3,621	51,197

표 3. 2021 비대면 어린이·청소년 독서 프로그램(2021. 8. 5. 기준)

구분	기간	프로그램명 및 설명	참여자(명)
1	2021. 1. 19. ~1. 21.	[비대면 어린이 독서교실] 도전! 비밀 그림책 탐구 • 장소 : 네이버 밴드 • 비밀 그림책 한권 선정, 하루 하나의 미션 인증	초등 3, 4학년 51명
2	2021. 2. 22. ~3. 4.	[비대면 가족 독서] 도전! 책읽는 가족 • 장소 : 네이버 밴드 • 가족팀이 하루 한권 그림책 독서, 독서 미션 인증	39팀 130명 연인원: 1,040명
3	2021. 3. 23. ~4. 8.	[청소년 진로독서] 남녀 탐구 생활 • 장소 : ZOOM • '우리 아이 성교육' | 소녀, 소년, 미혼, 기혼반	171명
4	2021. 5. 17. ~5. 27.	[비대면 프로그램] 도전! 책쓰는 가족 • 장소 : 네이버 밴드 • 가족팀이 하루 한권 그림책 독서, 인증(독서, 필사)	37팀 125명 연인원: 1,000명
5	2021. 6. 10. ~6. 15.	도전! 책 그리는 가족 • 장소 : 네이버 밴드 • 가족팀이 하루 한권 그림책 독서, 인증(독서, 그림)	39팀 132명 연인원: 792명
6	2021. 7. 19. ~7. 29.	도전! 책 토론 가족 • 장소 : 네이버 밴드 • 가족팀이 하루 한권 그림책 독서, 인증(독서, 토론)	28팀 97명 연인원: 776명

표 4. 2021 비대면 성인·장애인 독서 프로그램(2021. 8. 5. 기준)

구분	기간	프로그램명 및 설명	참여자 (명)
1	2021. 1. 11. ~2. 5.	[랜선독서 1] 사피엔스 30일 읽기 • 장소 : 네이버 밴드 • 『사피엔스』를 함께 읽고, 발췌나 단상 나누기	성인 20명
2	2021. 3. 8. ~3. 29.	[독서모임 운영자 양성과정] 운영 • 장소 : 온라인 플랫폼 Zoom • 비대면 독서모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토론 모임 운영의 노하우 제공	성인 91명
3	2021. 5. 10. ~6. 4.	[랜선독서 2] 『공정하다는 착각』 30일 함께 읽기 • 장소 : 네이버 밴드 •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발췌나 단상 나누기	성인 20명
4	2021. 6. 7. ~9. 10.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30일 함께 읽기 • 장소 : 네이버 밴드 • 『다독임』, 『피프티 피플』, 『사이보그가 되다』를 읽고, 발췌나 단상 나누기	지체 장애인 45명

Ⅱ 프로그램 기획

1. 추진배경

한울도서관에서 코로나19 이전에 진행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독서체험활동, 독서교실, 작가와의 만남, 지역 청소년 미술 재능기부 수업 등이 있었다. 대기 줄을 서거나 모집 인원보다 2배 이상 접수하였고, 개관 이래 꾸준히 참여하는 참가자도 많다.

코로나19로 도서관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도서관 운영시간의 잦은 변동, 학교의 단축 수업, 회사의 재택근무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로 여러 기업에선 직원과 그 가족들의 심리를 상담해주기도 한다.[2)]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의 하나는 가족 심리상담이며, 심리적 지지 제공자로 가족을 뽑았다. 그리고 2주 이내 '자해나 자살 생각'에 '그렇다'고 답한 청소년이 10.17%여서 학회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해, 자살 생각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방역과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청소년 사이에서 SNS에 '자해러', '자해계' 등 자해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코로나 블루를 느끼는 대상은 성인, 어린이, 청소년 모두 동일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짐도 알 수 있다.[3)] 그래서 도서관의 언택트 온라인 서비스, 코로나로 인한 가족 화합, 독서력 증진 세 가지 목적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2. 추진 목적

'책 읽는 가족 시리즈'는 가족이 1일 한 권의 그림책을 읽고 시리즈별 미션(독서, 필사, 토론, 그리기)을 하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와 대화로 가족의 독서습관을 기르고 가족 화합을 향상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었다. 그림책은 페이지가 적어 남녀노소 모두가 읽기에 부담감이 적고, 독자마다 시선과 느낌이 다르기에 하루 동안 가족이 독서하고 대화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참가팀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서로 더욱

2) 송혜진 (2021. 7. 14.). 다시 번지는 코로나 블루… 기업들 "가족도 상담해드려요.". 조선일보.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7/14/UK3BAEYI6BBRZHW3DWI3KEOASA

3)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 6. 29.).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출처: http://kstss.kr/?p=2424

이해하였고, 가족과의 대화가 늘어났으며,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들려주었다. 또한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재참여 비율이 높아졌다. 결국 '책 읽는 가족 시리즈'는 도서관 언택트 시대에 집에서 쉽게 독서하고 가족 화합을 이루어내는 첫걸음이 되었다.

3. 프로그램 개발 과정

'책 읽는 가족 시리즈'는 개발과정에서 많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가. 대상 선정

어린이, 청소년, 어른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팀으로 선정하였다.

나. 독서 매체로 그림책 선정

가족 구성인 남녀노소 모두 쉽게 접근 가능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다. 온라인 활용

많은 사람이 글, 이미지, 생각, 정보를 나누는 네이버 밴드를 선정했다.[4)]

라. 어린이 온라인 프로그램 부적합

휴대전화가 없는 어린이가 다수여서 가족 대상으로 결정했다.

마. 코로나19 현 상황 반영

1)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낮은 이해력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많은 청소년이 '자해나 자살 생각'을 하고, SNS '자해러', '자해계' 콘텐츠로 고립감을 해소한다고 하였다. 심리적 지지자 1순위는 가족, '가족 갈등 심리상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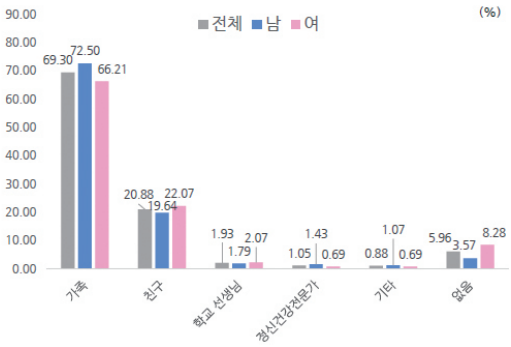
4) 네이버 밴드 활동 정책 (2019. 3. 18.). 네이버 밴드. 출처: https://band.us/policy/operating

심리적지지 제공자

(코로나19 이후 귀하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심리적지지 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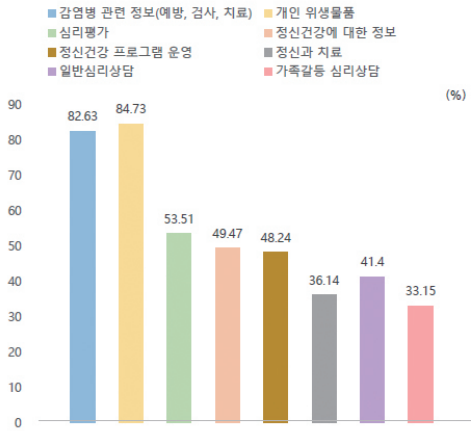
		21년 6월 조사		
		전체 %(명)	남 %(명)	여 %(명)
문항	가족	69.30(395)	72.50(203)	66.21(192)
	친구	20.88(119)	19.64(55)	22.07(64)
	학교 선생님	1.93(11)	1.79(5)	2.07(6)
	정신건강전문가	1.05(6)	1.43(4)	0.69(2)
	기타	0.88(5)	1.07(3)	0.69(2)
	없음	5.96(34)	3.57(10)	8.28(24)
전체		100.00(570)	100.00(290)	100.00(280)



필요 서비스

종류	21년 6월 조사	필요하다 (2점 이상) 응답 비율 (%)
감염병 관련 정보(예방, 검사, 치료)	2.01	82.63
개인 위생 물품	2.17	84.73
심리평가	1.56	53.51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1.48	49.47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1.44	48.24
정신과 치료	1.23	36.14
일반심리상담	1.31	41.40
가족갈등 심리상담	1.15	33.15

0점: 전혀 필요없다, 1점: 필요없다, 2점: 필요하다, 3점: 매우 필요하다



우울(PHQ-9)

○ 우울

구분		21년 6월 청소년조사	21년 3월 성인조사
우울		4.27	5.67
문항	흥미와 즐거움 없음	0.60	0.86
	희망이 없다고 느낌	0.58	0.75
	수면문제	0.61	0.84
	피로	0.74	0.98
	식욕	0.66	0.74
	실패자	0.34	0.51
	일상생활 집중에 어려움	0.35	0.45
	말과 행동이 느려짐	0.30	0.30
	자살생각	0.13	0.23

4점 Likert 척도 / 총점 27점 / PHQ-9 cut-off 10점
전혀 없다(0점), 며칠 동안(1점), 일주일 이상(2점) , 거의 매일(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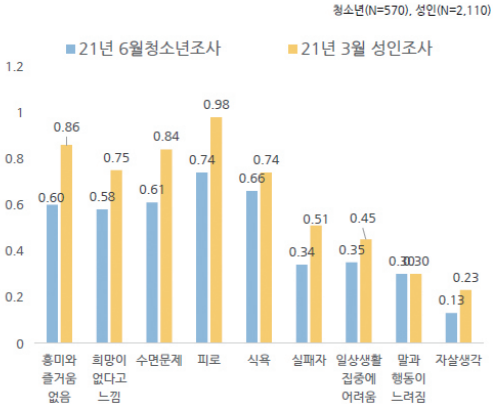


그림 3.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2)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

최근 기사에서는 "(코로나로) 직장인의 가족 상담이 부쩍 늘었으며,[5] 재택근무와 육아 병행 스트레스, 비대면 수업으로 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6]

3) 도서관의 운영시간 수시 변동

코로나19로 도서관계에서는 장기휴관으로 비대면 도서 대출, SNS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었다.[7]

4) 학교의 단축수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학교가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공식 허용했다.[8]

5) 도서관의 정상운영 희망

아이들은 도서관 방문하여 자발적 독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6) 어린이 대상 온라인 프로그램의 부적합성

어린이는 본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가 다수여서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자해율과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가족 소통의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의 잦은 운영시간 변경,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필요, 어린이의 온라인 프로그램 참석 어려움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그래서 이번 '책 읽는 가족 시리즈'는 많은 요소를 망라하여 기획했고, 그림책을 매개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 화합, 독서력 증진이 되도록 기획하였다.

5) 김기찬 (2021. 5. 9.). "내 임금 푼돈" 벼락거지에 좌절… 심리방역 비상 걸린 기업들. 중앙일보.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52959
6) 송혜진 (2021. 7. 14.). 다시 번지는 코로나 블루… 기업들 "가족도 상담해드려요.". 조선일보.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7/14/UK3BAEYI6BBRZHW3DWI3KEOASA
7)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185-210.
8)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2020. 2. 10.). 코로나로 인한 수업일수 단축 허용. 출처: https://home-learn.co.kr/newsroom/news/A/943

Ⅲ ‘책 읽는 가족 시리즈’ 프로그램별 기획 및 운영

1. 도전! 책 읽는 가족

가. 운영기간 : 2021. 2. 22.~3. 4. 월~목 총 8회

나. 운영방법 : 비대면 온라인(네이버밴드)

다. 운영대상 : 가족 39팀 130명(연인원 1,0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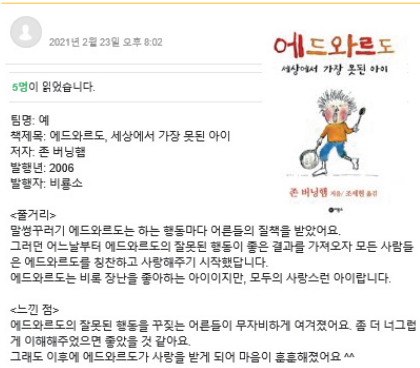
라. 운영내용 : 가족팀이 하루 한 권의 그림책 읽고 밴드에 독서 및 미션 인증

표 5. ‘도전! 책 읽는 가족’ 미션 내용

회차	미션 내용	인증 도서
1	책 읽은 소감 책 제목 행시 짓기	『돼지 책』 등
2	등장인물 역할을 정해 읽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등
3	‘내가 **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안녕, 외톨이』 등
4	책의 절반 읽고, 뒷이야기 릴레이 만들기	『깜장이와 푸들 친구들』 등
5	인상 깊은 장면 혹은 구절과 이유	『날아라, 독수리야!』 등
6	책 읽은 소감 그림 표현하기	『달려라, 꼬마』 등
7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왜?	『멋진 뼈다귀』 등
8	이 책을 읽으니 떠오른 다른 책	『바다요정 샐카』 등

마. 인증 내용

표 6. ‘도전! 책 읽는 가족’ 참가 인증 내용


2021년 2월 23일 오후 8:02

5명이 읽었습니다.

팀명: 예
책제목: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저자: 존 버닝햄
발행년: 2006
발행자: 비룡소

<줄거리>
말썽꾸러기 에드와르도는 하는 행동마다 어른들의 질책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날부터 에드와르도의 잘못된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자 모든 사람들은 에드와르도를 칭찬하고 사랑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에드와르도는 비록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이지만, 모두의 사랑스런 아이랍니다.

<느낀 점>
에드와르도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어른들이 무자비하게 여겨졌어요.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후에 에드와르도가 사랑을 받게 되어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

미션명	등장인물 역할 정해 읽기
책 제목	에드와르도 :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내용	역할 : 내레이션(엄마), 에드와르도를 지적, 칭찬하는 어른들(자녀들) 미션 내용 : 에드와르도 칭찬은 자상하게, 혼내는 부분은 짜증 나게 읽었다. 미션 느낀 점 :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칭찬하는 상냥한 어른이 되고 싶다.

바. 참가자 소감

가족과 함께
의식적으로 독서하고,
다양한 독서 미션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좋아요.

서로 올린 인증 글과
그림책을 읽어보니,
나도 빌려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 운영 평가

코로나19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의 잦은 변동, 집콕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상황 발생을 망라할 수 있는 비대면 가족 독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한울도서관에서 처음 진행한 프로그램 형태로, 참가 모집 30팀에 39팀(13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연인원 1,040명으로 참여 시간과 투자 예산 대비 참가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재개설 요청이 많았다.

그리고 독서 미션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독서지도에 한계가 있었는데 다양한 독서 미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독서 습관이 향상되고, 미션으로 가족이 소통하며 서로 이해하였다. 또한 어린이 자료실에 프로그램 결과를 전시해 가족의 성취감과 독서 자부심이 생겨 좋았다.

그림 4. '도전! 책 읽는 가족' 결과 전시

2. 도전! 책 쓰는 가족

가. 운영기간 : 2021. 5. 17.~5. 27. 월~목 총 8회

나. 운영방법 : 비대면 온라인(네이버밴드)

다. 운영대상 : 가족 37팀 125명(연인원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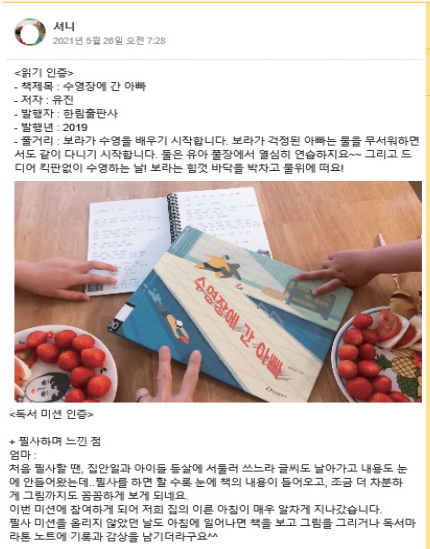
라. 운영내용 : 가족팀이 하루 한 권의 그림책 읽고 밴드에 독서, 그림책 필사 및 미션 인증

표 7. '도전! 책 쓰는 가족' 미션 목록

회차	미션 내용	인증 도서
1	필사한 느낀 점 작성하기	『내 아이스크림 내놔』 등
2	'내가**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색깔 도난 사건』 등
3	책 내용 따라 그리기(장면, 캐릭터 등)	『엄마의 바다 미역국』 등
4	책 제목 바꾸고 이유	『집으로 가는 길』, 『춤』 등
5	인상 깊은 장면 혹은 구절과 이유	『촛불 책』, 『까치 아빠』 등
6	책 읽은 소감 그림으로 표현하기	『실수 왕 도시오』 등
7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왜?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등
8	이 책을 읽으니 떠오른 다른 책	『길 떠나는 너에게』 등
9	책 속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호랑이 꼬리가 길어, 길면 뱀이지』 등

마. 인증 내용

표 8. 한울도서관 '도전! 책 쓰는 가족' 미션 인증 내용



미션명	필사한 느낀 점 쓰기
책 제목	수영장에 간 아빠
내용	처음 필사할 땐 글씨도 엉망이었지만 할수록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차분하게 그림까지 보게 되었다. 필사에 대해 대화하고, 힘들지만 뿌듯했다.

바. 참가자 소감

가족이 소통하고
책에더 깊게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글 쓰는게 서투른
저학년이지만, 책을 따라
써보면서 내용과 그림을 깊이
있게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도서관 프로그램은
다 참석하고 싶다.
'책 쓰는 가족'이
좋은 점은 아이가 어려서
어른인 내가 필사를 하니
느끼는 점이 더 많았다.

사. 운영 평가

참가 모집 30팀에 37팀(125명)이 참여하였고, 그림책 필사를 통해 책 내용의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사가 처음인 많은 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당사서는 필사 100%에서 50% 작성으로 조정하여 보완하였다. 힘들었지만 필사의 장점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3. 도전! 책 그리는 가족

가. 운영기간 : 2021. 6. 10.~6. 15. 월~화 총 6회

나. 운영방법 : 비대면 온라인(네이버밴드)

다. 운영대상 : 가족 39팀 132명(연인원 792명(6일))

라. 운영내용 : 가족팀이 하루 한 권의 그림책 읽고, 밴드에 독서 및 그리기 미션 인증

표 9. '도전! 책 그리는 가족' 미션 목록

회차	미션 내용	인증 도서
1	책 내용 똑같이 표현하기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등
2	책 표지 디자인: 제목, 그림 맘대로 바꾸기	『탕씨 부부는 여행 갈 수 있을까』 등
3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 그리기+이유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등
4	책 읽은 소감을 책 제목 N 행시 짓기	『흰곰』, 『내 집이 필요해요』 등
5	'내가 **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일기 먹는 일기장』, 『고릴라』 등
6	이 책을 읽으니 떠오른 다른 책은?	『우리는 공룡 특공대』, 『수박』 등

회차	미션 내용	인증 도서
7	책 제목 바꾸고 이유 남기기	『곰 인형의 행복』 등
8	등장인물에 어울리는 짝꿍을 그리기	『행복한 청소부』, 『빨간 장갑』 등
9	책표지 그대로 따라 그리기	『과자 마녀를 조심해』, 『늑대들』 등
10	인상 깊은 구절, 장면, 소감 그리기	『황금 사과』, 『동화에 빠진 앨리스』 등

마. 인증 내용

표 10. '도전! 책 그리는 가족' 미션 인증 내용

미션명	책 내용 똑같이 표현하기
책 제목	수박 수영장
내용	– 수박 수영장에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SNS에서 유행하는 젤리로 재현했다. – 등장인물도 직접 그리고, 마시멜로는 구름으로 책의 장면을 생생하게 살려보고, 책 내용을 직접 표현해보니 재미있었다.

바. 참가자 소감

그림책의 그림을
더욱 자세히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였다.

아이 스스로 선택한
미션 수행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기쁜 마음으로
재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니 즐겁고
책이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사. 운영 평가

참가 모집 30팀에 39팀(132명)이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그림책의 그림을 활용해 작가 의도 파악, 사고력 확장, 상상력 증가, 깊게 그림 감상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그리기 미션에서 재료와 표현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왔다. 특히 글보다 그림에 익숙한 유아~초등 저학년 가정의 만족도가 높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4. 도전! 책 토론 가족

가. 운영기간 : 2021. 7. 19.~7. 29. 월~목 총 8회

나. 운영방법 : 비대면 온라인(네이버밴드)

다. 운영대상 : 가족 28팀 97명(연인원 776명(8일))

라. 운영내용 : 가족팀이 하루 한 권의 그림책 읽고, 밴드에 독서 및 토론 미션 인증

표 11. '도전! 책 토론 가족' 미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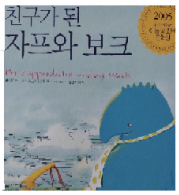
회차	미션 내용	인증 도서
1	책 내용 찬반 토론	『친구가 된 자프와 보크』 등
2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읽기 전과 후)	『괜찮아, 방법이 있어』 등
3	책 속 특수 지식 내용 토론하기	『텔레비전이 고장 났어요!』 등
4	주제 정하고 토론(자유양식)	『어른들이 사라졌다』 등
5	책 구절 반박하기+느낀 점	『은혜 갚은 두꺼비』, 『벽』 등

마. 인증 내용

표 12. '도전! 책 토론 가족' 미션 인증 내용

미션명	찬반 토론+미션 후 느낀 점
책 제목	친구가 된 자프와 보크
내용	– 미션 내용 : 보크가 심심할 때 친구에게 부리는 심술이 잘못된 행동인가? – 찬성 : 보크는 심술을 부리면서 자프를 놀려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 반대 : 보크는 심술로 자신의 심심함을 표현했을 뿐이다. 잘못됨을 몰랐으므로 감정 표현법을 알려줘야 한다. – 미션 느낀 점 : 딸이 친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이임을 깨달았다. 또한 말의 힘, 긍정적 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잘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하하네 가족
2021년 7월 20일 오후 10:32



팀명 : 하하네 가족
제목 : 친구가 된 자프와 보크
저자 : 게오르그 비드린스키(글), 옌스라스무스(그림), 이혜영(옮김)
발행 : 박원동 펴냄, (주)기탄동화
출판 : 2006년 5월

[줄거리]
어느 작은 마을에 자프가 살았어요. 자프는 평범한 꼬마예요. 그리고 다른 자프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어느날 보크라는 아이가 자프에게 말을 걸며 "어이 못생긴 꼬마 자프, 정말 수염이 못생겼는데~" 라고 외모를 가지고 놀렸어요. 이로 인해 자프는 7일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되고 눈물로 인해 투명해지게 되어 자신의 생각을 보크에게 보여주게 되며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요.
보크는 자프에게 "나는 심심하면 심술쟁이로 변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놀자"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 놀이를 하며 친한 친구가 됩니다.

[미션 : 1. 찬반토론]
보크가 심심할 때는 친구들에게 심술을 부렸는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가?
- 찬성(하1) : 심술을 부리면서 자프라는 친구를 놀렸기 때문에. 그리고 보크로 인해 자프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 반대(빼) : 보크는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자신의 심심함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대신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볼수 없음. 오히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느낀점]
이책을 읽고 친구들을 놀리지 말고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하1)
말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책이었으며, 아이들에게 좀더 긍정적이고 고운말을 쓰게금 유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찬반토론을 통해 딸아이가 친구들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빼)

바. 참가자 소감

토론은 어려운 것이 아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토론에 접근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어요.

독서 토론으로 가족과
생각을 나우어서 좋았고,
어린 자녀들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모습을
발견해서 뿌듯했습니다.

사. 운영 평가

참가 모집 30팀에 28팀(97명)이 참여하였다. ‘토론 주제는 중요한 현안이어야 할 것 같고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토론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엔 어려웠으나 책 내용으로 토론하여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토론 미션으로, ‘찬반 토론’ 같은 일반적인 미션뿐만 아니라 ‘책 구절 반박하기’, ‘책 속 특수 지식 내용 토론하기’ 등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번 미션을 통해 가족 간 소통으로 생각을 공유하고, 어린 자녀도 뚜렷한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5. 홍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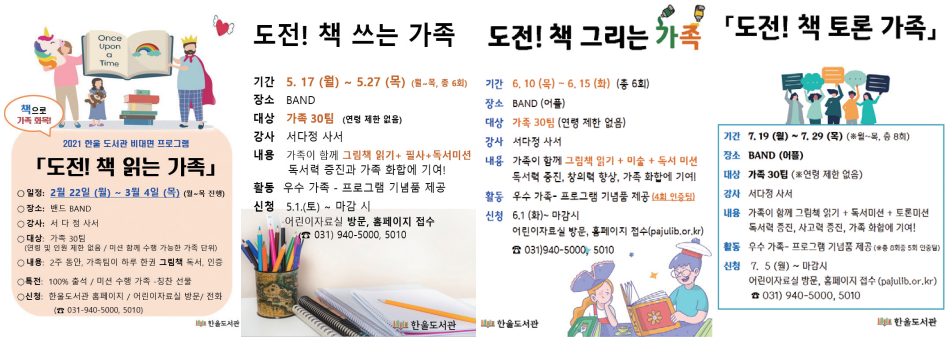


그림 5. ‘책 읽는 가족 시리즈’ 홍보 포스터

그림 6. 매체별 프로그램 홍보

그림 7. 파주시청 블로그-SNS 파주시민 기자 취재 '한울도서관, 책 읽는 가족 시리즈'[9)]

9) 파주시청 (2021. 8. 6.). 온 가족 참여형 언택트 독후 활동! 한울도서관 '책 읽는 가족 시리즈'. 파주시청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paju_si/222458158916

PAJU 파주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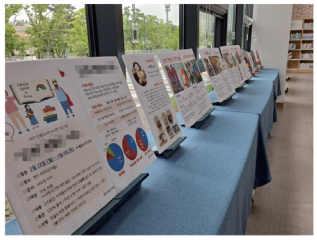
통합검색

일거양득의 슬기로운 집콕, 도서관과 함께!

작성일 : 2021.05.20 | 조회수 : 347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 수업이 원격으로 이뤄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두 달 전 한울 도서관 서다정 사서는 '도전 책 읽는 가족'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이후 "가족이 함께 독서를 하고, 독서 미션을 통해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반응들이 재요청으로 이어졌다. 이에 서 사서는 '도전! 책 쓰는 가족'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5월 17일~27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 있어 소개한다.



1차 '도전 책 읽는 가족' 작품 전시

1차 '도전!책읽는 가족' 기획 의도와 통계자료

'도전 책 쓰는 가족'에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서 사서는 " 지난 1차 프로그램 '도전 책 읽는 가족'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2차 프로그램에서 보완, 업그레이드하였다." 며 이번 재 진행 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서 사서가 그림책을 택한 이유는 "그림책을 유아가 읽는 책이란 편견을 깨길 바라고 수준 높은 그림책이 많음과 직장 생활하는 부모들의 책 읽는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이와 함께 책을 통한 가족의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며 "이번 프로그램에 필사를 넣은 이유 역시 직접 쓰면서 책 내용 이해력을 높이고 비대면 수업과 글씨를 많이 안 쓰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해 그의 세심한 성격이 느껴졌다.

서다정 사서

오래 기억 될 기념품

'도전! 책 쓰는 가족' 도전 방법은 밴드 어플에 게시글을 하루 하나씩 올리면 된다. 책에 대한 정보, 느낀 점, 독서 미션, 필사해서 올리면 인정된다. 총 6차시 프로그램으로 최소 4차시를 올려야 도전 성공으로 인정이 되며 특별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책 읽기 도전' 기념품은 컵에 가족사진, 포토 자석에 로고를 찍어 주었다.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모습이 담긴 기념품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추억과 가족과의 독서 실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었다."며 밝게 웃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여자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으며 가족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기념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실질적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비대면이기는 하나 '책 읽는 가족'을 하면서 도전자 가족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도전자들이 서로에게 댓글도 달아주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며 작은 바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업무를 하다 보니 엄마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 오던 아이가 도서관을 계속 오는 것을 보면 행복해진다. 또 독서 효과를 높이려면 어른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도서관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아이와 동행해서 책을 고르면 아이의 취향도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 사서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독서의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리 가족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어떤 주제로 소통하고 있을까? 책과 함께하는 삶은 부모와 아이의 풍요로운 관계 형성과 정서에 도움을 준다. '도전! 글 쓰는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가족 소통이라는 주제, 멋진 기념품까지 선물해 주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참여 방법>
- 하루 한권 그림책을 가족이 함께 읽고, 당일 안으로 밴드에 게시글 작성
- 그림책 읽기/ 필사/ 독서미션 인증 크게 3가지 /필사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쓰든, 혼자 쓰든 상관없음
- 5월 17(월)~20일(목) 중 3일 인증
- 5월 24(월)~5월 27일(목)중 3일 인증
- 총 6회 /인증시간: 당일 오전00시~오후 23시 59분까지 (시간 넘을 시 미인증처리)

***취재 : 신정분 시민기자**

그림 8. 파주뉴스, '일거양득의 슬기로운 집콕, 도서관과 함께!'[10)]

10) 신정분 (2021. 5. 20.). 일거양득의 슬기로운 집콕, 도서관과 함께!. 파주뉴스 사이트. 출처: https://www.paju.go.kr/news/user/BD_newsView.do?q_ctgCd=1002&newsSeq=576

Ⅳ 프로그램 평가

1. 설문조사 평가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책 읽는 가족 시리즈' 가족팀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4번에 걸쳐 총 143팀, 484명, 연인원 3,608명이 설문 응답을 제출하였다.

가. 참여자 수

'책 읽는 가족'(39팀, 130명, 연인원 1,040명), '책 쓰는 가족'(37팀, 125명, 연인원 1,000명), '책 그리는 가족'(39팀 132명, 연인원 792명), '책 토론 가족'(28팀, 97명, 연인원 776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집콕 상황에 밤까지 가족 독서 활동이 가능하여 맞벌이 가정의 만족이 높았다.

나. 참가자 연령 및 거주지

'책 토론 가족'의 경우 유아는 이전 대비 참가율이 감소했고, 중고등학생은 이전 대비 참가율이 증가했다. '토론'이 어렵다는 이미지로 초등 고학년~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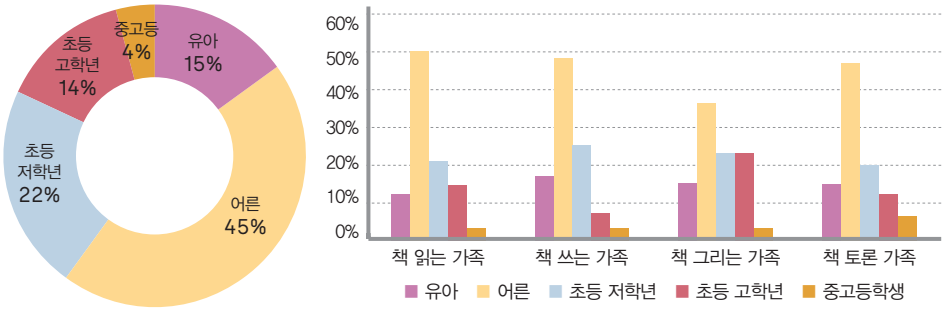


그림 9. 참가자 연령

다. 참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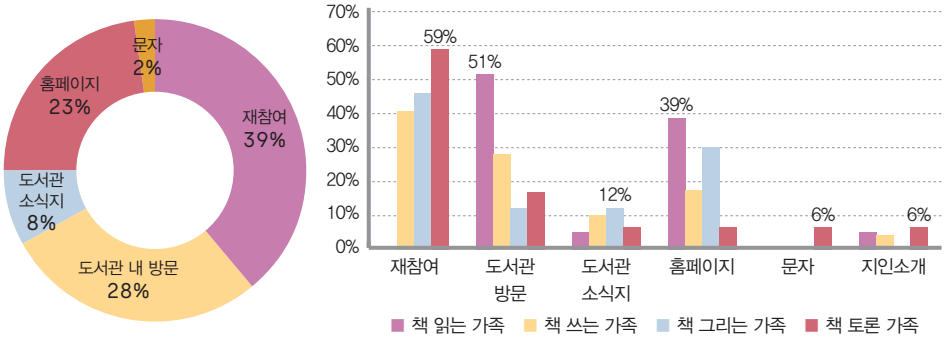


그림 10. 프로그램 참여 경로

4회 시리즈가 지속될수록 '재참여' 39%로, 프로그램 목표에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내 방문' 28%는 코로나19로 도서관 개관 시간의 잦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높았다. 담당사서는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포스터로 시각적 홍보에 노력했다.

라. 인증률과 인증 난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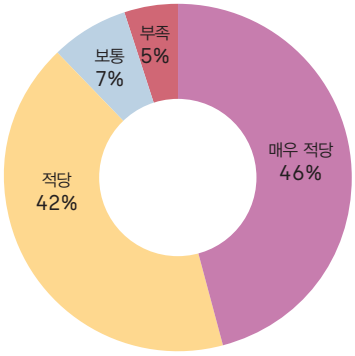


그림 11. 인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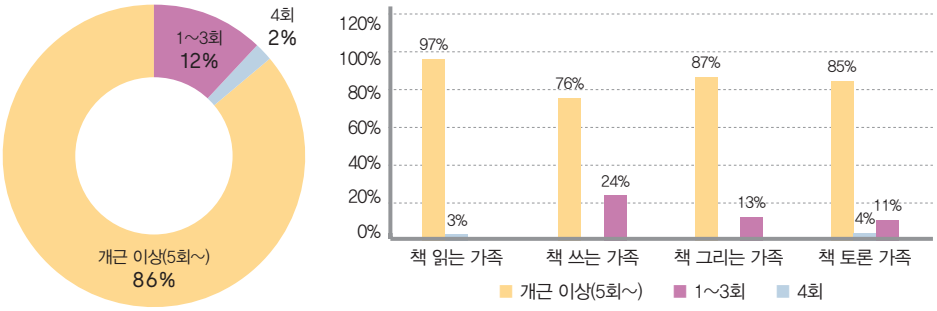


그림 12. 인증률

기간은 8일 중 원하는 5일만 인증하여 가족 간 일정 조정, 참여 중간 휴식이 가능하도록 고려했다. 참가팀 인증률은 '책 읽는 가족 시리즈' 평균 개근(5회 이상) 86%로 칭찬 선물 제공 기준이 다수였다.

마. 참가 만족도 및 목표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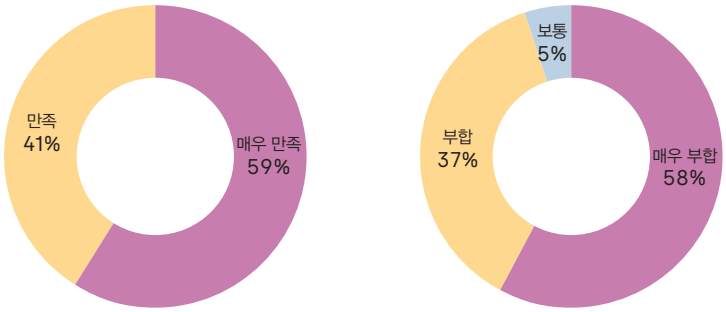


그림 13. (좌)참가 만족도, (우)목표 부합

'책 읽는 가족 시리즈' 목표는 가족이 하루 한 권 그림책 독서와 미션을 수행하여 다양한 접근의 독서와 가족 화합이었다. 목표에 '매우 부합' 58%로 대다수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참가자 반응으로 '책 내용과 미션으로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 '부모의 아이 독서 교육의 한계를 프로그램의 미션으로 극복했다'고 답했다.

또한 지속적 참여를 원하며, 맞벌이 가정과 외지 거주자도 참여 가능해서 좋았다고 답했다.

2. 참여자 후기

책을 즐겁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재참여해요.

도전 형식으로 여러 팀과 함께하니 목적의식이 생겨 좋았어요.

비 대면 도서관 활성화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미디어만 원하지 직접 보고 듣기는 멀어져요.

덕분에 가족이 소통하고, 아이들이 책을 직접 보고 생각하는 계기였어요.

3. 자체 평가

한울도서관이 2021년 2~7월까지 4회에 걸쳐 운영한 '책 읽는 가족 시리즈'는 가족이 하루 한 권의 책을 읽고 수행하는 미션(독서, 필사, 그리기, 토론)을 통해 가족의 소통, 화합, 독서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호응이 높았고, 담당사서도 사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가.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호응

이 프로그램에 대해 파주 시민기자 두 명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취재했다. 또한 2021년 2월 발행된 「파주 소식」의 '문화가 산책' 코너에 홍보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재참여율 39%, 참가 만족도 '매우 만족' 59%, '만족' 41%, 프로그램 목표 부합 58%의 수치로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증명되었다.

나. 참가팀의 성취감 증진 기여

미션 기준 횟수를 정확히 인증한 팀에 한해 특별 제작한 도서관 굿즈를 제공하였다. 굿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실용적인 물품으로, 도서관 로고와 시리즈별 콘셉트에 맞도록 제작했다. 굿즈는 도서관과의 특별한 추억 기억, 가족의 즐거운 시간 상기, 독서 생활화 지속을 위한 동기부여 등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책 읽는 가족'의 경우,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모습이 담긴 머그컵과 액자를 제작했다. '책 쓰는 가족'에서는 감명 깊은 책 속 구절을 캘리그래피 액자로 제작하였다. 또한, 어린이 자료실에 프로그램 결과를 전시해 모범적인 책 읽는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증진하게 되었다.

그림 14. '도전! 책 읽는 가족 시리즈'의 특별 제작한 도서관 굿즈

다. 참가팀의 지속적 참여 위한 노력

참가팀이 서로 댓글로 소통하는 '리플 친구'를 도입, 공지사항, 사서의 독서 칼럼, 매일 올라오는 인증 글에 댓글로 소통하였다. 참가팀들은 '책 읽는 가족'의 경우, 각자 인증하는 분위기가 아쉬웠는데, '리플 친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반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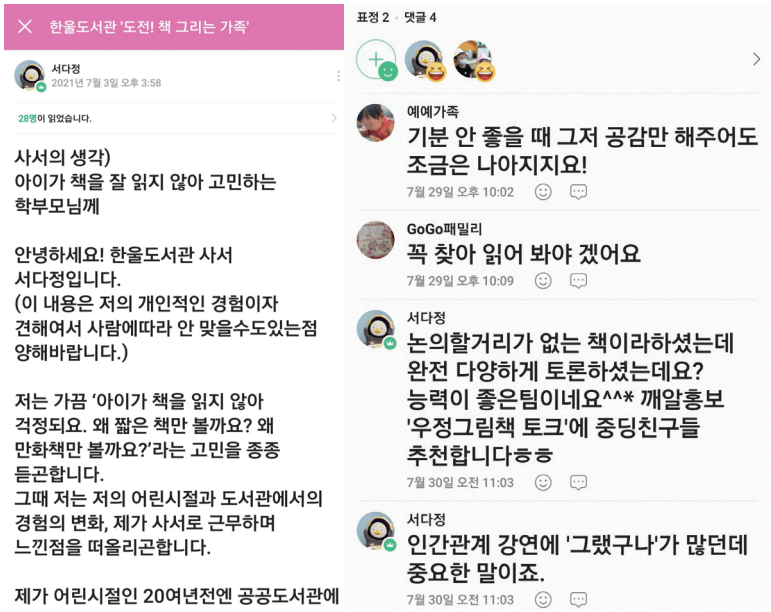


그림 15. 사서의 독서 칼럼 및 리플 친구

라. 도서관 서비스 이용 대상 범위 확대

온라인 진행이다 보니 기존 참가팀의 추천을 받고 온 지인, 도서관이 속한 운정권 외 타 지역인들(일산, 금촌, 문산, 교하 등)의 참여가 오프라인 때보다 증가했다. 일부는 '본인은 타 지역인인데 혹시나 코로나19가 끝나 도서관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이 끝난다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시간은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타 지역민과도 폭넓게 독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 사서로서 발전

코로나19 이전에는 도서관의 특정 주제와 대상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당연하게만 여겼다. 처음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온라인은 호응이 없고,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생각했다. 하지만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살피고, 참가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고민한 결과 충분히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며, 한계를 극복하여 사서로서 큰 발전이 되었다.

이 사례는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시민의 독서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가족의 독서 증진과 화합에 기여하였다. 한울도서관은 앞으로도 상황에 맞는 비대면 가족 독서프로그램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책 읽는 가족 시리즈'의 다양하고 질 좋은 미션을 발굴해 도입하고, 참가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가팀이 다양한 독서가 되도록 양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다.

Ⅴ 보완 및 발전 가능성

1. 보완점

'책 읽는 가족 시리즈'는 매회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에 보완하였고, 재참여율 39%의 성과를 거두었다. 4회 운영을 토대로 보완점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독후 활동의 온라인 매체 인증

요즘은 영상매체 시대로 특히 어린이들은 기성세대보다 이에 더욱 익숙하다. 독후 활동 인증을 글이 아닌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참가자 확보

참가팀 구성은 부모와 자녀이다. 비중을 보면, 유아 15%, 초등 저학년 22%, 초등 고학년 14%, 중고등학생 4%, 성인 45%로 유아, 초등 저학년의 참여가 높다. 참가 반응 중 일부는 '이 미션은 아이가 조금 힘들어했다'며 마치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잘못 인식했는데, 그 원인이 그림책의 이미지, 운영 주체가 어린이 자료실이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또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시공간의 제약으로 가족, 청소년, 성인이 참가하기 어려운 점이 아쉬웠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만이 아닌 청소년, 성인의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여 '그림책은 어린이 것'이라는 이미지 개선에 노력, 남녀노소 함께 참여 가능함을 알려주고 싶다.

결론적으로 '책 읽는 가족 시리즈'가 꼭 어린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하여 소외된 연령층에도 독서 혜택을 주고 어려운 미션도 도입해보고 싶다.

다. 밴드 인증 글 보관

참가팀은 인증 글이 가족의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담당사서는 인증 글을 유지하기 위해 참가팀에게 '인증 글 출력 주간' 등 의식적인 기록 보존 방법이 필요하다.

라. 어려운 미션 편견 감소 및 다양한 미션 시도

'책 토론 가족'의 경우, 처음엔 토론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참여해보니 생각보다 쉬웠다는 반응이었다. 이처럼 담당사서는 어려워 보이는 미션도 쉽게 접근하는 방안으로 참가팀의 독서 역량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추후 원하는 가족 독서 주제로 '책 읽는 가족 미션 혼합', '가족이 쓰는 그림책' 등 다양성을 요구했다. 남녀노소 두루두루 참여 가능한 미션 난이도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마. 참가자의 활동 미션 부담 감소 노력

'책 읽는 가족'에서 지정 미션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직접 선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책 쓰는 가족'의 대다수가 그림책 필사가 익숙지 않아서 필사 100%에서 50%로 부담을 감소하여 독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처럼 참가팀의 상황을 고려하여 담당사서의 융통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2. 발전 가능성

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발맞춘 도서관 비대면 독서프로그램

코로나 확진자는 2021년 8월 초 현재 2주 전 1,487명보다 242명 더 증가한 1,729명으로 주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11] 1년 8개월여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도서관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로 진행하여 어린 자녀도 부모와 함께 지속적 독서 활동이 가능하였다. 또한 다양한 미션 수행으로 새로운 방식의 독서와 가족 화합에 기여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특히 맞벌이 가정은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춘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성이 있다.

11) 이형진, 권영미 (2021. 8. 8.). '주말 최다' 확진자 1,729명… 비수도권 4차 유행 후 첫 700명대. 뉴스원.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396945

그림 16. 코로나19 국내 지역 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연간 추이

나. 도서관 이용 소외계층의 독서력 증진에 기여

이 프로그램은 가족팀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여 남녀노소 제약이 없다. 코로나 이전 도서관 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 시 시공간, 주제, 대상 등의 제약으로 정보 소외계층(직장인, 청소년, 청년, 성인 등)이 늘 존재했다. 이번에 정보 소외계층의 높은 참여율을 근거로, 주로 모객이 되는 대상을 우선하던 도서관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정보 소외계층의 참여 유도가 가능하여 앞으로도 이들의 독서 증진을 높여주는 발전성을 가졌다.

다. 온라인 참여의 장점 극대화

오프라인 프로그램 시 단시간에 참가팀의 결과물을 완성하기 어렵고, 다른 팀의 결과물을 보기도 힘들다. 이번 프로그램은 '네이버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 챌린지 형식으로 여러 팀이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결과물 공유 및 좋은 책 추천과 공감이 가능하다. 또한 2주라는 긴 시간 참가팀 간 댓글 소통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참여의 지속성을 이끄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라. 축적된 인증 사례와 도서 목록 큐레이션화

기획자인 담당사서와 참가팀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많은 지식을 축적하였다. 참가팀은 가족이 함께 인증한 밴드가 없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지식을 활용·공유하고, 참가팀에 성취감을 제공하고자 '책 읽는 가족' 결과 전시를 어린이 자료실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추후 모인 기록을 관리하여 참가팀의 좋은 책 추천 목록, 인증 글 모음집 등 기록물의 재생산과 공유가 가능한 점에서 독서문화 확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찬 (2021. 5. 9.). “내 임금 푼돈” 벼락거지에 좌절… 심리방역 비상 걸린 기업들. 중앙일보.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52959

네이버 밴드 (2019. 3. 18.). 네이버밴드 활동 정책. 출처: https://band.us/policy/operating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185–210.

송혜진 (2021. 7. 14.). 다시 번지는 코로나 블루… 기업들 “가족도 상담해드려요.”. 조선일보.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7/14/UK3BAEYI6BBRZHW3DWI3KEOASA

신정분 (2021. 5. 20.). 일거양득의 슬기로운 집콕, 도서관과 함께!. 파주뉴스 사이트. 출처: https://www.paju.go.kr/news/user/BD_newsView.do?q_ctgCd=1002&newsSeq=576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2020. 2. 10.). 코로나로 인한 수업일수 단축 허용. 출처: https://home-learn.co.kr/newsroom/news/A/943

이형진, 권영미 (2021. 8. 8.). ‘주말 최다’ 확진자 1,729명… 비수도권 4차 유행 후 첫 700명대. 뉴스원.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396945

파주시 민원봉사과 (2021. 6.). 최신 파주 통계. 파주 통계 사이트. [인용일: 2021. 8. 5.]. 출처: http://stat.paju.go.kr/

파주시청 (2021. 8. 6.). 온 가족 참여형 언택트 독후 활동! 한울도서관 ‘책 읽는 가족 시리즈’. 파주시청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paju_si/222458158916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 6. 29.).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출처: http://kstss.kr/?p=2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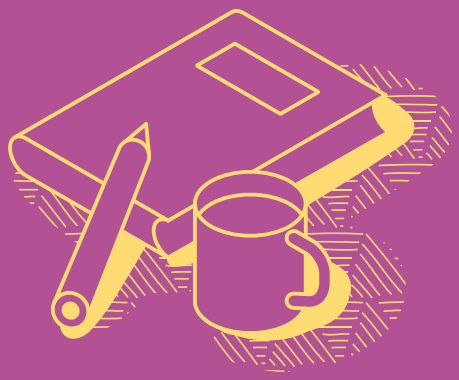
07

현장사례
장려상

시민소통창구, 효양도서관의 이유 있는 선택 "럭키초이스" (Lucky Choice)

허승연 · 박경미
이천시 도서관과

Ⅰ. 추진배경 159
Ⅱ. 추진의도 159
Ⅲ. 주요 프로그램 160
Ⅳ. 성과 및 결론 175



요약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효양도서관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시민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 마련과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이에 비대면 프로그램 및 소통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계정명: hyoyang_library)을 개설하여 누적 팔로워 1,010명을 달성하였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특강 '굿초이스'는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한 경험을 재조명하며 공감과 감동을 전하는 시간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시민소통프로그램 '럭키초이스(Lucky Choice)'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호응으로 시즌 3까지 연속 기획 운영하였으며, 사서의 행운을 담은 추천 도서와 정성 담긴 손편지는 어르신 및 가족의 따뜻한 메시지로 소통하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시해 시민들과 도서관의 물리적 제약은 있지만 언제나 책과 도서관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했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민들 서로서로를 위한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였다.

2021년 주력사업인 '초등교육, 독서가 답이다' 프로젝트를 6월 1일 개시해 사업 시작 3일 만에 신규신청자가 130명 참여해 호응이 폭발적이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씨앗, 떡잎, 개화, 열매 4단계로 구성되어 해당 연령의 독서 능력에 맞는 적합한 분량과 내용의 양서로 진행했다. 꾸러미 대출, 반납 시 제공되는 스티커로 단계별 스티커북을 완성하고 완독 시 인증서 및 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흥미 요소를 북돋웠다.

한편,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5~7세 대상)프로젝트, 집콕 힐링 그림책놀이, 비대면 독서모임 작심 3권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으로 이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효양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나아가고자 노력한다. 도서관은 많은 역사, 정보를 담은 저장매체이다. 따라서 시민 감동의 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기획 개발하는 과제를 안고, 시민 욕구 충족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써 좋은 방향의 나침반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Ⅰ 추진배경

가장 문턱이 낮은 문화기관인 '도서관'에 종사하면서 물리적인 거리두기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끈끈한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도서관,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은 닫힌 문 앞에서 책과 사람을 잇는 공간의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심리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였다.

팬데믹 위기로부터 함께 살아가야 하는 문화 공간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며 비대면 시대, 디지털 시대에도 '독서가 답'이라는 신념으로 책 읽기가 부모와 자녀를 더욱 가까워지는 재미있는 경험의 확장이 되고, 시민과 도서관을 잇는 사서의 역할을 통해 도서관이 결속력 있는 지역사회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Ⅱ 추진의도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도서관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열람서비스와 대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이 중단되었다. 기존에 하던 일들을 의구심 없이 반복해오던 일상 속에서 뉴노멀시대에 어떤 서비스를 기획해야 할 것인가 하는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 사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도서관의 기능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에 효양도서관은 능동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상을 바꿀 천 권의 책 읽기 사업을 벤치마킹해 유아와 부모에게 행복한 독서 경험을 안겨주고,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럭키초이스를 기획해 사서의 행운을 담은 추천도서 및 손편지 제공으로 시민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새로운 플랫폼과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전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럭키초이스 시즌 3의 참여자 송희순 어르신의 "구십을 살아

왔어도 이런 행복한 날은 없었지요. 도서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요."라는 말씀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 공간이 아닌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오늘의 도서관에서 사람 중심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나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Ⅲ 주요 프로그램

1. 시민소통 프로그램 럭키초이스 운영

이천시립효양도서관에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시민소통프로그램 '럭키초이스(Lucky Choice)'를 운영하였다.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호응으로 시즌 3까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사서의 행운을 담은 추천 도서와 정성이 담긴 손편지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시기에 효율적인 문화 활동 중 하나인 독서를 권장하여 이천시민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이천시청 2020년 4분기 민원처리 민원시책 분야 노력상에 선정되었다. 코로나19로 도서관이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럭키초이스로 책과 도서관이 행운의 매개가 되었기를 바란다.

가. 운영개요

운영일시	내용
2020. 4. 13.	'럭키초이스 운영' 사서 추천도서 2권+사서의 손편지+위기 극복 한마디 카드
2020. 5. 12.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도서관 전시
2020. 6. 4.	'럭키초이스 시즌 2 운영' 사서 추천 그림책 2권+힐링 컬러링 엽서 2종
2020. 6. 30.	시민들의 '힐링 컬러링 엽서' 도서관 전시
2020. 9. 4.	이천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2020. 9. 14.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럭키초이스 시즌 3' 운영 사서 추천 (큰글자책 1권+사서의 손편지+마스크+힐링 컬러링엽서 2종+색연필+당충전 홍삼캔디)
2020. 9. 24. ~9. 25.	럭키초이스 시즌 3 꾸러미 희망 장소로 방문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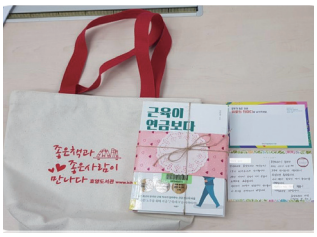
운영일시	내용
2020. 10. 14. ~10. 21.	럭키초이스 시즌 3 반납도서 방문 수거
2020. 10. 30.	'어르신들의 엽서' 도서관 전시
2020. 12. 11.	이천시 2020년 4분기 민원처리 시책 분야 노력상

구분	시즌 1	시즌 2	시즌 3
운영기간	2020. 4. 13.~5. 12.	2020. 6. 4.~6. 30.	2020. 9. 14.~10. 30.
대상	성인 100명	성인+아동 200명	65세 이상 어르신 30명
참여인원	100명	200명	30명

나. 럭키초이스 시즌 1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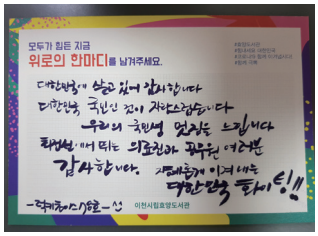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도서관 임시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예약대출 서비스 운영기간에 사서가 추천한 책을 선물해 지역주민의 독서 갈증을 해소하고, 대외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독서생활의 즐거움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효양도서관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그램 럭키초이스는 온라인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었다. 사서가 추천한 도서 2권(특별대출)과 사서의 손편지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마디 엽서로 구성된 꾸러미를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하는 시즌 1은 홈페이지 신청 2일 만에 마감되었고, 반납 꾸러미 속 시민들의 도서관 응원 메시지가 담긴 엽서는 개관 후 도서관에 전시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 있던 시민들이 책과 함께 연대해 이겨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사서의 손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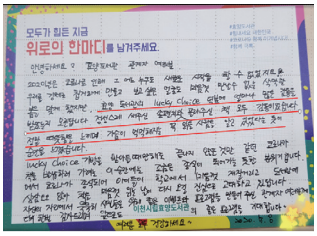


시즌 1 꾸러미 준비

시즌 1 꾸러미 수령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시민들의 응원 엽서 전시

그림 1. 시즌 1 운영사진

다. 럭키초이스 시즌 2 운영

럭키초이스 시즌 1의 높은 참여율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기획된 시즌 2에서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으로 인한 이천시 도서관 긴급휴관 결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즌 2에서는 사서 추천 그림책 두 권과 컬러링 엽서 2종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대상을 유아로 확대하고, 다양한 색채로 색칠을 해 볼 수 있는 컬러링 엽서를 제작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기분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즌 2 꾸러미 수령

반납용 컬러링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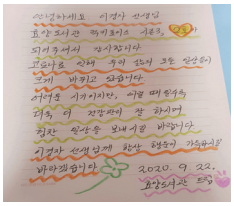
응원 메시지 전시

그림 2. 시즌 2 운영사진

라. 럭키초이스 시즌 3 운영

시즌 1, 시즌 2 모두 모집 2일 만에 마감되는 큰 호응을 얻은 후 기획된 시즌 3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사서 추천도서(큰글자책) 1권과 사서의 손편지, 마스크와 컬러링 엽서로 구성된 꾸러미 방문 전달 및 반납도서 방문 회수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여 일상에 지친 어르신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럭키초이스 시즌 3는 전화와 방문접수로 신청을 받았고, 접수 하루 만에 마감되었다. 꾸러미를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에 또 한 번 감동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애정이 많이 갔던 프로그램이다.



시즌 3 사서의 손편지 & 시즌 3 꾸러미

럭키초이스 꾸러미 방문 전달(9. 24.~9. 25.)

반납도서 방문회수(10. 14.~10. 21.)

어르신들의 엽서 답장

송희순(90) 어르신의 감동적인 답장

어르신들의 답장 엽서 도서관 전시

그림 3. 시즌 3 운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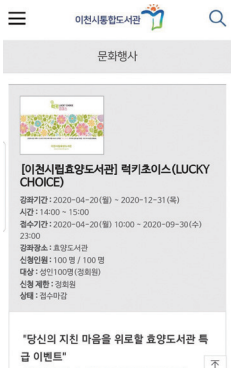
마. 참고자료(사진+후기)

1) 홍보자료

시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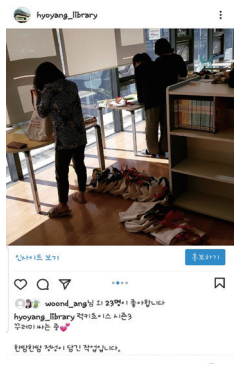
시즌 2

시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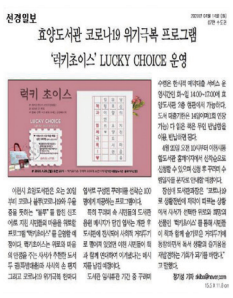
이천시 도서관 홈페이지

이천시도서관 밴드



효양도서관 인스타그램(@hyoyang_library)

2) 보도자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3 성료

3) 우수사례 발표

이천시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2020. 9. 4.)

4) 참여자 후기(시민들의 답장)

사서님께, 모두가 힘들게 지내는 요즘 아름다운 마음을 건네주는 사서 선생님이 계셔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손편지에 담긴 정성 어린 글과 럭키초이스 하신 책을 보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로 저희가 서로 힘이 되는 사회가 되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도서관이 되길 바랍니다.

얼어붙은 강 아래로 물이 흐르듯 휴관 중에도 멈추지 않고 책 읽기를 독려해주신 사서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하다. 주위 사람은 그다음 순위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즐겁고 인간관계도 순조롭다.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한동안 책을 놓고 살았는데 저의 관심 분야인 건강과 회사 업무에 대한 책을 추천해주셔서 정말 잘 읽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을 멀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책을 추천해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20. 5. 11.)

너무나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일상의 행복이 엄청난 기적이었음을 새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거리낄 것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며 맘껏 웃을 수 있던 시간들도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두 달여의 그 긴 시간들을 잘 버티고 버텨 신록이 무성하고 봄꽃이 지척인 오늘을 만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매일입니다. 나날이 푸르러 가는 자연의 생명력 그대로, 우리 모두의 내일은 분명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임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효양도서관의 럭키초이스 꾸러미를 통해 좋은 책 두 권을 잘 읽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일자리가 간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 한마디로 당신을 안아줄 수 있다면』, 『내일도 무사히 출근했습니다』 두 권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었고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서로서로 배려하고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 코로나를 함께 이겨냅시다. 모두 고생이 많아요. (박경진)

효양도서관 사서쌤의 정성스러운 손편지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큰 힘이 됐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이겨내고 도서관에서 만나요! 효양도서관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이네요. 하지만 우린 아직도 두꺼운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서로에게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답답하고 번거롭지만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간 우리 사회에도 봄 햇살이 내리쬐겠죠~ 그때까지 건강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0. 4.)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국민성 멋짐을 느낍니다. 최전선에서 뛰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이겨내는 대한민국 파이팅!! (럭키초이스 78호)

안녕하세요. 효양도서관 담당자님~ 코로나19로 모든 리듬이 깨지고 서로 힘들어할 때 우린 '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안타까워하는 시간들이 이 시기가 지나고 보면 그로 인해 더 감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보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5. 8. 허남한 드림)

지혜의 숲 효양도서관에서 오늘도 행복 가득 책 향기에 물들어봅니다.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어버린 지금 다 같이 힘을 내서 생활 방역 잘 지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뜰하게 잘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서 아웅다웅 있을 일도 없는데 조금 더 보람되고 소중한 추억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헛되이 보낸 이 시간을 후회 하지 않도록….

덕분에 저희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금 더 힘내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서로를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어느덧 주변은 봄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가끔은 화사한 봄날의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를 가져보지만 갑갑한 마음뿐. 어서 빨리 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효양도서관 파이팅!

힘내세요! 아직 살 만한 세상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듬뿍 모아 공유하는 효양도서관 되어주세요. 두 주먹 불끈! 아자 아자!!

마스크 끼는 생활이 일상이 된 요즘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 덕분에 완화될 수 있었기에 조금만 더 힘내서 자유로웠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는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백신 개발이 안 되어 앞으로도 마스크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지켜주시길 응원합니다. 마스크 속 답답함보다는 우리의 일상에 소중함을 느끼고 또 현재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복을 이끌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서로 돕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극복해요! 효양도서관이 있어 다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 (14번째 럭키초이스)

저는 효양도서관 럭키초이스 74호 김지윤입니다. 코로나로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선물로 받은 책 『침대부터 정리하라』를 읽고 요즘 힘든 생활도 이겨내면 희망이 옴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에서는 자녀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제가 자녀를 대할 때 유념할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효양도서관에서 저 자신과 제 아이에게 유익한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도서관이 문을 열어서 다행입니다. (2020. 5. 16. 김지윤 드림)

안녕하세요. 럭키초이스 27호 신청자입니다. 코로나로 평범했던 일상이 마스크 없이는 불가능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자는 전날 도서목록을 검색해서 예약대출을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도서관 선생님들은 예약된 책들을 찾아 이용자가 수령해 갈 수 있도록 매일 애쓰셨지요. 끝이 보이지 않았던 막막했던 시간들 속에서 일정 거리를 두며 서로가 노력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힘든 시기에 좋은 책들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낸다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잃어본 후에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나와 주변 사람을 위한 노력들이 버거워져도 삶의 작은 이벤트로 또다시 기운 내봅니다. 모두 힘내세요!

5) 참여자 후기(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답장)

만날 수도 없고 외로웠는데 효양도서관이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선생님들 고마워요. 구십을 살아왔어도 이런 날은 없었지요. 어서 선생님을 만나길 기원합니다.(90세 송희균 어르신)

코로나19 독서로 이겨냅시다.(갈산동 Y.B.C.)

좋은 인연이 된 효양도서관을 만나 행복합니다. 효양 북카페와 함께한 이 행복함을.
이천 시민 모두가 같이 느끼면 참 좋겠다.

효양도서관 허승연 사서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료진들만 고생한다 생각했는데 도서관에서도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많은 고민하시고 귀한 프로그램으로 추천 책을 받고 뜻밖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색칠그림도 해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효양도서관에서 젊은이는 삶에 지혜를, 늙은이는 황혼의 평안을 코로나로 쉼의 여백을 당차게 누리자 모두 함께

안녕하세요, 효양도서관 선생님. 외로운 노인에게 그림책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손주 녀석 색칠공부 구경하다가 처음으로 색칠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것은 길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에 양식이 있습니다. 일 년 중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효양도서관 럭키초이스와 함께 행복하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효양도서관 좋은 프로그램 럭키초이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6) 담당자 후기(사서 허승연)

팀장님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좋은 사업이다 확신한 '럭키초이스.'
"답장이 과연 돌아올까?" 이용자 취향에 맞는 도서를 선별하고, 새벽까지 직접 손편지를 작성하면서도 내내 걱정했던 질문입니다. 예쁜 글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정성을 쏟아 보내드린 엽서에 대한 수많은 시민의 답장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응원 엽서는 도서관에 전시되어 서로에게 위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 럭키초이스 시즌 3를 운영하며 직접 방문한 90세 어르신께서 "구십을 살아왔어도 이런 날은 없었지요."라며 써주신 감동적인 엽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꼭 어르신들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도서관에서 그림책놀이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럭키초이스' 사업을 통해 실무자가 아주 조금만 더 고민하고 실행하면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시민공감 라이브특강 '굿초이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긴급 휴관 및 대면 프로그램 중단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2020. 6. 12.) 및 라이브 방송 '굿초이스(Good Choice)'를 기획하여 새로운 이용자층과 실시간 소통과 이벤트를 포함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하였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운영을 통한 신규 팔로워 증가로 도서관 홍보의 효율성을 높였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 교육, 취업, 과학 등을 주제로 실시간 소통 강연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일상이 바뀐 만큼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중이다.

가. 운영개요

운영일시	내용
2020. 6. 12.	효양도서관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계정명: hyoyang_library)
2020. 7. 6.	1차시(몸도 지구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제로웨이스트) 허유정 작가
2020. 8. 13.~8. 20.	2차시(언택트 시대에 콘택트 교육을 고수하는 이유) 이새롬 강사
2020. 9. 26.	3차시(창업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회사원 이민수
2020. 10. 20.	4차시(과학적사고를 통해 세상 바로 보기) 이천중학교 수석교사 김정식
2021. 4. 30.	시즌 2-1차시(넘어져도 괜찮아) 현 감정코칭 강사 전 수석교사 사경희
2021. 5. 14.	시즌 2-2차시(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미래) 아이랑 밴드 보컬 표애랑
2021. 5. 21.	시즌 2-3차시(그림책이 주는 위로와 긍정) 그림책 작가 김경희
2021. 8. 현재	효양도서관 인스타그램 누적 팔로워 수 980명(개설 1년여 만의 놀라운 성과)

나. 굿초이스 시즌 1 운영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굿초이스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의 허유정 작가를 초청하여 제로웨이스트 살림법 등에 대한 작가의 노하우를 나누었다. 누구든지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우리 몸과 지구에도 무해한 살림법에 관한 특강으로 일반적인 강연 방식이 아닌 실시간 시민 참여와 소통을 재미있게 이끌어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고, 굿초이스 라이브 특강을 월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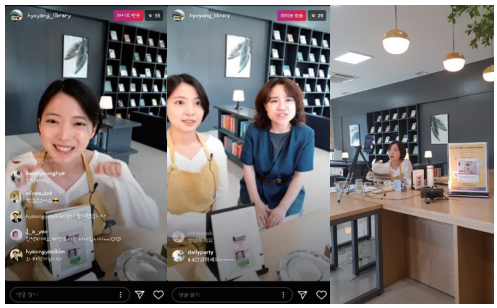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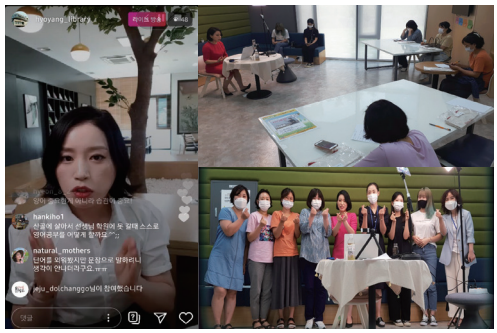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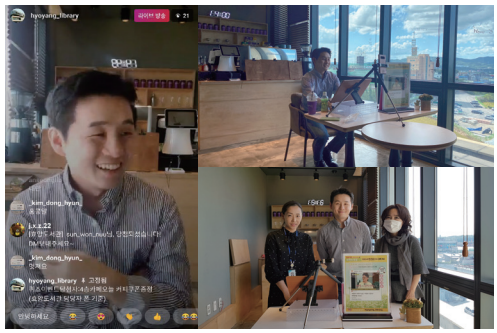
첫 번째 방송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한 만큼 두 번째 특강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영어교육을 주제로 선정하여 '언택트 시대에 콘택트 교육을 고수하는 이유'를 주제로 이새롬 영어강사를 초청하여 끝이 안 보이는 영어를 재밌고 쉽게 배우는 노하우 등을 소개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방송은 MBC 밥벌이 예능 '아무튼 출근' 1회에 출연한 90년생 직장인 이민수가 초대되어 '취업과 창업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를 주제로 창업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 중인 청춘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들려주었다. 방송 시청 후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이라고 밝힌 이용자는 타인의 경험과 고민에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남겨주었다.

네 번째 방송은 이천중학교 김정식 수석교사를 초청하여 '과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초능력자는 존재하는가? 등의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세상에 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결국 '초능력자는 엄마다'라는 재미있는 농담과 함께 아이처럼 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사고방식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된다는 가르침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인공지능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협업하고 소통할 대상이라는 선생님 말씀처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다.

이처럼 효양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독서와 관련된 특강을 고집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다양한 전문 분야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하고 있다.

1) 시즌 1 운영사진

연번	소개	사진
1차시	■ 주제: 몸도 지구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Zero-Waist) ■ 방송일시: 2020. 7. 6.(월) 14시 ■ 강사: 허유정(작가) ■ 참여인원: 310명(실시간 조회 포함)	
2차시	■ 주제: 언택트 시대에 컨택트 교육을 고수하는 이유 ■ 방송일시: 2020. 8. 13.(목) 13시, 2020. 8. 20.(목) 13시 ■ 강사: 이새롬(강사) ■ 참여인원: 737명(2회 강연) (실시간 조회 포함)	
3차시	■ 주제: 창업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 방송일시: 2020. 9. 26.(토) 14시 ■ 강사: 이민수(회사원) ■ 참여인원: 227명(실시간 조회 포함)	
4차시	■ 주제: 과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 바로 보기 ■ 방송일시: 2020. 10. 20.(화) 14시 ■ 강사: 김정식(이천중 수석교사) ■ 참여인원: 212명(실시간 조회 포함)	

다. 굿초이스 시즌 2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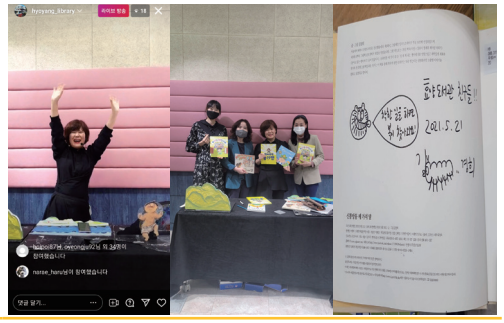
2021년 굿초이스 시즌 2는 더욱 다양한 분야 활동가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경희 교사로 '넘어져도 괜찮아, 그 힘으로 살아'를 주제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을 공감하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두 번째 방송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미래'라는 주제로 IRANG(아이랑) 4인조 어쿠스틱 밴드 보컬 표애랑과 이형희 교수님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이천의 가수 표애랑의 라이브 음악을 듣는 힐링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방송은 '그림책이 주는 위로와 긍정'을 주제로 김경희 그림책 작가를 초청하여 작가의 1인 인형극 〈신통방통 세 가지 말〉을 감상하고 『괜찮아 아저씨』를 함께 읽어보는 등 그림책 이야기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효양도서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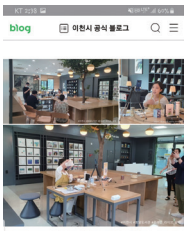
1) 시즌 2 운영사진

연번	소개	사진
1차시	■ 주제: 넘어져도 괜찮아 ■ 방송일시: 2021. 4. 30.(금) 14시 ■ 강사: 사경희(수석교사, 감정코칭강사) ■ 참여인원: 289명(실시간 조회 포함)	
2차시	■ 주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미래 ■ 방송일시: 2021. 5. 14.(금) 14시 ■ 강사: 표애랑(아이랑 밴드 보컬) ■ 참여인원: 194명(실시간 조회 포함)	

연번	소개	사진
3차시	■ 주제: 그림책이 주는 위로와 긍정 ■ 방송일시: 2021. 5. 21.(금) 14시 ■ 강사: 김경희(그림책 작가) ■ 참여인원: 137명(실시간 조회 포함)	

라. 참고자료

1) 온라인 홍보활동


이천시청 블로그

이천시청 인스타그램

이천시 공공도서관 밴드

이천시도서관 홈페이지

효양도서관 인스타그램

2) 홍보문

1회 방송

2회 방송

3회 방송

4회 방송

5회 방송

6회 방송

7회 방송

3) 보도자료

1회 방송
(2020. 7. 6.)

2~3회 방송
(2020. 8. 13.~8. 20.)

4회 방송
(2020. 9. 26.)

5회 방송
(2020. 10. 20.)

시즌 2 방송
(2021. 4. 20.)

3. 비대면 독서모임 '작심3권'

신년을 맞은 시민들에게 양서인 벽돌책 3권을 완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작심3권은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독서모임을 통해 벽돌책 완독의 경험으로 2021년을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시민(아미초 이서영 교사)은 "효양도서관 작심 읽기 프로그램은 코로나를 막는 벽돌이 되어주었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문화에 쏙 빠져들게 했다. 책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신나는 일이다. 이런 가슴 벅찬 기획을 해주신 효양도서관에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가. 운영개요

운영일시	내용
2021. 1. 25.~2. 23.	1기 『코스모스』 함께 읽기
2021. 3. 2.~3. 29.	2기 『사피엔스』 함께 읽기
2021. 4. 1.~4. 28.	3기 『이기적 유전자』 함께 읽기
2021. 8. 3.~8. 31.	시즌 2, 1기 『호모데우스』 함께 읽기
2021. 9. 1.~10. 1.	시즌 2, 2기 『정의란 무엇인가』 함께 읽기
2021. 10. 5.~11. 2.	시즌 2, 3기 『2050 거주 불능지구』 함께 읽기

나. 작심3권 운영

1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수제로 운영한 작심3권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매일 정해진(20페이지 내외) 범위를 읽고 마감시간까지 단톡방에 인상 깊은 부분 발췌 및 단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공유하며 친분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을 함께했다. 또한 담당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각각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엿봄으로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끈끈한 연대를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았다. 좋은 책을 완독했을 때 모두 환희했고, 감격했고, 어느새 책동무가 되어 있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공간에서의 독서 경험은 새롭고, 신선했고, 감동적이었다. 시민들이 보여준 노력의 시간과 응원의 메시지는 개인적으론 업무의 책임감을 높여주었고, 도서관에서는 사람이라는 귀한 재산을 얻게 되었다. 다른 시군에서 문의가 많았던 시대적 흐름에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한다.

다. 참고자료(사진+후기)

1) 홍보문

2) 언론보도

2021년 01월 08일 (금)
수도권 07면

현대일보

이천 효양도서관, "새해 독서 함께해요"

독서모임 '작심 읽기 3권'

이천시립효양도서관은 오는 1월 25일부터 신년을 맞은 시민들에게 벽돌책 3권의 양서를 완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작심 읽기 3권'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독서 모임은 숭례문학당 논제 연구소 연구원이자 책쟁이 아이들 교사인 장정윤 강사와 함께 기수별(3기)로 진행하며, 카카오톡으로 매일 정해진 범위(20페이지 내외)를 읽고 단톡방에 인상 깊은 부분을 발췌하고 단상을 올리면서 완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기 코스모스 함께 읽기(1.25.~2.23.) △2기 사피엔스 함께 읽기(3.2.~3.29.) △3기 이기적 유전자 함께 읽기(4.1.~4.28.)로 독서에 관심이 있는 성인 45명(기수별 15명)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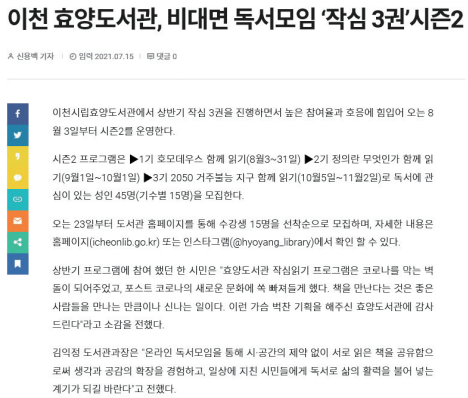
1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icheonlib.go.kr)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도서관 담당자는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새해 결심인 독서 다짐 달성과 책으로 좋은 만남을 갖는 의미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천/서형일 기자 shm@hyundailbo.com

171 X 64 mm

시즌 1(2021. 1. 8.)



이천 효양도서관, 비대면 독서모임 '작심 3권'시즌2

신용백 기자 | 입력 2021.07.15 | 댓글 0

이천시립효양도서관에서 상반기 작심 3권을 진행하면서 높은 참여율과 호응에 힘입어 오는 8월 3일부터 시즌2를 운영한다.

시즌2 프로그램은 ▶1기 호모데우스 함께 읽기(8월3~31일) ▶2기 정의란 무엇인가 함께 읽기(9월1일~10월1일) ▶3기 2050 거주불능 지구 함께 읽기(10월5일~11월2일)로 독서에 관심이 있는 성인 45명(기수별 15명)을 모집한다.

오는 23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icheonlib.go.kr) 또는 인스타그램(@hyoyang_library)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 했던 한 시민은 "효양도서관 작심읽기 프로그램은 코로나를 막는 벽돌이 되어주었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문화에 쏙 빠져들게 했다. 책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이나 신나는 일이다. 이런 기슴 벅찬 기획을 해주신 효양도서관에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익정 도서관과장은 "온라인 독서모임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로 읽은 책을 공유함으로써 생각과 공감의 확장을 경험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독서로 삶의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즌 2(2021. 7. 15.)

3) 참여자 후기(1기 코스모스 참여자 후기 모음)

드디어 끝을 맺었네요.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던 것을 숙제하듯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췌하는 일이나 단상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읽을 때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더군요. 읽는 시간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코스모스로 하루의 시작을 함께해주신 모든 코스모스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코스모스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몇 년 전부터 보고 싶어 사놓고 끝까지 읽지 못했던 책이다. 이번 수업으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올 수 있었음이 감격스럽다. 그리고 감사하다. 지금까지 이 코스모스에서 그것도 지구의 대한민국 이천시립효양도서관을 통해 함께 인연이 된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중간에 몇 번 손을 놓았다가도 다시 힘을 내게 도와주신 장정윤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다. 우리 하나하나는 모두 귀중하다는 칼 세이건의 말처럼 모든 생명체를 우리의 동반자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된 듯하다.

20일간의 코스모스와의 만남이 오늘로 끝이 났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코스모스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다. 단상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들의 단상을 읽으며 미숙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도움도 받았다. 얼굴을 모르는 낯선 이들이었지만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우리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벽돌책을 읽는 데 20일이라는 시간을 들인 것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코스모스와의 만남은 설렘을 주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만을 읽고 있을 때, 어지러운 집안은 잠시 내버려둘 때,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인증을 위해 새벽에 일어날 때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간을 극복했기에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막한 우주처럼 코스모스 책의 세상도 넓고 넓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주의 신비와 경외감 그리고 인류의 책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드디어 코스모스 작심 읽기가 끝이 났다. 20일 만에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했던 의구심이 책 분량의 절반을 넘겼을 때 어느새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함께 읽기의 놀라운 힘이었다.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매일 함께 읽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 겨울날 어느 때보다도 책을 곁에 두었다. 병원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그 잠깐 동안에도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을 텐데 두꺼운 책을 꺼내 자를 대고 밑줄을 긋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효양도서관 작심 읽기 프로그램은 나에게 정말 깨고 싶지 않은 꼭 지키고 싶은 소중한 약속이었다. 이런 가슴 벅찬 기획을 해주신 효양도서관과 20일 독서 일정을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장정윤 선생님, 함께 읽기 약속을 잘 지켜주신 든든한 책동무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책읽기를 실천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4) 담당자 후기(팀장 박경미)

과학책이지만 칼 세이건의 굉장한 식견으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구의 역사, 지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깨닫게 한다. 저자의 방대한 지식과 아름다운 문장력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며 너무나 작은 곳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한다.
우리 인간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고 그 최소한의 정보가 내 유전자에 저장되어 뇌가 생겼고 뇌로는 감당이 안 되니 보관 장소인 도서관이 생기고 '기억의 대형 물류창고'를 도서관이라 부름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공공도서관이 인류 문화 창달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과 지구 문명의 지속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우리의 기부 규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작심3권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코스모스의 이모저모 단상을 통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00여 쪽의 장서를 20일간 매일 15명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고 느낀 단상에 공감적 이해를 넘어 감동으로 자극되었다. 아낌없는 참고자료를 공유하고, 매일 자료를 업로드하여 개개인마다 격려와 답글로 이끌어주신 장정윤 선생님께도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낸다.
도서관을 대형 물류창고라 표현하듯이 요즘은 도서관 기능이 굉장히 넓어져 단순히 저장만이 아닌 늦은 시간까지 고민하며 고퀄리티 소프트웨어를 기획 주도하는 담당 주무관에게도 감사와 노고에 칭찬의 마음을 전한다.
그동안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대형 물류창고로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다. 회의 자리나 기회가 날 때마다 작심3권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화두로 계속 올리며 신선한 에너지를 나누게 된다. 놀라게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큰 감사와 박수를 드린다.

Ⅳ 성과 및 결론

2014년 3월 개관한 효양도서관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혹독한 상황의 멈춤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받아들이고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전염병의 시대를 예측하여 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시스템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했다. 찾아오는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시민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코로나 블루 마음 처방전으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그대 안의 블루'를 시작으로 시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효양도서관 힐링 이벤트 책과 함께 럭키초이스를 기획하여 한시적 예약대출 서비스 기간 중 럭키초이스 꾸러미를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꾸러미는 이용자의 독서 취향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관심 분야 도서와 비관심 분야 주제 도서를 2권 추천하였고, 사서가 직접 고른 책과 함께 정성 들여 쓴 편지를 동봉하였다. 많은 분이 답장을 회신해주었고, 응원의 메시지는 효양도서관에 전시 중이다. 돌아온 엽서 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 있었던 이천시민들이 도서관과 함께 책과 연대 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온라인 접수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 럭키초이스 시즌 3는 방문과 전화접수로 신청받아 직접 꾸러미를 방문 전달 및 회수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위축된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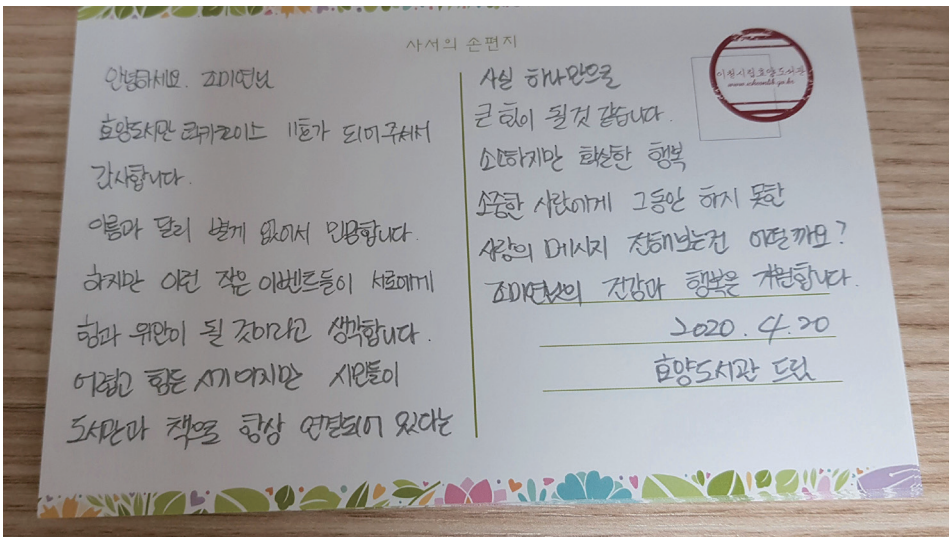
효양도서관은 시민의 심리방역을 책임지고 있다.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심리안정 프로그램 '그대 안의 블루'를 1차시 강연, 2차시 오프라인 1:1 상담 및 유선상담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참여자들의 개별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자기성격이해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잠시 나를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며, '좋은 강연을 참여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힐링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해가는 저 자신에게도 파이팅!'이라는 후기를 남겨주었다.

시민이 신뢰하는 정보 코너 기반을 구축해 소통, 공감, 감동으로 나아가는 콘텐츠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고령화 시대와 전염병 시대를 대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파랑새 거점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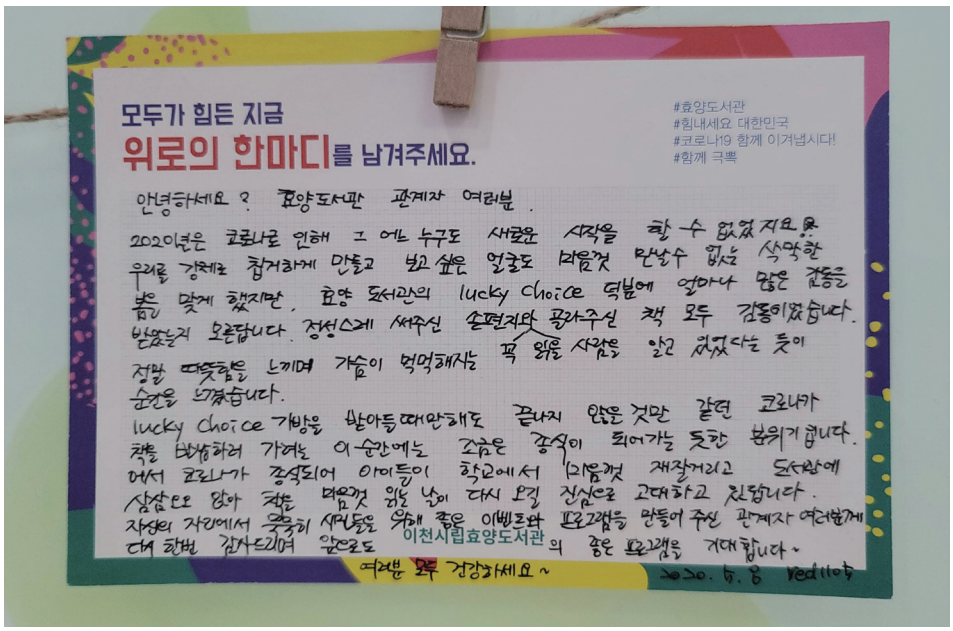
또한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시즌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도서관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며 많은 역사, 정보를 담는 저장매체로 기능하기 위해 시민 감동의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시민 욕구 충족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써 좋은 방향의 나침반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시민소통 창구 효양도서관의 이유 있는 활약을 기대해주기 바란다.

부록1 사서의 손편지



안녕하세요. 조미연 님, 효양도서관 럭키초이스 11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과 달리 별 게 없어서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서로에게 힘과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들이 도서관과 책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중한 사람에게 그동안 하지 못한 사랑의 메시지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미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2020. 4. 20. 효양도서관 드림)



안녕하세요? 효양도서관 관계자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누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었지요! 우리를 강제로 칩거하게 만들고 보고 싶은 얼굴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삭막한 봄을 맞게 했지만. 효양도서관 lucky Choice 덕분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정성스레 써주신 손편지와 꼭 읽을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골라주신 책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따뜻함을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Lucky Choice 가방을 받아들 때만 해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코로나가 책을 반납하러 가려는 이 순간에는 조금은 종식이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재잘거리고 도서관에 삼삼오오 앉아 책을 마음껏 읽는 날이 다시 오길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천시립효양도서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부록3 65세 이상 어르신의 답장

늙어가며 웃을 일도 없었는데 집까지 방문하시고, 예쁜 미소와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동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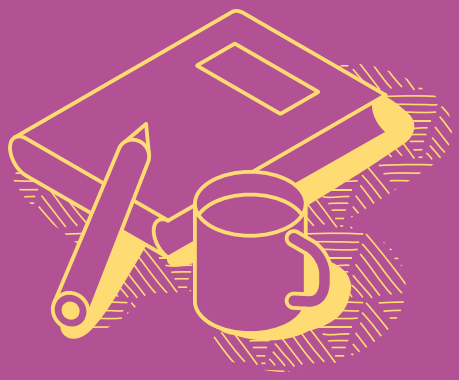
아이디어
장려상

청소년의 진로 자료 제공을 위한 웹 디렉토리 서비스 모형 개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적용을 중심으로

장효정 · 박미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Ⅰ. 서론 183
Ⅱ. 주제 브라우징(browse subjects) 사례 분석 190
Ⅲ. 진로 디렉토리 모형 195
Ⅳ. 결론 204



요약문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1년 7월 15일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에서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진로를 탐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비스를 선도하는 대표 국가기관으로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로와 진학에 연계하는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도입에 비추어 이를 자료검색에서 활용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탐색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들에게 친숙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디렉토리 분류체계와 규모, 디스플레이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 디렉토리를 구현할 때 대–중–(소) 분류 수를 비교하여 조직체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디렉토리 상위고정 여부, 디렉토리 내 재검색 유무, 소분류 디스플레이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진로 주제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구조화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탐색을 아우르기 위하여 권오현(2017)이 제시한 기본 5개 진학계열과 특성화 고등학교 현행 5계열을 재구성하여 설계하였다. 청소년 대상 진로 디렉토리를 10개 대분류와 44개 중분류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진로 디렉토리에 매핑한 KDC 분류기호를 기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수를 조사하여 실제 디렉토리 구현 시 제공될 수 있는 검색 건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사례분석으로 선정한 세 기관에서 도출된 4가지 시사점을 고려하여 진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적용한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의 디스플레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 전 계층을 망라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 계층에게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 접근점을 제공하는 기초연구로 그 의미를 지닌다. 이를 기초로 향후 청소년 대상 서비스에서 패싯 분류체계, 패싯 개념을 도입한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 및 패싯 내비게이션 설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교육정책에서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정책을 강조한 교육정책과 맞닿아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 대두 및 교육 체제 모색의 필요성 등 수많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으며,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해 배움의 질을 보장하고, 졸업이 곧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시 이러한 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1년 7월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1]에서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도서관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도서관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전국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작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도서관에서 만나보는 미래직업', '청소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북토크', '작가와 만남' 등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진로와 관련 있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2]

1)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발굴·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인증기관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2) 국립중앙도서관 (2021. 7. 2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 기관으로 선정–"청소년! 도서관에서 미래를 찾다" 프로그램 운영." 보도자료.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청소년 대상 진로·진학에 대한 자료 접근점 제공의 필요성

「도서관법」 제14조에 근거해 수립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3]은 도서관 이용자별 생애주기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확대할 것을 중점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경우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과 연계 수업과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강화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생애주기별 도서관 서비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비스를 선도하는 대표 국가기관으로서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아 청소년의 진학·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정보 접근 및 진로 도서검색 지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진학과 진로 도서에 대한 학교도서관이나 개별 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현재 진로와 진학에 연계하는 문화프로그램 기획·도입에 비추어 이를 자료검색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김지은(2018)[4]은 진로와 직업 탐색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 방안과 관련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진로탐색의 매개체로 도서를 활용한 진로탐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위 학교도서관에서 진로도서를 탐색하기에는 도서가 흩어져 있어 찾아보기가 불편하고 부족한 진로 도서로 탐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과 진로 상담을 할 때 면담자료로 활용하도록 진로 도서를 추천해줄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4) 김지은 (2018). 진로와 직업 탐색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전문가나 해당 진로와 관련한 도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때 진로와 관련된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직업과 진학에 관련한 다양한 도서가 없어 진로와 연계할 방법이 시급하다고 요구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나 개별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물적·인적 자원 여건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진로 자료검색 접근점을 제시하는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감을 지닌다.

도서는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과 특화될 수 있는 요소로, 독서진흥을 유도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연계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5)]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진로와 관련 있는 주제로 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능동적 독서 활동으로 이어지는 데 지금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검색 시스템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은 관련 도서를 연계하거나 이용자의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도서관 장서가 결합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확장력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검색은 키워드 검색, 한국십진분류법(KDC) 기반의 주제별 검색 등 장서에 기반한 자료검색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고 있고, 그중에서 청소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진로와 관련한 도서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는 진로와 관련한 주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주제별 검색 역시 한국십진분류법(KDC)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지만, 전반적으로 '학문분류' 체계를 따르는 한국십진분류법 분류체계는 추상성이 강하며, 학문의 논리성을 기준으로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주제 접근방식은 '진학'과 '진로'에 중점을 둔 청소년의 관심이 능동적 독서활동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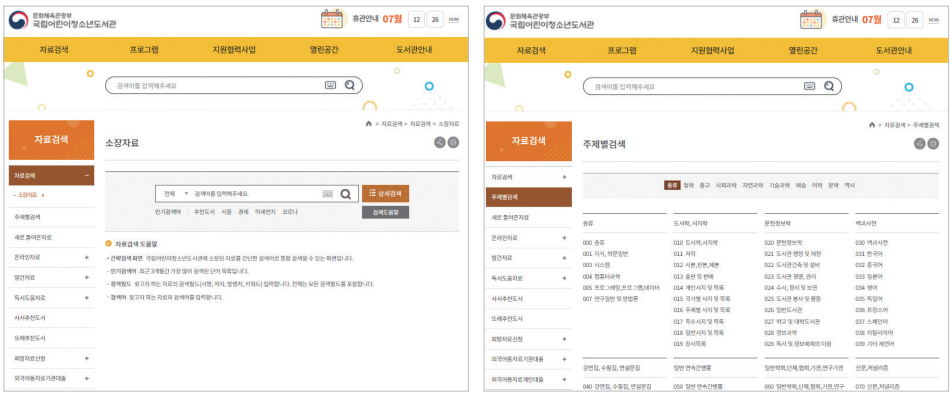


그림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키워드 및 주제별 자료검색 화면

5) 최상희 (2020). 공공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유형 분석 연구 : 미국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51-374.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그림책 또는 삽화가 있는 책을 주로 읽는 연령의 어린이들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6] 따라서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아동 이용자를 주요 대상층으로 하는 '책 읽기 활용 독서자료', '다국어 동화구연', 'AR(증강현실) 독서활동' 서비스에서 확장하여 청소년 이용자층을 망라하는 유용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YALSA(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7]가 제시하는 도서목록은 청소년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 좋은 출발점으로 YALSA 웹사이트에는 청소년을 위한 우수도서(Best Books for Young Adults)로 선정된 우수도서 목록이 1998년 자료부터 제공되고 있다. 해제가 있는 각 목록에는 12~18세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소설과 비소설 서적들이 60~80권씩 담겨 있는데 특히 대학 진학생들을 위한 도서목록(Outstanding Books for the College Bound)은 5년 간격으로 갱신되고 연령에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장도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문학, 역사·문화, 문학·언어, 과학·기술, 사회과학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제공되며, 주된 이용 대상은 다양한 주제 영역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자 하는 9~12학년생들로 이 목록은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목록으로 이용되고 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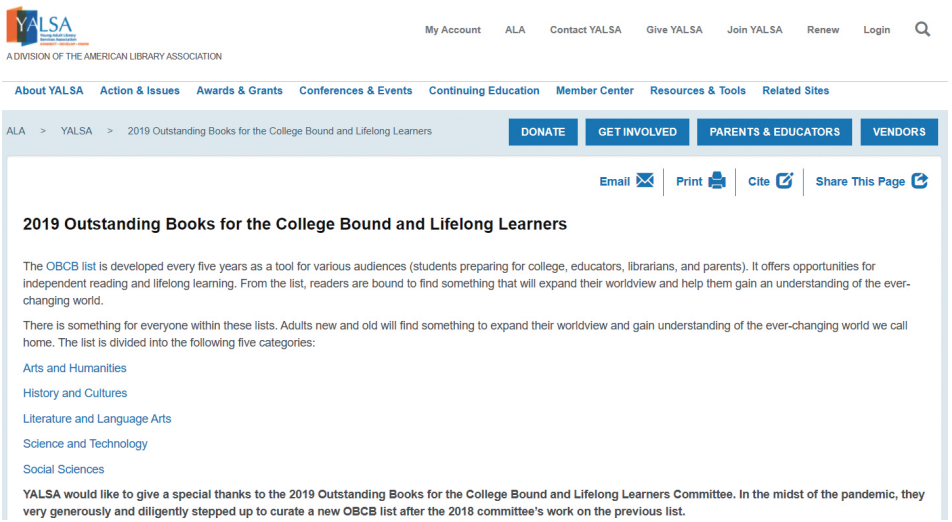


그림 3. YALSA[9]의 2019년 대학 진학생들을 위한 도서목록

6) 유재옥 (2009). 어린이청소년자료 온라인종합목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5-15.
7) YALSA. YALSA's book awards & booklists. Available: www.ala.org/yalsa/booklists
8) Fink, M. P. (2015). Teen Services 101: A Practical Guide for Busy Library Staff. 이종권, 노동조 역 (2015). 청소년 서비스 101: 청소년 서비스 실무 가이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출처: https://www.nlcy.go.kr/NLCY/contents/C10404000000.do
9) YALSA. YALSA's book awards & booklists. Available: www.ala.org/yalsa/booklists

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주제 디렉토리의 필요성

키워드 기반의 검색엔진에 병행하는 디렉토리 서비스는 인터넷의 이용형태를 단순화하려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검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적절한 분류체계는 분류검색의 효율성을 향상한다. 대표적인 과학정보서비스인 미국의 NSDL(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은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도서관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우수한 온라인 교육정보원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이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높이는 과학 리터러시(science literacy) 향상을 목표로 서비스한다.[10] 따라서 NSDL에서는 학습 응용 프로그램 준비성 개념을 구축함으로써 학습 커뮤니티에 여러 사이버 인프라와 다양한 맥락에서 관련성이 높은 양질의 STEM 교육자원을 제공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기반을 두고 교육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NSDL은 주제검색으로 응용과학, 교육, 역사,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6개 대분류와 컴퓨터와 정보, 공학, 기술, 역사, 법, 정치, 환경, 토지와 농업, 대수학, 산수, 함수, 지리, 측량과 데이터, 숫자와 운용, 비율과 비례, 분석과 확률, 삼각법, 화학, 지질학, 물리학, 우주과학 21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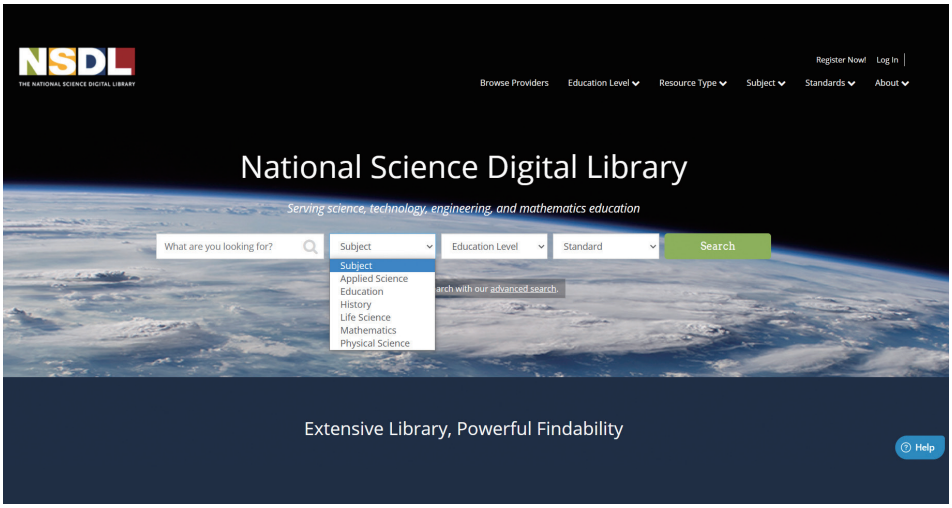


그림 4. NSDL의 검색 초기 화면

10) 곽승진 (2004). 청소년 과학 분야 디지털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6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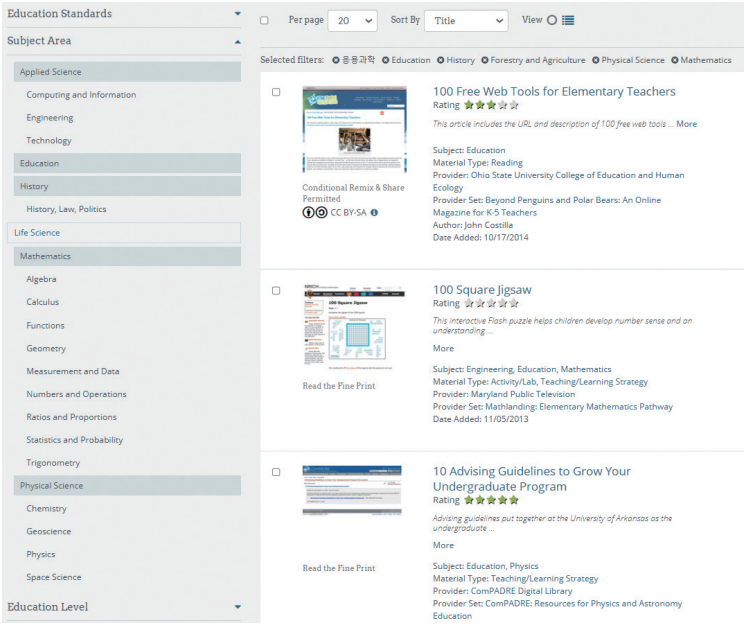


그림 5. NSDL의 주제별 디렉토리

이처럼 국립청소년도서관의 주제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은 청소년들의 자료검색에서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검색엔진의 초보 사용자나 특정 주제에 대한 브라우징을 원하는 이용자의 경우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찾는 경향이 있고 인터넷 포털검색에 익숙한 청소년 계층의 경우 진로에 대한 정보요구가 반영된 디렉토리 서비스는 진로에 대한 정보 획득에 막연함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는 효율적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진로 분야에 어떠한 정보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거나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가 모호할 경우, 특히 유용하게 접근하기 위한 경로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탐색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들에게 친숙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곽승진(2004)은 청소년 대상 과학 분야 메타검색 시스템과 개별검색 시스템 및 교과별 디렉토리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과학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제별 디렉토리 시스템을 선정하고, 7차 교육과정을 반영 교과별 디렉토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교·평가한 결과 청소년 대상의 과학 분야 정보시스템에서는 수업과 연계된 일관된 접근점을 제공하는 교과별 주제 디렉토리 시스템이 일반 주제별 디렉토리 시스템보다 사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당시 과학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청소년들의 과학과목 실력 저하 및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과학정보에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친근한 과학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효율성을 입증한 데 그 의의가 있었다. 이는 현재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지금의 시점과 매우 닮았고 진로 교과과정을 반영한 디렉토리 서비스의 개발은 곽승진(2004)의 연구에서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김지혜(2010)는 DDC 기반의 패싯형 디렉토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분류표를 목록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류기호에 담긴 '주제'를 접근점으로 내세운 패싯형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고도의 지적작업이 요구되는 분류업무를 패싯 디렉토리 서비스에 직접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분류를 브라우징에 효과적인 체계적 구조로 보고 주제접근을 위한 디렉토리 서비스에 접목한 점은 주제명 접근점이 미비한 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검색 상황에서 기존의 안정적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 접근점을 고안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4.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진로 지원 기능을 확보하고 청소년이 관심 진로로 능동적 독서활동으로 확장하는 기초 서비스로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에서 단순 주제별 분류체계보다 교과과정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권오현(2017)[11]이 개발한 '대학전공별 고등학교 교과별 선택과목'에 따른 기본 5개 계열, 하위 17계열 진학계열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구성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과목인 전문교과 Ⅱ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구 과목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초자료로 권오현(2017)의 연구와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과목인 전문교과 Ⅱ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구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권오현(2017)의 연구는 계열별 분야의 진로와 이수과목 예시로 학생들이 진로적합성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2017년 교육부 의뢰로 개발하여 현 고교학점제에 도입되는 교과목의 내용과 성격,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망라해 구성해서 디렉토리 구성에 가장 적합한 연구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문교과 Ⅱ의 17개 탐구 교과는 산업현장의 요구와 직업계고 교육내용 간의 불일치를

11) 권오현 (2017). 진로·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교육부.

완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 기반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직업교육과정을 도입한 교과목이다. 전문교과 Ⅱ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행계열인 상업정보, 가사·실업, 공업, 수산·해운, 농생명산업 5계열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총 17개 교과군으로 구성되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탐색까지를 아우르는 자료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권오현(2017)이 제시한 기본 5개 계열, 하위 17계열의 진학계열과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과목인 전문교과 Ⅱ의 17개 탐구 교과의 이수내용 유형 및 해당 교과목을 분석하고, 분석 내용과 디렉토리 분류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 장서에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오현(2017)이 제시한 기본 5개 계열, 하위 17계열의 진학계열과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과목인 전문교과 Ⅱ의 17개 탐구 교과를 분석하여 주제 분류를 위한 영역별 기본 범주를 설정하였다. 도출된 주제 요소를 10개 대분류와 44개 중분류로 주제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구조화하였다.

둘째, 분석을 통해 구조화된 주제별 분류와 KDC 분류표를 비교 분석하여 매칭 작업을 실시하였다. 매칭을 통해 해당 디렉토리로 제공할 수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으로 선정한 세 기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하여 진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적용한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의 디스플레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 주제 브라우징(browse subjects)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주제 디렉토리를 구현할 때 조직체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로써 청소년을 위한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밴쿠버 공공도서관(Vancouver Pubic Library)의 Teens[12)]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Teens에서는 약 5,500건의 전자책과 오디오북에 대한 주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대분류 단계에서 자료를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분하고 중분류 단계에서 문학은 장르, 주제, 문학형식으로, 비문학은 주제와 언어로 범주화하여 제시한다. 소분류 단계는 패싯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이용자가 주제 디렉토리에서 선택한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제시되는 페이지로 이동하면 좌측의 패싯 내비게이션을 통해 선택한 주제를 세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더욱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표 1. 밴쿠버 공공도서관 Teens 주제 디렉토리 분류체계

주제분류		유형분류 (자원형식)
대분류	중분류	
young adult fiction (26)	African American fiction, Christian fiction, classic literature, comic and graphic books, drama, fantasy, folklore, historical fiction, horror, humor (fiction), literary anthologies, literature, mystery, mythology, poetry, romance,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 fantasy, short stories, sports & recreations, suspense, thriller, travel literature, western, young adult fiction, young adult literature	ebooks audiobooks
young adult nonfiction (32)	African American nonfiction, art, biography & autobiography, business, careers, comic and graphic books, computer, technology, cooking & food, crime, education, family & relationships, games, geography, health & fitness, history, human rights, humor(nonfiction), language arts, law, multi-cultural, music, nature, non-English nonfiction, performing arts, politics, reference, science, self-improvement, sociology, sports & recreations, technology, young adult nonfiction	

2. 노스캐롤라이나 디지털 도서관(North Carolina Digital Library)의 Kids[13)]

노스캐롤라이나 디지털 도서관의 Kids에서는 약 10,000건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매거진, 비디오 자료에 대한 주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류체계는 대분류 단계에서 모든 자료를 어린이문학, 어린이비문학, 매거진, 비디오로 구분하고 주제, 장르, 언어, 표현형식 등으로 범주화하여 중분류지를 제시한다. 밴쿠버 공공도서관과

12) Vancouver Pubic Library Teens. Browse subjects. Retrieved August 13, 2021, from https://vpl.overdrive.com/library/teens/browse

13) North Carolina Digital Library Kids. Browse subjects. Retrieved August 13, 2021, from https://ncdigital.overdrive.com/library/kids/browse

마찬가지로 노스캐롤라이나 디지털 도서관에서도 주제 디렉토리에서 선택한 주제에 대한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패싯 내비게이션을 통해 소분류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비문학' 항목의 '전기&자서전'에 해당하는 464개 항목에 대해 패싯 내비게이션의 '음악'을 적용하면 더욱 세분된 검색결과로 23건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표 2. 노스캐롤라이나 디지털 도서관의 Kids 주제 디렉토리 분류체계

분류		유형분류 (자원형식)
대분류	중분류	
juvenile fiction (43)	African American fiction, beginning reader, biography & autobiography, Christian fiction, classic literature, comic and graphic books, cooking & food, drama, fantasy, folklore, geography, historical fiction, history, horror, humor (fiction), inspirational, juvenile fiction, juvenile literature, language arts, literary anthologies, literary criticism, literature, multi-cultural, mystery, mythology, nature, non-English fiction, performing arts, pets, picture book fiction, picture book nonfiction, poetry, reference, romance, science,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 & fantasy, short stories, suspense, thriller, travel literature, western, young adult literature	ebooks audiobooks magazines videos
juvenile nonfiction (68)	African American nonfiction, antiques, architecture, art, beginning reader, biography & autobiography, business, careers, chemistry, children, computer technology, cooking & food, crafts, education, engineering, entertainment, ethics, family & relationships, folklore, foreign language study, French foreign language study, Italian foreign language study, Spanish foreign language study, games, gardening, geography, health & fitness, history, home design & décor, human rights, humor (nonfiction), informational, juvenile literature, juvenile nonfiction, language arts, law, LGBTQIA+, literary criticism, mathematics, media studies, medical, military, multi-cultural, music, mythology, nature, new age, non-English nonfiction, outdoor recreation, performing arts, pets, philosophy, photography, physics, picture book nonfiction, politics, reference, religion & spirituality, science, self-improvement, social studies, sociology, sports & recreations, study aids & workbooks, technology, transportation, travel, women's studies	
magazines (13)	business & finance, celebrity & gossip, culture & literature, family & parenting, fashion, food & wine, health & fitness, kids & teens, news & politics, science, tech & gaming, travel & outdoor, women's lifestyle	
videos (12)	action, adventure, animation, children's video, comedy, documentary, drama, feature film, instructional, short film, TV series, young adult video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mart-아이 전자도서관[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mart-아이 전자도서관에서는 주제, 장르, 언어, 형식, 이용대상자층을 반영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브라우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직체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대분류지의 '인문/사회' 내의 중분류지 '인문/사회' 계층에는 '인문학산책', '한국/동양철학', '서양철학', '심리/정신분석', '신화/인류학', '사회학산책', '사회학이해', '정치/외교', '언론/미디어', '교육/환경', '법률/행정/복지', '인물사전', '철학일반'으로 이루어진 소분류명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주제를 더욱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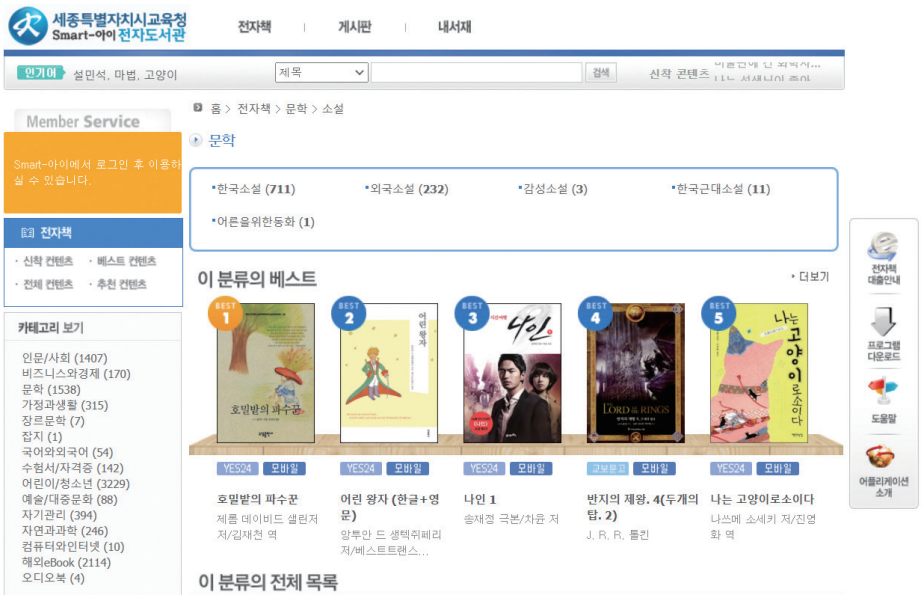


그림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mart-아이 전자도서관 카테고리

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mart-아이 전자도서관 카테고리 분류체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문/사회	인문/사회	인문학산책, 한국/동양철학, 서양철학, 심리/정신분석, 신화/인류학, 사회학산책, 사회학이해, 정치/외교, 언론/미디어, 교육/환경, 법률/행정/복지, 인물사전, 철학일반
	역사/종교	한국사, 세계사, 인물이야기, 풍속/문화이야기, 역사이론/고고학, 지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mart-아이 전자도서관. [인용일 2021. 8. 13.]. 출처: http://ebook.sje.go.kr/ebook/ebook_list.asp?cate_id=003001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즈니스와 경제	경제, 경영, 마케팅/세일즈, 투자/재테크, CEO/비즈니스맨, 인터넷비즈니스	–
문학	소설	한국소설, 외국소설, 감성소설, 한국근대소설, 어른을위한동화
	고전/희곡	고전, 희곡
	시/평론	시, 이론과평론
	에세이/산문	에세이, 휴먼스토리, 자기계발, 기행/답사
가정과 생활	가정과 생활	건강, 다이어트/패션/미용, 성/사랑, 결혼/가족, 자녀교육, 요리, 집/살림
	취미/여행	여행/관광, 스포츠, 취미서
장르문학	판타지/유머/추리	판타지, 대중소설, 유머
잡지	교양/인문/종교	–
국어와 외국어	국어	국어의 이해
	영어	독해/문법/작문, 사전/어휘, 입문서, 회화, 유학/수험서
	일본어	–
	중국어	–
	언어학	–
수험서/자격증	취업/상식/적성검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전	–
어린이/청소년	유아	놀이책, 그림책, 학습
	어린이	그림책/동화책, 동요/동시, 문화/예술, 영어, 위인전, 자기계발/생활, 학습, 기타
	청소년	경제/자기관리, 문학, 인문/사회, 문화/예술, 종교/윤리/생활, 학습법
예술/대중문화	예술기행, 예술일반/예술사, 건축, 미술, 음악, 사진, 대중문화, 연극/공연, 디자인/공예	–
자기관리	처세술/삶의자세, 성공학/경력관리, 화술/협상/회의진행, 창조적사고,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 인간관계, 취업/직업의세계, 유학/이민	–
자연과 과학	과학일반, 수학,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인체, 천문학, 지구과학, 기계/기계공학, 토목/건축공학	–
컴퓨터와 인터넷	IT 전문서, 웹/컴퓨터 입문&활용	–
해외 e-book	구텐베르크프로젝트	–
오디오북	역사	–

4. 사례분석 및 시사점

표 4. 선정한 세 기관의 사례 비교 분석

	밴쿠버 공공도서관	노스캐롤라이나 디지털 도서관	Smart-아이 전자도서관
대-중-(소) 분류 수	2 – 58	3 – 125	15 - 61 – (71)
디렉토리 상위고정	무	무	유
디렉토리 내 재검색	유	유	유
소분류 디스플레이 방법	조합식	조합식	열거식

선정한 세 기관의 사례 비교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분류체계를 구상할 때 자료의 유형, 장르, 주제, 이용자의 행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대분류-중분류까지만, 또는 소분류지 내에서 더 세분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할 수 있다.

둘째, 디렉토리 내에서 이용자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도록 해야 한다. 살펴본 사례에서는 선택한 디렉토리의 분류지를 패싯화하여 왼편에 표시하거나 디렉토리 자체를 상위에 고정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셋째, 검색 창이나 패싯 내비게이션을 통해 디렉토리 결과 내 재검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자모순, 대출량순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검색 결과에 대한 정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Ⅲ 진로 디렉토리 모형

1. 진로 주제 요소 도출 및 구조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진로 디렉토리 분류체계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탐색을 아우르기 위하여 권오현(2017)이 제시한 기본 5개 진학계열과 특성화 고등학교 현행 5계열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여 설계하였다. 청소년 대상 진로 주제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10개 대분류와 44개 중분류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대분류로 기본 5개 진학계열과 특성화 고등학교 현행 5계열로 총 10개로 구성하였고 중분류로는 기본 5개 진학계열의 하위 계열과 전문교과 Ⅱ의 17개 탐구 교과목으로 도출하였다. 최종 도출된 청소년 대상 진로 디렉토리 분류체계는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 대상 진로 주제 디렉토리 분류체계

중분류	대 분 류(10)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술체육	교육	상업정보	가사실업	공업	수산해운	농생명산업
1	상경	농림수산	건축, 환경	예술	교육학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기계	건설
2	사회과학	간호보건	기계전자컴퓨터	체육	특수교육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건설	식품가공	식품가공
3	법학행정	의학계열	산업, 재료공학		유아교육	미용, 관광, 레저	음식조리	기계	농림수산해양	농림수산해양
4	문학언어	생활과학				정보, 통신	섬유의류	재료	선박운항	
5	인문학	자연과학						화학공업		
6								섬유의류		
7								전기전자		
8								정보통신		
9								식품가공		
10								인쇄출판공예		
11								환경안전		

소분류는 진로별 권장 선택과목과 연관 선택과목을 적용하여 전개하였고, 소분류명은 현행 고등학교 교과목 명칭을 기준으로 선정해 청소년들의 직관적 선택이 용이하게 하였다.

교과목 분류체계는 고교학점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을 포함한 선택과목 전반과 전문교과 Ⅱ의 17개 탐구 교과목 구조를 반영하였다. 이처럼 교과과정의 교과목 분석에

입각하여 분류를 전개한 것은 첫째,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분류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둘째, 진로별 권장 선택과 연관 선택과목 교과의 주제를 부각하여 주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에서는 권오현(2017)의 진로·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를 기초로 기본 5개 진학계열의 하위 계열별로 권장 선택과목을 제시하는데 만약 '인문사회계열-상경계열' 상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그림 7]과 같이 해당 진로적합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 예시
경제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공통 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을 이수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제학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선택 과목을 이수한다. 경제학 공부를 위해서는 인문사회 계열과는 달리 수학 교과군에서 '확률과 통계' 또는 '미분과 적분', 진로 선택의 '경제 수학' 과목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탐구 과목으로서 '경제', '사회문제 탐구' 등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연과학 전반을 이해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융합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과학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이수하는 한편 '과학사' 등의 이수를 통해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그림 7. 교육부가 제시한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 예시[15)]

이를 반영하여 해당 교과명을 소분류명으로 도출하는 과정은 권오현(2017)이 제시한 기본 5개 진학계열과 특성화 고등학교 현행 5계열 분류체계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기본 5개 진학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술체육, 교육)의 소분류명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명이 한 강목 아래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키워드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목이 속한 강목으로 범주화하였고 이때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상위어로 소분류명을 도출하였다. 단, '경제 수학'과 같이 교과목명이 KDC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칭을 하였고, '문학'과 '고전읽기' 교과와 같이 자료량이 방대하여 오히려 세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KDC 요목표를 기준으로 세분하여 소분류명을 도출하였다.

둘째, 교과목명이 KDC의 강목이나 요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교과목의 경우 자연어 텍스트로 존재하는 대단원과 중단원명을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tokenization)한 다음 그중에서 명사를 추출하여 KDC의 요목표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형태소 단위로 분석할 경우 의미가 해체되어 버리는 명사구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도록

15)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17. 10. 11.).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 브로슈어(고등학교).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출처: https://www.cet.keris.or.kr/Doc/ETCDetailHome?DOC_KEY=104

하였다. 또한 교과목의 키워드들이 한 강목 아래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키워드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목이 속한 강목으로 범주화 하였다.

예를 들어 탐구영역의 사회교과인 '생활과 과학'의 경우 대단원과 중단원명에서 '건강한 생활', '건강', '식품', '아름다운 생활', '미용', '의복', '편리한 생활', '건축', '교통', '스포츠', '미술', '음악', '종합 예술' 13개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건강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 '편리한 생활', '종합 예술'은 형태소 단위로 분석할 경우 의미가 해체되는 명사구이므로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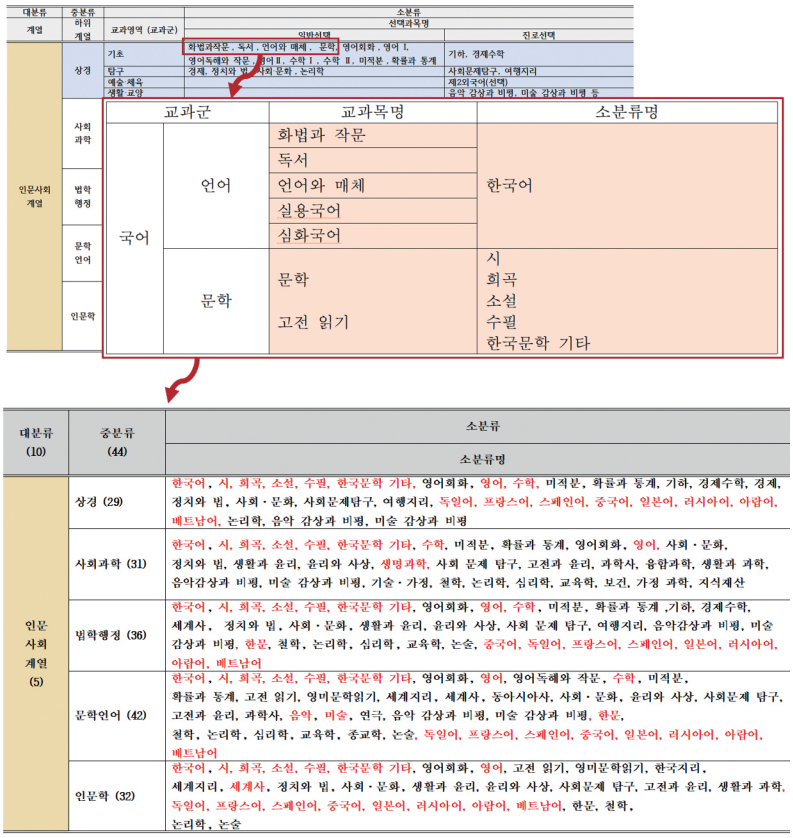
표 6. 탐구영역의 사회교과인 '생활과 과학' KDC 매칭 과정 예시

소단원 명에서 추출한 키워드	KDC	범주화
'건강한 생활', '건강'	517 건강증진	517 건강증진
'식품'	594 식품과 음료	590 생활과학
'아름다운 생활', '미용'	593 몸치장, 화장	
'의복'	592 의복	
'건축'	540 건축	540 건축
'교통'	326 상업, 교통, 통신	326 상업, 교통, 통신
'미술'	600, 620, 630, 640, 650 예술, 조각, 공예, 서예, 회화, 도화, 디자인	600 예술
'음악'	670 음악	
'종합 예술'	680 공연예술, 매체예술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5계열(상업정보, 가사실업, 공업, 수산해운, 농생명산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해당 교과목이 분류되는 KDC 분류기호와 매칭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KDC와 매핑한 결과 예시는 [표 7]과 같다.

표 7. 선택과목 교과목과 KDC의 매핑 결과(예시)

교과영역	교과군		교과목명	소분류명	KDC
기초	국어	언어	화법과 작문	한국어	710
			독서		
			언어와 매체		
			실용국어		
			심화국어		
		문학	문학	시	811
				희곡	812
			고전 읽기	소설	813
				수필	814
				한국문학 기타	815~819
	수학		수학 I, 수학 II	수학	410
			실용 수학		
			수학과제 탐구		
			미적분	미적분	414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413
			기하	기하	415
			경제 수학	경제 수학	320.015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수학	413.5
	영어	언어	영어 I, 영어 II	영어	740
			영어독해와 작문		
			진로 영어		
			영어회화	영어회화	747.5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영어권 문화	331.5
		문학	영미문학 읽기	영미문학 읽기	840



교과군		교과목명	소분류명
국어	언어	화법과 작문	한국어
		독서	
		언어와 매체	
		실용국어	
		심화국어	
	문학	문학	시 희곡 소설 수필 한국문학 기타
		고전 읽기	

대분류 (10)	중분류 (44)	소분류
		소분류명
인문사회계열 (5)	상경 (29)	한국어, 시, 희곡, 소설, 수필, 한국문학 기타, 영어회화, 영어,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경제수학,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사회문제탐구, 여행지리,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논리학,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사회과학 (31)	한국어, 시, 희곡, 소설, 수필, 한국문학 기타,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회화, 영어, 사회·문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명과학, 사회 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사, 융합과학, 생활과 과학,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기술·가정,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보건, 가정 과학, 지식재산
	법학행정 (36)	한국어, 시, 희곡, 소설, 수필, 한국문학 기타, 영어회화, 영어,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경제수학,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문제 탐구, 여행지리,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한문,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논술,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문학언어 (42)	한국어, 시, 희곡, 소설, 수필, 한국문학 기타, 영어회화, 영어, 영어독해와 작문,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고전 읽기, 영미문학읽기,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사, 음악, 미술, 연극,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한문,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논술,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인문학 (32)	한국어, 시, 희곡, 소설, 수필, 한국문학 기타, 영어회화, 영어, 고전 읽기, 영미문학읽기,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생활과 과학,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철학, 논리학, 논술

그림 8. 선택과목 교과목별 소분류 도출 과정(예시)

연구로 도출된 청소년 대상 진로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소분류 수는 [표 8]과 같다. 중분류별 소분류는 계열별로 권장 이수과목 개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인문사회계열의 소분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과학 〉 공학 〉 공업 〉 예술체육 〉 상업정보 〉 수산해운 〉 농생명산업 〉 가사실업 〉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디렉토리 내 소분류의 수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술체육		교육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상경	29	농림수산	7	건축, 환경	24	예술	15	교육학	7
2	사회과학	31	간호보건	12	기계전자 컴퓨터	20	체육	20	특수교육	1
3	법학행정	36	의학계열	23	산업, 재료공학	14			유아교육	1
4	문학언어	42	생활과학	15						
5	인문학	32	자연과학	11						

	상업정보		가사실업		공업		수산해운		농생명산업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경영 금융	16	보건 복지	9	디자인 문화 콘텐츠	6	기계	9	건설	6
2	디자인 문화 콘텐츠	7	미용, 관광, 레저	2	건설	6	식품 가공	1	식품 가공	1
3	미용, 관광, 레저	3	음식 조리	2	기계	9	농림 수산 해양	12	농림 수산 해양	12
4	정보 통신	3	섬유 의류	4	재료	3	선박 운항	4		
5					화학 공업	2				
6					섬유 의류	4				
7					전기 전자	1				
8					정보 통신	3				
9					식품 가공	1				
10					인쇄 출판 공예	1				
11					환경 안전	1				

2. 진로 디렉토리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 현황

진로 디렉토리에 매핑한 KDC 분류기호를 기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소장 자료 수를 조사하였다. 각 중분류 체계상에 분류되는 검색 결과 건수는 [표 9]와 같다.

중분류별 검색 건수는 해당 소분류의 수의 영향으로 계열별로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인문사회계열-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자료가 가장 많았고 문학·언어 〉 의학 〉 법학·행정 〉 상경 〉 체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소분류가 비교적 적은 대분류명인 공업계열에서 적은 자료 수가 검색되었다.

표 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진로 디렉토리(중분류)별 검색결과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술체육		교육	
	접근점	검색 건수	접근점	검색 건수	접근점	검색 건수	접근점	검색 건수	접근점	검색 건수
1	상경	123,011	농림 수산	17,630	건축, 환경	77,381	예술	95,138	교육학	4,590
2	사회 과학	150,074	간호 보건	39,036	기계 전자 컴퓨터	75,613	체육	113,614	특수 교육	2,164
3	법학 행정	143,609	의학 계열	145,444	산업, 재료 공학	53,052			유아 교육	35,246
4	문학 언어	146,605	생활 과학	42,063						
5	인문학	124,130	자연 과학	48,731						

	상업정보		가사실업		공업		수산해운		농생명산업	
	접근점	검색 건수	접근점	검색 건수	접근점	검색 건수	접근점	검색 건수	접근점	검색 건수
1	경영 금융	20,164	보건 복지	21,023	디자인 문화 콘텐츠	1,627	기계	1,766	건설	785
2	디자인 문화 콘텐츠	1,627	미용 관광 레저	185	건설	785	식품 가공	188	식품 가공	188
3	미용 관광 레저	185	음식 조리	1,096	기계	1,766	농림 수산 해양	243	농림 수산 해양	243
4	정보 통신	3,116	섬유 의류	369	재료	79	선박 운항	123		
5					화학 공업	126				
6					섬유 의류	369				
7					전기 전자	117				
8					정보 통신	3,116				
9					식품 가공	188				
10					인쇄 출판 공예	551				
11					환경 안전	2,250				

3. 진로 디렉토리의 디스플레이 제안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 주제별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의 디스플레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으로 선정한 세 기관의 서비스 현황에서 도출한 4가지 시사점을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인문사회-상업·경제-독일어'에 접근한 예시 결과 화면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진로 디렉토리 이용자 디스플레이 화면

이용자가 검색 시스템에서 탐색을 지속하도록 돕기 위하여 디렉토리 대분류지를 상위에 고정하였으며 이용자가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디렉토리 내에서 자료의 최종 접근점이 되는 소분류명은 왼편의 레이블을 통해 현행 교과과정의 교과군별로 정리하였다. 이는 소분류명의 정렬에서 교과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하였다. 검색 결과 내에서 오른편의 숨김 메뉴를 통해 도서관 온라인 목록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패싯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디렉토리 결과 내 재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Ⅳ 결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비전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전국의 도서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검색 중 키워드 검색은 이용자가 진로 분야에 어떠한 정보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거나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가 모호할 경우에는 자료검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KDC 기반의 주제별 검색은 KDC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학문 분류체계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탐색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들에게 친숙한 고교학점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진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에서 단순 주제별 분류체계보다 교과과정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전공별 고등학교 교과별 선택과목'에 따른 기본 5개 계열, 하위 17계열의 진학계열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구성된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과목인 전문교과 Ⅱ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구 과목을 기반으로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구조화하고 디스플레이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 전 계층을 망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소년 계층에게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 접근점을 제공하는 기초연구로 그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를 기초로 사용성 평가를 거쳐 향후 청소년 대상 서비스에서 패싯 분류체계, 패싯 개념을 도입한 주제어 기반 분류를 위한 주제명 개발 및 패싯 내비게이션 설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승진 (2004). 청소년 과학분야 디지털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67–83.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17. 10. 11.).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 브로슈어(고등학교).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출처: https://www.cet.keris.or.kr/Doc/ETCDetailHome?DOC_KEY=104

국립중앙도서관 (2021. 7. 2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 기관으로 선정 – "청소년! 도서관에서 미래를 찾다" 프로그램 운영." 보도자료.

권오현 (2017). 진로·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교육부.

김지은 (2018). 진로와 직업 탐색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 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김지혜 (2010). DDC 기반의 패싯형 디렉토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Smart–아이 전자도서관. [인용일 2021. 8. 13.]. 출처: http://ebook.sje.go.kr/ebook/ebook_list.asp?cate_id=003001

유재옥 (2009). 어린이청소년자료 온라인종합목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5–15.

최상희 (2020). 공공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유형 분석 연구 : 미국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51–374.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Fink, M. P. (2015). Teen Services 101: A Practical Guide for Busy Library Staff. 이종권, 노동조 역 (2015). 청소년 서비스 101: 청소년 서비스 실무 가이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출처: https://www.nlcy.go.kr/NLCY/contents/C10404000000.do

North Carolina Digital Library Kids. Browse subjects. Retrieved August 13, 2021, from https://ncdigital.overdrive.com/library/kids/browse

Vancouver Pubic Library Teens. Browse subjects. Retrieved August 13, 2021, from https://vpl.overdrive.com/library/teens/browse

YALSA. YALSA's book awards & booklists. Retrieved August 13, 2021, from https://www.ala.org/yalsa/booklists

2021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인 쇄 일 | 2021년 10월 26일
발 행 일 | 2021년 10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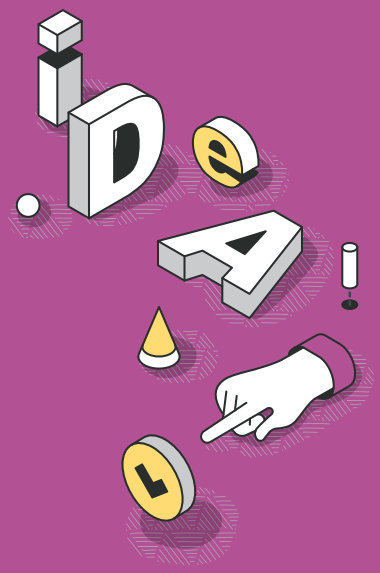
발 행 처 | 국립중앙도서관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Tel: (02)590-0799 / Fax: (02)590-0546
www.nl.go.kr

디자인·제작 | (주)계문사
Tel: (02)725-5216 / Fax: (02)738-9571

ISBN 979-11-6513-199-9 93020 [비매품]

2021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비매품/무료
93020
9 791165 131999
ISBN 979-11-6513-199-9